

인문지표개발 및 지수화 방안 연구

2022-07

정책연구

Indexation of Indicators for Humanities

이성우
김 면
정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정책연구 2022-07

인문지표개발 및 지수화 방안 연구

Indexation of Indicators for Humanities

이성우·김면·정현주

연구책임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정현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문지표 개발 및 지수화방안 연구



연구개요

□ 연구 목적

가. 인문정책의 활용 및 기여도 정도 파악을 위해 인문정책의 지수 개념화 모색

인문 환경을 분석하고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국민 활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개발과 지수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영역(인력, 제도, 예산, 프로그램 등)의 제반 요인들을 광역 시도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지수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는 인문정신문화 정책 현황과 지역 간 편차를 파악하여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확보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나. 인문정책의 효과성 증진 위한 실증적인 성과분석 기반 마련

기존 인문정신문화정책 사업에 대한 비판적이고 발전적인 검토 위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현상분석 및 인문정신문화정책 평가를 위한 기준점으로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를 설정하고자 함. 인문정신문화정책은 실증적 객관적 지표로서 그 성과를 손쉽게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나, 인문정신문화정책사업의 진단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문정책의 체계적인 기반 수립을 위한 지수화 방안제안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 지표를 기반으로 지수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지표를 기반으로 인문정신문화 정책 실행 현황에 대한 지수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지수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수화를 통하여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정책 실행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보완 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음

□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 원칙

첫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제반 여건과 사업 운영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로 설정되어야 함.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설, 조직, 인력 등 필수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야 함

둘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여러 연관된 문화예술 교양 프로그램들과 별개로 인문정신문화 정책 프로그램이 측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양한 유형의 교양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상황임. 향후 지속적으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집계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지표가 구성되어야 함

셋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정책 수행과 연관된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국민들이 인문정신문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별 시설, 운영 프로그램 수, 접근성 등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함

넷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함께 인문정신문화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후 사회 활동과 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만족도가 아니라, 향후 사회적 영향과 개인에 미친 영향 효과 등에 대한 측정을 고려하여야 함

다섯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향후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시 별도의 조사항목을 구성할 필요 없이 관련 현황 실태가 파악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여섯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지표의 세분화를 추구하여야 하지만, 조사의 용이성을 항상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안

1) 지표 구성에 대한 종합의견

인문정책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연구실무진 회의 등을 통해 검토되었으며 지표별로 선정, 수정, 삭제 및 보완이 이루어졌음. 이를 통해 조사 항목이 5개 대분류 및 15개 중분류로 확정되었음

대분류 ‘인문자본’ 항목에서 세분화된 ‘인문기반’ 항목에서 ‘인문시설’ 용어는 사회자본의 의미가 내포된 ‘인프라’로 변경되었음. 인문지표 초안의 ‘인문정책’ 항목 대신에 ‘인문참여’로 수정 교체하여 실적 위주의 내용 편성보다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이 먼저 요구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2차안 대분류 구성에서 ‘인문자본’보다는 ‘인문자원’이, ‘인문성과’보다는 ‘인문효과’가 보다 더 인문학적 취지를 담은 용어로 제시되었음. ‘자본’은 말 그대로 경제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 보다 인문학적이며 동시에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자원’이라는 단어를 선정하였음. ‘인문성과’라는 표현은 인문학적 소양 축적 및 정식 확산이라기보다는 결과를 강조한다는 느낌이므로 ‘효과’와 같은 보다 중립적인 용어가 적합함이 제안되었음. ‘인문접근성’의 경우 시설공간의 접근성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최종 인문정보를 습득하고 참여하는 ‘인문접근 정보성’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간접근성의 경우 만족도 지표에서 조사하기로 되었음

3차 단계에서 인문정신문화정책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표가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인문정책사업의 수동적 참여보다는 인문활동 등 참여자 주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용어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인문향유’ 용어를 대신하여 ‘인문참여’로 배치됨. 대분류 ‘인문참여’에서 ‘동아리활동’을 ‘단체·모임 활동참여’로 수정했는데, 이는 ‘동아리’ 용어가 주는 의미가 생활문화사업 같은 지역단위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기에 인문사업 평가에 보다 적합한 용어로 ‘단체, 모임 활동참여’로 새로이 변경 구성하였음

〈표 1〉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대분류 및 중분류 수정내용

대분류		중분류			
초안	수정	1차안	2차안	3차안	최종안
인문 자본	인문 환경	정책수립	정책수립	정책수립	정책수립

대분류		중분류			
초안	수정	1차안	2차안	3차안	최종안
		정책실행	정책실행	정책실행	정책실행
		정책예산	정책예산	정책예산	정책예산
	인문 기반	시설	인프라	인프라	인프라
		조직	정보화	인문기관접근성	활동여건
		인력	조직, 인력	인력	인력여건
	인문 자원	—	인문사업운영의 적절성	인문사업운영	인문사업 운영
		인문학습지원	인문학습지원	인문학습지원	인문학습지원
		인문접근성	인문공간접근성	홍보 및 정보화	인문정보 접근성
	인문 정책	인문 참여	참여기회, 참여율	참여기회 및 다양화	참여기회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	단체·모임 활동참여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참여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
인문 성과	인문 효과	참여만족도	참여만족도	참여만족도	참여만족도
		지원만족도	지원만족도	지원만족도	지원만족도
		여건만족도	여건만족도	여건만족도	여건만족도
		시민의식증진	—	—	—

2) 측정지표에 대한 종합의견

중분류 ‘인문학습지원’ 항목에서 세부 내용이 앞서 ‘인문프로그램 강좌 및 인문 행사 운영 사업 수’와 ‘운영일수’에서 ‘인문프로그램 운영 수’ 및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 시간’으로 변경하였음. 대분류 ‘인문자원’ 항목에 ‘홍보 및 정보화’ 세부내용을 바꾸어 배치하여 인문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습득으로 인하여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추가되었음

인력여건 항목에서 투입요소 중 인문프로그램 운영전문가(운영자) 인력에 대한 지표가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지역별 인문담당 인력 수’ 및 ‘지원인력(정규직) 수’를 선정하였음. 참여기회 항목지표의 경우 ‘시설당 인문범주 프로그램 당 참여자 수’와 ‘시설당 인문 이용자 취약계층 참여 비율’에서 ‘프로그램 참여율’로 변경하여 보편적인 측정항목으로 설정하였음. 사회참여도 항목에는 ‘인문관련 사회참여활동 및 봉사활동 월평균 빈도/시간’에서 ‘지자체별 사회단체 참여율’로 교체하였음. 사회적 상호작용 항목에는 ‘지역사회참여증가율’이라는 세부항목은 특히 정량화하기에 무척 어려

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지역 문화기반시설 이용시간의 퍼센트에서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로 참여 이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배치하였음

이전 대분류 '인문향유' 내 중분류 '동아리 활동' 항목은 '단체모임 활동참여'로 교체되었고, 세부내용도 인문프로그램 참가자의 동아리(모임), 자원봉사 활동단체, 사회단체 참여율로 보완되었음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인문관련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음. '참여만족도' 내 세부내용인 '삶의 만족도'에서 '인문사업의 참여자 만족도'로 대체하였음. '활동만족도'는 '지원만족도'로 교체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지원정책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하였음. 여건만족도에서는 인문관련 시설 공간 만족도를 조사 항목으로 최종 수정하였음

〈표 2〉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지표 수정내용

지표	1차안	2차안	3차안	최종안
인문정책 지원을 위한 법률 조례 및 규칙 수	○	○	○	○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지원사업 건수	○	○	○	○
예산대비 인문정책 지원예산 비율	○	○	○	○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	○	○	○
인구 십만 명당 인문 관련 활동지원 기관시설 수	○	○	○	○
지역 내 인문 관련 단체·협회 수	—	전문예술 법인 수	인문 인력풀	○
지역별 인문 담당 인력 구성, 지원인력 수	○	○	○	○
인문접근성	○	○	○	공간만족도 통합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	○	○	○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	운영 일수	교육 시간	기회 제공	○
인문프로그램 운영 연간 소요예산	—	—	지출 총액	○
인문 프로그램의 정보습득에 따른 참여정도	—	—	정보 현황	○
지역별 인문 범주 프로그램 참여율	참여자 수	참여자 수	참여자 수	○
인문사업 참가자의 동호회활동 정도, 자원봉사 참여율	동아리 수	동아리 수	○	○
인문참여가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도	참여율	참여율	변화 인식	○
인문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	삶 만족도	○	○

지표	1차안	2차안	3차안	최종안
인문사업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	○	여가 만족도	○	○
인문관련 시설 공간만족도(기관접근성 포함)	시민의식 증진	여가 시간	○	○

□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분류체계

앞서 살펴본 과정을 거쳐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안)를 구성하였음. 최종안을 우선 제시하고 관련 분류체계를 설명함

〈표 3〉 인문정신문화정책 정책지표 최종안

대분류	중분류	지표
인문환경	정책수립	인문정책 지원을 위한 법률 조례 및 규칙 수
	정책실행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지원사업 건수
	정책예산	예산대비 인문정책 지원예산 비율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인문기반	인프라	인구 십만 명당 인문 관련 활동지원 기관시설 수 (자체/ 임차/ 공동)
	활동여건	지역 내 인문 관련 단체 협회 수
	인력여건	지역별 인문 담당 인력 구성, 지원인력(정규직) 수
인문자원	인문사업 운영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강의/토론/ 체험/ 혼합)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
	인문학습 지원	인문프로그램 운영 연간 소요예산
인문정보 접근성	인문 프로그램의 정보습득에 따른 참여정도	
인문참여	참여기회	지역별 인문 범주 프로그램 참여율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	인문사업 참가자의 동호회활동 정도, 자원봉사 참여율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	인문참여가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도
인문효과	참여만족도	인문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양적/질적)만족도
	지원만족도	인문사업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
	여건만족도	인문관련 시설 공간만족도(기관접근성 포함)

가. 대분류 체계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의 대분류를 크게 인문환경, 인문기반, 인문자원, 인문참여, 인문효과 다섯 가지로 정하였음.

1) 인문환경

인문환경은 각 지자체가 인문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인문활동 환경이 인문정신문화 정책 수립에 기반한다는 측면에서 대분류로서 인문정신문화 정책 수립, 집행, 예산 정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각 지자체에서 인문진흥정책에 대한 정책 구상 및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자 함. 중분류에서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으로 분류하여 각 세부측정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음. 정책수립에는 인문정책관련 법률·조례 제정 여부를 측정지표로 하였고, 정책실행에는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 수립여부를 측정지표로 삼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문정책을 수립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음. 정책예산에서는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예산대비 인문정책 예산 비율을 넣어 관련 예산 확보에 얼마나 노력 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음

2) 인문기반

인문기반 부문은 인문정책 활동과 관련된 여건이 지역별로 적절한 수준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인문환경보다 좀 더 인문정신문화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관련 단체, 관련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정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임. 인문기반이라는 대분류 하에서 중분류로서 중요 요인으로, 인프라, 단체·협회 수, 기관담당 지원인력을 측정하고자 함. 인프라는 인구 십만 명당 인문관련 활동지원 기관시설 수를 측정지표로 선정하였고, 인문 활동 관련 단체·협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지원인력은 지역별 인문관련 담당 인력 구성, 지원 인력수를 지표로 삼고자 함

3) 인문자원

인문자원 부문은 지역주민들이 인문관련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적 요소를 측정하는 부문으로 설정하였음.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요인들이 필요하며, 그중 핵심요인으로 인문사업 운영, 인문학습 지원, 인문정보 접근성을 설정하였음. 지역 내에 선택할 수 있는 인문관련 프로그램 수가 얼마나 되는지, 관련 운영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인문관련 프로그램의 정

보를 습득에 따른 참여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측정지표로는 인문사업운영 부문에선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인문관련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측정하고자 함. 인문학습 지원에서는 인문프로그램 운영 지출총액/인구수, 인문프로그램 운영 기회제공/인구수를 측정하고자 함. 인문정보 접근성 부문에서는 인문 사업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어느 정도 습득되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인문사업에 참여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4) 인문참여

인문참여는 지역주민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지표에 포함하였음. 인문참여 대분류 하에 중분류로, 참여기회,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를 설정하였음. 참여기회는 관련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관련한 단체 및 모임에는 얼마나 참여하는지,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변화를 사회 참여로 측정하고자 하였음. 참여기회의 측정은 지역별 인문범주 프로그램 참여율을 측정하고자 하며, 인문관련 사회활동 참여 부문에서는 인문사업 참가자의 동호회 활동정도, 그리고 인문프로그램 참가자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을 측정하고자 함. 그리고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는 인문프로그램 참가자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5) 인문효과

인문효과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과 지원정책, 관련 공간 시설 이용 만족도 등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측정하여 지역별 편차를 확인하고자 설정하였음. 인문정신문화정책, 문화시설,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부문으로 설정하였음. 인문효과는 중분류로 참여만족도, 지원만족도, 여건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고 참여만족도는 인문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지원만족도에는 인문프로그램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관련 만족도, 여건만족도에는 인문프로그램 문화시설별 공간 활용 만족도를 시설만족도, 기관접근정도, 편의시설 만족도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함

나. 중분류 체계

앞서 살펴봤던 대분류 하에서 중분류별로 설정된 요인들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함

1) 인문환경의 중분류

인문환경지표는 각 지자체가 인문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등 3개의 중분류지표로 구성됨. 정책수립은 지자체에서 인문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정책실행은 지자체가 인문 관련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정책실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인문 추진 및 성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정책예산은 지자체가 인문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재원을 확보하고 투입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인문정책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2) 인문기반의 중분류

인문기반지표는 인문관련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가 조성되고 운영되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인프라, 활동여건, 지원인력여건 등 3개의 중분류지표로 구성됨. 인프라는 각 지자체가 인문활동과 관련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활동여건은 각 시도 내에 인문활동과 관련된 협회와 단체의 활성화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인력여건은 각 지자체 내에 인문관련 지원인력의 운용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인문정책 진흥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3) 인문자원의 중분류

인문자원지표는 인문관련 지원정책 사업과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정책사업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인문사업운영, 인문학습 지원, 인문기관 접근성 등 3개의 중분류지표로 구성됨. 인문자원 지표의 중분류를 통해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 예산 현황, 정보유통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인문사업운영은 지자체에서 인문관련 운영 프로그램별 운영 건수와 총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지표임. 인문 학습지원은 지자체에서 인문 정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문 프로그램의 예산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보는 지표임. 인문정보 접근성은 지자체에서 인문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 정도와 이를 통해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임

4) 인문참여의 중분류

인문참여지표는 인문사업 관련 참여정도와 인문 프로그램 참여 후속으로 인문 나눔과 관련된 활동 정도, 그리고 참가자 본인의 삶의 질적 가치향상을 이루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인문 프로그램 참여기회,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 등 3개의 중분류지표로 구성됨

참여기회는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이 인문관련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도와 활동 수준 조사함으로써, 인문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할 수 있는 여건인지 가늠하는 지표임.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는 지자체 내 인문사업 참여 이후 인문적 가치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후속 협력활동 및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 증대 정도를 조사하는 지표임.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는 지자체 내 인문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변화 및 본인의 삶의 질에 대해 가늠해보는 지표임

5) 인문효과의 중분류

인문효과지표는 인문관련 프로그램, 정책적 지원, 시설 인프라에 대해 참여자들이 평소 느끼는 각각의 만족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인문활동의 정책성적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서 인문관련 참여만족도, 지원만족도, 여건만족도 등 3개의 중분류지표로 구성됨. 참여만족도는 인문사업 참여자들의 인문 프로그램의 호감 정도를 가늠하고 실제로 체감하는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지원만족도는 인문사업 참여자들의 각 시도 내에 인문 지원정책 분야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경험과 지원정책 및 제도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여건만족도는 인문사업 참여자들의 지역 내 인문관련 인프라 분야 만족도 파악을 위해 인문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임

□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측정지표

측정지표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표들을 새롭게 설정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현재 시행 중인 여러 국가승인 통계조사나 행정자료 수집 형태로 진행되는 현황조사들 중에서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뽑아 함께 정리함

〈표 4〉 정책수립 측정지표

번호	지표	출처
1	인문정책지원을 위한 법률 조례 및 규칙 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	최근 2년 동안 추진한 인문정책 활동 지원사업 건수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 평생교육데이터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현황(인문분야 활용)
3	예산대비 인문정책 지원예산 비율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 문체부 집계자료
4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지역문화실태조사 자료 활용
5	인문정책 활동지원 기관시설의 수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도서관 현황, 지역문화실태조사 자료 활용
6	인문정책 활동단체의 개수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평생교육통계자료 활용
7	인문정책 활동 지원인력의 수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지역문화실태조사자료 활용
8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 공공도서관 조사 프로그램 현황, 평생교육통계자료 활용
9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 평생교육통계자료 활용/공공도서관통계조사자료 활용
10	인문프로그램 운영 연간 소요예산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
11	인문 프로그램의 정보습득에 따른 참여정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2	지역별 인문 범주 프로그램 참여율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활용
13	인문사업 참가자의 동호회활동 정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공공도서관통계조사 활용
14	인문사업 참가자의 자원봉사 참여율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e-지방지표 활용
15	인문참여가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6	인문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7	인문사업 참여자의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8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시설 공간만족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9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기관 접근정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20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편의시설 만족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 인문정책지원을 위한 법률 조례 및 규칙 수

인문정신문화 정책지원을 위한 법률·조례 및 규칙 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에서 검색하여 집계할 수 있음. 광역 시도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광역자치단체 문화관련 조례 제정 전체 건수 순위, 평균, 및 전체 건수를 집계하고 있음. 이를 우선 시행하는 대리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 최근 2년 동안 추진한 인문정책 활동 지원사업 건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중앙정부 부처의 사업을 포함한 인문정책지원사업 건수를 집계하는 것으로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을 통해 집계할 수 있음. 현재 시행 중인 조사자료 중에는 평생교육 자료 중에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초중등 부설, 대학(원) 부설,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형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학원)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현황 중 인문분야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예산 대비 인문정책 지원예산 비율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예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매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는 사업예산 현황 등을 활용하여 지원예산비율을 산정할 수 있음. 대리지표로 사용가능한 현재 통계 취합되는 자료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을 집계하고 있어 이를 대리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를 파악할 수 있음. 매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는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음

○ 인문정책 활동지원 기관시설의 수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도서관 현황조사에서 도서관 현황과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기초 자치단체별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평균 및 전체 개수를 활용하여 집계할 수 있음

○ 인문정책 활동단체의 개수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신규항목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현재 시행되는 통계자료들 중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집계하는 지역별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 평생교육통계자료집에서 집계하는 비형식,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인문정책 활동 지원인력의 수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신규항목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현재 시행되는 통계자료들 중에서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집계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 자료를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운영 건수를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음. 현재 시행 중인 통계조사에서는 평생교육통계자료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행 계열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자료를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그리고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서 집계되는 프로그램 현황을 활용할 수 있음.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서는 시도별 1관당 문화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집계하고 있음

○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현재 시행 중인 통계조사에서는 공공도서관통계조사에서 시도별 1관당 이용자 교육현황(교육 횟수, 참가자 수, 교육시간)을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인문프로그램 운영 연간 소요예산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실행예산을 중심으로 집계함

○ 인문프로그램의 정보습득에 따른 참여정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정보습득 경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지역별로 조사함

○ 지역별 인문 범주 프로그램 참여율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연단위 평가자료에서 집계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프로그램 재참여율 문항을 추가하여 지역별로 조사하는 것도 가능함

○ 인문사업 참가자의 동호회활동 정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지역사회 내에서 동호회활동을 하는지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함. 현재 시행 중인 통계조사에서는 공공도서관통계조사에서 공공도서관 동아리 운영 수, 참가자 수 집계 자료를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인문사업 참가자의 자원봉사 참여율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지역 사회 내에서 동호회활동을 하는지 문항을 추가

하여 조사함. 현재 시행 중인 통계조사에서는 e-지방지표에서 집계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사회단체 참여율을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인문참여가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삶의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함. 현재 시행 중인 통계조사에서는 e-지방지표에서 집계하는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 삶의 만족도는 13세 이상 인구 중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감(행복도)에 대한 비율임

○ 인문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집계함

○ 인문사업 참여자의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 조사를 시행함

○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시설공간 만족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시설공간 만족도를 조사하여 집계함

○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기관 접근정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기관 접근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

○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편의시설 만족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편의시설 만족도를 조사하여 집계함

□ 지수도출방식

가. 가중치 산출 방법: AHP 분석

계층화 분석으로 불리는 AHP(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은 평가 기준이 다수이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법의 하나임. AHP 분석의 주요 특징은 우선,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를 주요 요소와 세부요소로 나누어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해 쌍대비교를 통해 요소별 가중치를 도출함. 둘째,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하여, 평가요소 간 중요 및 대안 간 선호도를 비율척도로 측정하여 정량화된 결과를 제공함. 다음으로, 가중치 도출 과정의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검증함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책지표 최종본으로 AHP 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최종적으로 인문정책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지수화를 추진할 시 본 연구의 지수 산출 내용을 기반으로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나. 가중치 산출 결과

인문정책을 구성하는 대분류 가운데 ‘인문성과’의 가중치가 0.35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참여’(0.34212), ‘인문자본’(0.30139)의 순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인문정책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인문성과’ 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음

지표별 가중치 값을 도출해내기 위해 중분류 가중치 값에 대분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 값을 도출하였고 인문성과의 참여만족도(0.4043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성과의 활동만족도(0.34720), 참여기회/참여율(0.30925) 순으로 나타났음

대분류 가중치 중 인문자본의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최종 가중치에서도 이에 속하는 지표들의 가중치가 다른 지표의 가중치 값보다 낮게 나타났음

다. 지수 산출

지수 산출을 위해 개별 지표를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 지표들의 척도와 범위가 다르므로 지표를 합산하기 위하여 지표별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 원자료를 표준화시킨 값(Z-score)에 최종 도출된 AHP 가중치를 곱하여 중분류별 지수를 산출하고 네 개 대분류 값을 모두 더해 지수를 산출함

라. 현재 지수의 한계와 최종 지수 산출 방안

현재 AHP 분석을 진행한 지표안과 최종 지표안과의 차이에서는 중분류 상에서 차이가 발생함. 중분류에서 AHP 분석 지표안에서 최종안으로 변경되면서 조직이 빠지고, 인문사업 운영, 홍보 및 정보화가 추가되어 중분류 상의 최종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최종적으로 지수화 작업을 위해서는 최종 지표안을 놓고 AHP 분석을 한번 더 진행한 후 현재의 가중치 안과 함께 비교하여 최종 가중치안을 확정하여 지수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임

마. 지수의 시각화

산출된 지역별 지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 시각화를 통하여 대화형 맵(Arts Vibrancy Map)과 같은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관련 시각화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정책 플랫폼인 인문360에 공개하여 지역별 비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각 지역별 인문 및 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구성할 필요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문화 및 지역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개발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여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인문정책지표와 지수화 방안을 도출하였음. 인문지수의 세부지표 선정은 국내외 문화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대상으로 초안이 작성되었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들을 통해 검토되고 정리되었음. 여러 지수들에서 활용되는 지표 구성원칙과 기준을 검토하고,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에 맞는 지표 구성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음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의 최종적인 지표의 선정과 지수산출방식 확정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함. 이러한 선행되는 점검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와 지수화방법이 도출되고 인문정책지표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갖추는 일련의 과정이 도입되어야 함

지역단위에서 인문정책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갖추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정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단일조사가 아닌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정기조사의 도입과 기관들의 협조체제 구축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제3절 연구 기대효과	11
1.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의 성장을 위한 판단근거 제공	11
2. 지역 간 인문 격차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 근거 제공	11
3. 사업 평가 및 현황 파악 어려움 해소	12
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근거 제공	13
제2장 인문정신문화정책의 개념과 환경	15
제1절 인문정신문화정책 추진배경과 사업 범주	17
1. 인문정신문화정책의 추진배경	17
2. 인문정신문화정책의 개념	26
3. 인문정신문화정책의 범주	28
제2절 정책지표 구성 사례	36
1. 개념과 범위의 명확화, 통계의 세분화	36
2. 표본의 대표성 확보	50
3. 평가 프레임워크의 활용과 공간의 중요성	54
4. 지표의 체계적 구성과 시각화	63
제3절 소 결	69
1. 성과관리와 근거기반 정책 추진 및 연구 기반 구축	69
2. 지역별, 세대별 현황 파악과 맞춤형 정책 형성	71

제3장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개발	75
제1절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 방향	77
1.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지표 검토	77
2.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 원칙	85
3.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 조사 개요	86
제2절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안	89
1.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 과정	89
2. 단계별 인문지표의 변화 정리	102
3.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분류체계	106
제3절 소 결	115
1. 정책지표 구성과정	115
2. 정책지표 분류체계	116
제4장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측정지표	119
제1절 측정지표 설명	121
1. 인문환경의 중분류별 측정지표	121
2. 인문기반의 중분류별 측정지표	123
3. 인문자원의 중분류별 측정지표	124
4. 인문참여의 중분류별 측정지표	125
5. 인문효과의 중분류별 측정지표	126
제2절 지표 측정방법	128
1. 측정지표 추출방법	128
2. 지표별 조사방식 및 출처	129
제3절 지수화 방안	135
1. 지수도출방식	135
2. 개발지수 활용 및 발전방안	138
제4절 소 결	142
제5장 결론 및 제언	145
제1절 결론	147
제2절 정책제언	149

참고문헌 / 151

ABSTRACT / 153

부록 전문가 의견조사 / 155

표 목차

〈표 2-1〉 사회적 관계망 변화	21
〈표 2-2〉 성별 및 연령별 1인 가구	23
〈표 2-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27
〈표 2-4〉 제1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29
〈표 2-5〉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30
〈표 2-6〉 선행 학문 분류 예시	31
〈표 2-7〉 도출된 인문 학문분류 및 예시	32
〈표 2-8〉 인문정신문화 진흥 주요 대표사업 현황 및 성과(2019~2020)	33
〈표 2-9〉 미국 인문학지표의 주요 분야별 구성	39
〈표 2-10〉 일반인 대상조사 설문 내용	43
〈표 2-11〉 미국 국가예술지수의 지표구성	48
〈표 2-12〉 영국 참여설문의 범주별 문항 구성	53
〈표 2-13〉 싱가포르 이웃 공간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57
〈표 2-14〉 싱가포르 Impact Assessment Framework 변수 구성	61
〈표 3-1〉 인문 지표개발 및 지수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조사항목	78
〈표 3-2〉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2018) 조사 항목	79
〈표 3-3〉 공공분야 인문프로그램 현황조사(2018) 조사 항목	81
〈표 3-4〉 인문 관련 인식 현황 조사내용	82
〈표 3-5〉 인문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실태 조사내용	83
〈표 3-6〉 인문 관련 프로그램 향후 참여 의향 조사내용	83
〈표 3-7〉 인문 관련 발전 방향 조사내용	84
〈표 3-8〉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86
〈표 3-9〉 델파이 조사 시행 지표안	88
〈표 3-10〉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초안	89
〈표 3-11〉 1차 수정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 조정안	92
〈표 3-12〉 1차 수정 지표 항목 조정안	94
〈표 3-13〉 2차 수정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 조정안	96

〈표 3-14〉 2차 수정 지표 항목 조정안	98
〈표 3-15〉 3차 수정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 조정안	99
〈표 3-16〉 3차 수정 지표 항목 조정안	101
〈표 3-17〉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대분류 및 중분류 수정내용	103
〈표 3-18〉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지표 수정내용	104
〈표 3-19〉 인문정신문화정책 정책지표 최종안	106
〈표 4-1〉 정책수립 측정지표	121
〈표 4-2〉 정책실행 측정지표	121
〈표 4-3〉 정책예산 측정지표	122
〈표 4-4〉 자원여건 측정지표	123
〈표 4-5〉 활동여건 측정지표	123
〈표 4-6〉 인력여건 측정지표	124
〈표 4-7〉 인문 사업운영의 측정지표	124
〈표 4-8〉 인문 학습지원의 측정지표	125
〈표 4-9〉 인문정보 접근성의 측정지표	125
〈표 4-10〉 인문 참여기회의 측정지표	125
〈표 4-11〉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의 측정지표	126
〈표 4-12〉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의 측정지표	126
〈표 4-13〉 인문 참여자의 참여만족도의 측정지표	127
〈표 4-14〉 인문 참여자의 지원만족도의 측정지표	127
〈표 4-15〉 인문 참여자의 여건만족도의 측정지표	127
〈표 4-16〉 정책수립 측정지표	129
〈표 4-17〉 분류별 가중치 값	136
〈표 4-18〉 최종 지수산출 방식	137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10
[그림 2-1] 코로나 이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필요성	19
[그림 2-2] 20~21년 우울점수 현황	20
[그림 2-3] 12개국 사회 양극화 인식 추이	22
[그림 2-4] 1인 가구와 평균 가구원 수 추이	24
[그림 2-5] 미국 예술활력지도(Arts Vibrancy Map)	45
[그림 2-6] EU의 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의 시각화 페이지	66
[그림 2-7] RIS 2021에 따른 지역분포	68
[그림 3-1]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	110
[그림 3-2]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움	112
[그림 3-3] 인문정책지표 중 인문참여에 대한 지표 설정 방향	114
[그림 4-1]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	122

인문지표 개발 및 지수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인문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따른 인문진흥정책 발전 토대 정립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제1차 및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되었다.

우선, 2016년 2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인문학법)이 제정되고 8월 시행되었다. 인문학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문진흥정책이 국내 및 국외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 1월 제1차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2017~2021)이 처음 발표되었으며, 2021년 12월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2022~2026)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인문정신문화정책의 향후 5년간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 활동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나. 인문사업 확대 및 인문관련 다양한 사업예산의 증가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증대, 각 공공기관의 인문사업 확대 등에 따라 사업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에 따라 인문교육, 연구지원, 전문인력 양성, 인문정신문화향유 환경 조성 및 활동 지원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길 위의 인문학사업’, ‘지혜학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인생나눔교실’, ‘삼삼오오 청년인문실험’,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인문사업을 통한 인문가치 확산 실태 및 인문정신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정책발전의 토대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다. 기존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점검과 인문정책의 지속성 확보 방안 필요

인문정신문화정책이 정책적 관심도에 따라 변화되어 왔기에, 기존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점검이 필요하며 인문정신문화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2018년 인문정신문화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첫 번째 대국민 대상 인문실태조사 지표가 적용되어 결과가 9월 발표되었다.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인문연구를 다년간 수행하면서 인문진흥정책의 연구 역량을 축적하였다. 선행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현재 정책사업에 대한 인문정신문화 관련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인문지표개발 및 지수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라. 객관적 정책 사업 효과 측정과 지역 간 편차의 확인 필요

인문정신문화정책 사업들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사업 형태와 수혜계층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형태와 융·복합 형태의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개발과 신규 수혜계층 대상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도 기존 사업들과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추진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도시지역과 주류 문화소비 계층 이외에 농어촌 지역과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 사업 추진의 조건과 효과의 편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개발과 지수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가. 인문정책의 활용 및 기여도 정도 파악을 위해 인문정책의 지수 개념화 모색

인문 환경을 분석하고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국민 활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개발과 지수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영역(인력, 제도, 예산, 프로그램 등)의 제반

요인들을 광역 시도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지수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수행된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 진흥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데 기여하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체계 설정과 정책지표를 기반으로 한 지수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문정신문화 정책 현황과 지역 간 편차를 파악하여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확보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추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인문정신문화정책의 기여도를 객관화시키고,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정책 인식 수준과 현황을 비교토록 함으로써 현재 인문정신문화정책의 위치와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 인문정책의 효과성 증진 위한 실증적인 성과분석 기반 마련

기존 인문정신문화정책 사업에 대한 비판적이고 발전적인 검토 위에서 인문정신문화정책의 현상분석 및 인문정신문화정책 평가를 위한 기준점으로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인문정신문화정책은 실증적 객관적 지표로서 그 성과를 손쉽게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나, 인문정신문화정책사업의 진단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문정신문화정책 관련 기초통계, 세부 실태조사 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영역의 제반 사항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재까지 수행된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인문정신문화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문정책의 체계적인 기반 수립을 위한 지수화 방안제안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 지표를 기반으로 지수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지표를 기반으로 인문정신문화 정책 실행 현황에 대한 지수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수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수화를 통하여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정책 실행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보완 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지수화 방법론을 검토하고, 지수화 효과와 발전방안을 정리하여 향후 인문정신문화 정책

지표와 이에 기반한 지수화 사업의 추진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정책을 기반으로 만든 지수화 방안이 전체 인문관련 정책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시간적 범위

인문학법(2016년) 시행 이후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조성 및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법 제정 이후를 주요한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특히 제1차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2017) 및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발표(2021)와 관련된 인문정책 및 정책 활동 등을 연구 범위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와 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정책 운영사업과 활용현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 범위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지표 현황을 살펴보고 참고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인문정신문화정책 지표개발 및 지수화 방안의 필요성과 논리, 주요 참고 국내외 지표 사례 검토, 지표 선정 및 구성, 지수화 방안 검토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배경과 범주: 최근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등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의 환경과 내용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추진배경과 개념, 정책사업의 범주를 정리한다.

둘째, 정책지표 구성 사례 검토: 국내외 관련 정책지표 사례를 검토하여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개발과 지수화 방안에 대한 방향성 검토에 참고하고자 한다.

셋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개발 및 지수 측정방안 도출: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의 세부적인 구성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수 측정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고, 델파이 조사(Delphi)와 AHP 분석 등 통계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지수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정책 지표 및 지수 활용방안 정리: 개발된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와 지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책효과와 활용방안 등을 정리하여 인문정신문화 정책 지표와 지수의 활용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각 부문별 연구내용에 따라 적정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가.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보고서, 기관별 인문사업 정책자료, 포럼 자료집, 세미나 및 회의 자료집,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 및 검토한다. 주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통계자료 및 관련 선행 연구보고서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변화 필요성, 프로그램 구성 등과 연관된 사회적 변화 동향 등을 반영한다.

나. 설문조사

인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 담당자 및 관계자 중 응답자 수 100인 규모로 설문을 진행했다.

DHP(Delphi Hierarchy Process)분석: ▲1단계(개방형델파이조사)에서 전문가 집

단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인문 정책지표와 지표 구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예비항목을 분류, ▲2단계(폐쇄형델파이조사)에서 델파이설문을 수행하여 구체적인 인문지표 선정 및 도출, ▲3단계(AHP분석)에서 AHP구조도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인문지수 구성방안 도출했다.

원내 연구진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조사 설문을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길 위의 인문학」 등 주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취합했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의 적절성 등 인식도 조사 문항을 포함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했다.

다. 자문회의 및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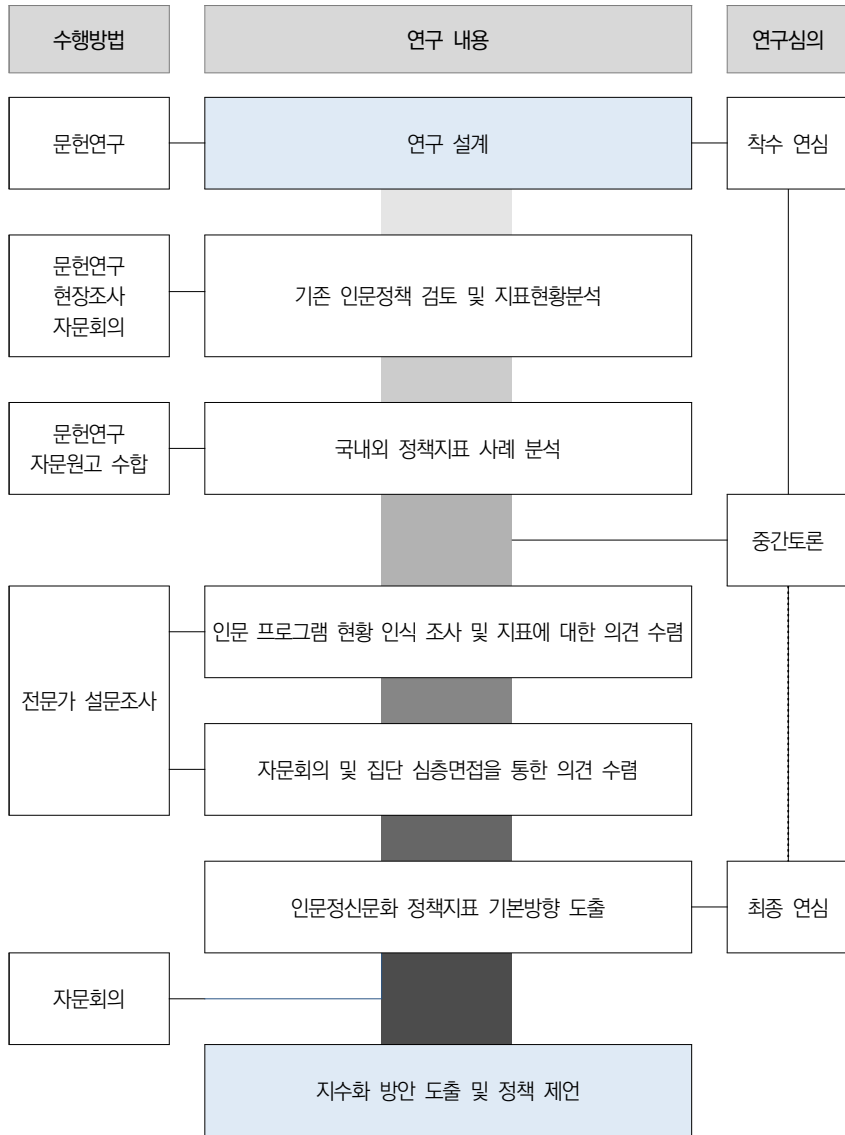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지수화 방안, 인문 정책지표 구성 원칙 정립 등을 위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추진했다.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인문프로그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표 구성 및 지표 체계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라 국내외 사례조사

미국, 영국 등 해외 정책지표와 국내 정책지표 중 참고할 만한 사례를 검토하여 인문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설정에 활용했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제3절 연구 기대효과

1.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의 성장을 위한 판단근거 제공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들은 그동안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질적 성장을 위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시행 이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들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들의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여러 심화 과정들이 개발·보급되었다. 2020년까지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92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심화과정도 2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운영기관도 10개로 증가하였다. 독서동아리도 100개에서 250개로 늘어났다.

대부분의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 수립 기간에는 질적인 개선과 체계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에 주요과제로 인문진흥체계 재정립을 위하여 인문전담 기관 설립 및 지역인문 진흥체계 강화 등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 판단을 위한 근거로서 정책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지역 간 인문 격차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 근거 제공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들의 지역 간, 시설 간 편차가 심하여 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대부분 도서관 및 박물관에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길 위의 인문학 운용시설은 도서관과 박물관이 90.6%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문화기반시설에서는 9.4%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 간 인문 향유의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 '19년 대비 '20년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가

12.7%→17%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 간 인문격차 해소를 위하여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에서 인문격차 해소 및 지역 인문자원 발굴 확대가 중요 과제로 선정되었다. 지역 문제 해결형 인문프로그램 지원과 지역 유희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에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이 적극 장려되고, 인문자산 활용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문화시설 기획 프로그램, 대상 맞춤형 문화향유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¹⁾ 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 간 편차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지역별 맞춤 정책 사업 구상과 지원이 가능하다.

3. 사업 평가 및 현황 파악 어려움 해소

각 인문정신문화정책 사업들은 동일한 틀의 사업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지자체별 사업 현황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서관·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등 주요 브랜드 사업들은 자체 성과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역별 인문프로그램들의 현황 파악과 성과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인문프로그램의 지역별 현황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인문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문정신문화 사업 예산현황이 모두 회수가 된 광역시도는 7개(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로 집계되었다. 부분적으로 회수가 된 시도는 3개(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이고, 예산현황이 회수되지 않은 시도는 7개(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 모두 회수가 된 시도 교육청은 7개(서울특별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며, 부분적으로 회수가 된 시도 교육청은 4개(인천광역시교육청, 강

1) 문화체육관광부. 2021.12.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p.16.

원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다.

지역별로 쉽게 예산 및 집행현황을 집계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인문정신문화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문정신문화 확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 더불어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근거 제공

인문정신문화정책 사업 내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을 위해 현재 프로그램 형태와 현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인문정신문화 주요 사업들은 주로 인문강좌 및 독서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초고령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²⁾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중 일반국민 인식조사에서 ‘정부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인문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 및 보완점’에 대한 질의에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주제’가 3.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시민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주제 개발, 이슈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진행 강사진 전문성 확보’(3.98점), ‘프로그램 제공 공간 접근성’(3.88점)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2) 문화체육관광부. 2021.12.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p.4.

인문지표 개발 및 지수화 방안 연구

제2장

인문정신문화정책의 개념과 환경

제1절 인문정신문화정책 추진배경과 사업 범주

1. 인문정신문화정책의 추진배경

가. 인문학의 위기와 사회적 수요

1) 인문학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차단되거나 혹은 줄어들어, 인문학의 위상이 다른 학문의 위상에 비해 위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³⁾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경쟁이 촉발되는 사회로 변화되었다. 이에 직업 획득에 유리한 경영·경제 등 사회과학계열 및 이공계열 전공 학과들이 입시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세태가 확산되며 인문학 위기 담론이 사회 전반에 팽배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논리에 기반하여 사회의 주요 가치가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등의 경제관점에 따라 평가되고,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다루는 인문학 분야의 학문들은 사람들의 경제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한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조정과 대학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문학 전공 학과들이 통폐합되고, 인문계 정원을 감축하여 취업률이 높은 전공으로 재배정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명문대학에서 인문학 전공학과들이 유지된다고 해도 공부를 마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대학에서 사라지게 되어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인문학 발전과 인문학

3) 박재술. 2007. 「인문학강좌 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p.11.

의 사회적 기여에 큰 어려움을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2) 인문학의 사회적 수요

인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올바른 삶의 의미, 인간의식과 감정, 욕망 등에 대한 탐구, 인간의 역사와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 등을 하는 학문분야로서 인문학적 소양이 깊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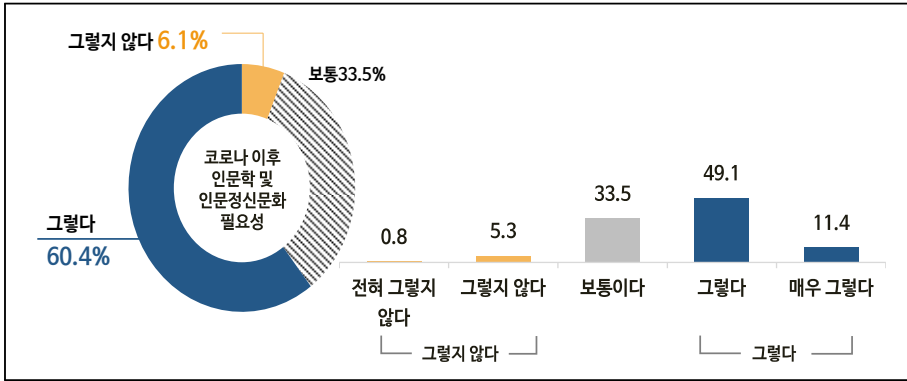
사람들은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 고전들을 읽으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들이 무엇이고, 과거의 사람들은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탐구는 현 시대에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삶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사고력, 창의력, 논증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탐구의 장을 제공한다.

인문학적 지식과 사고체계는 빠른 기술 발달 속에서 삶의 현상적 모습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짚어 볼 수 있고, 현대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여전히 효과를 가지고 있다. 고전문학 작품 속에서 인간에 고통을 주는 감정과 사람들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왜 당장 눈앞의 개인의 이익과는 다소 멀리 떨어져 보이는 정부의 정책과 정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는지를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인문정신문화정책 수요에 대한 인식을 일정 정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 60.5%, 코로나19 이후 사회심리적 변화로 인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 상황 혹은 코로나 이후 사회심리적 변화로 인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필요성 증가’에 대한 문항에 60.5%가 ‘그렇다’(그렇다: 49.1% + 매우 그렇다: 11.4%)에 응답해 코로나19 이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심리 방역 차원에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⁴⁾

[그림 2-1] 코로나 이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필요성

[전체 응답자(n=5,000), 단위: %]



나. 사회 환경 변화

최근의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관련한 사회적 환경변화 요인을 정리해 본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의 증가,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어려움,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1인가구의 증가, 가구원 수 감소,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어려움, 디지털기술의 활용 필요성 증가 등이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반영되어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1) 코로나19의 영향

① 우울위험 증가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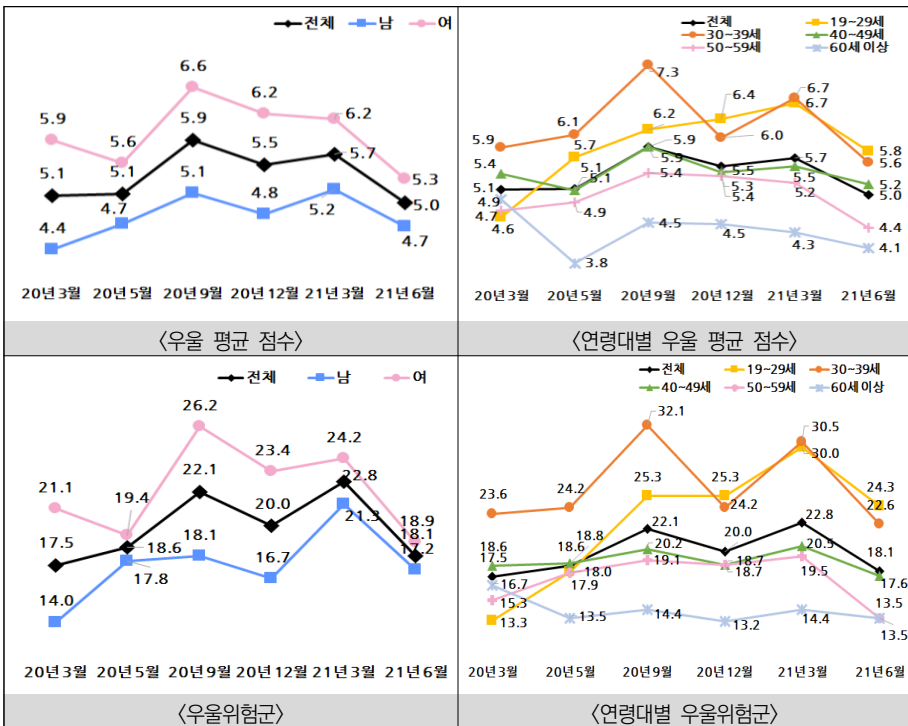
사람들은 2019년 말 처음 인체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겪게 되었다. 방역을 위한 사람 간의 접촉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울감, 자살생각 등 우울위험군이 증가하였다.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위험군이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는 3.8% 수준이었는데 2021년 3월 22.8%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우울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 평균점수(20대 5.8점, 30대 5.6점)의 경우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5.9점)부

4)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2020년 3월 4.6점)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우울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순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 실태조사 결과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우울감이나 자살생각 비율이 여전히 높고, 계층별로 증가된 위험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림 2-2] 20~21년 우울점수 현황⁶⁾



②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외 친인척, 이웃, 절친한

5)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발표.” 보도자료
 6)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발표.” 보도자료

친구의 경우 과반수가 코로나19로 관계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경우도 35% 이상이었다. 취미활동단체 회원, 종교단체 구성원, 그 밖의 알고 있는 사람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계가 멀어졌다는 응답이 변화가 없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표 2-1〉 사회적 관계망 변화⁷⁾

(단위: %)

	계	소계	관계망 변화			해당 없다
			관계가 가까워졌다	변화 없다	관계가 멀어졌다	
가족	100.0	99.5	12.9	74.0	12.6	0.5
가족 외 친인척	100.0	98.3	2.0	59.6	36.7	1.7
이웃	100.0	93.1	0.8	53.4	38.9	6.9
절친한 친구	100.0	97.2	2.2	59.6	35.5	2.8
동료	100.0	73.7	1.5	49.3	22.9	26.3
취미활동 단체 회원	100.0	57.7	0.7	25.2	31.8	42.3
종교단체 구성원	100.0	44.4	0.5	21.9	22.0	55.6
그 밖의 알고 지내는 사람	100.0	75.8	0.7	36.7	38.4	24.2

③ 사회적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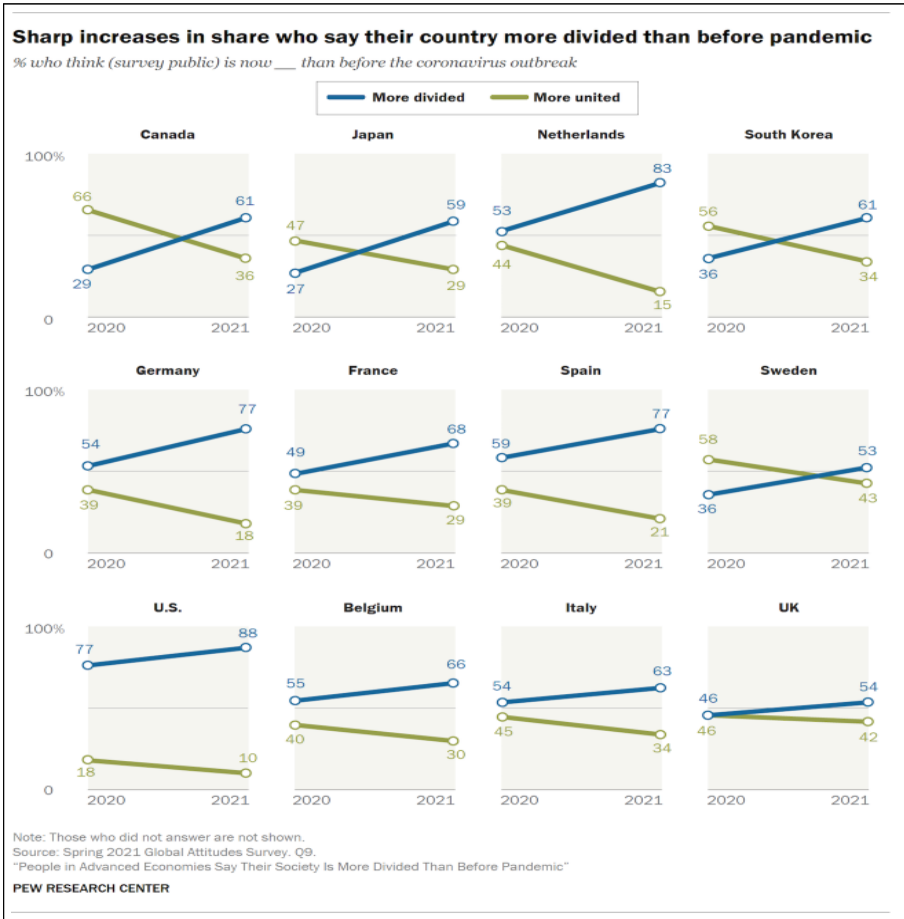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팬데믹 이전보다 더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21년 13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2020년과 2021년 조사를 시행한 13개국 중 12개국에서 2020년 팬데믹 이전보다 2021년에 사회 내의 단절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통합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⁸⁾ 네덜란드는 2020년 53%였던 분열되어 있다는 인식이 2021년 83%까지 증가하였다. 캐나다는 2020년 29%였다가 2021년 61%로 32%p가 급증하였다. 일본 또한 2020년 27%였던 분열 인식이 2021년 59%로 32%p 증가하였다. 한국 역시 2020년 36%에서 2021년 61%로 사회분열과 양극화가

7) 통계청. 2021.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보도자료

8) Kat Devlin, Moira Fagan and Aidan Connaughton. 2021. “People in Advanced Economies Say Their Society Is More Divided Than Before Pandemic.” Pew Research Center.(출처 :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06/23/people-in-advanced-economies-say-their-society-is-more-divided-than-before-pandemic/>)

더 심화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자영업의 붕괴,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도 분명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림 2-3] 12개국 사회 양극화 인식 추이⁹⁾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증가와 자살생각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우울감 증가와 지속 상황이 완전히 안정적인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 관계망에서 코로나로 인한 관계의 단절 비중이

9) Kat Devlin, Moira Fagan and Aidan Connaughton. 2021. "People in Advanced Economies Say Their Society Is More Divided Than Before Pandemic." Pew Research Center.

30% 내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우울감 감소와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 변화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과 관련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는 상황이다.

2) 인구구조의 변화

① 1인 가구 증가와 평균 가구원 수 지속감소

1인 가구의 증가는 2010년대부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2010년부터 등장한 1인 가구는 자발적으로 1인 가구의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인식되었다. 1인 가구 비중은 201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처음 30%를 돌파하였고, 2020년 조사 결과 31.7%를 기록하여 더욱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8년에는 0.7%p, 2019년에는 0.9%p, 2020년에는 1.5%p로 매년 심화되고 있다.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20대(19.1%), 70세 이상(18.1%), 30대(16.8%)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40대와 50대도 적은 비중은 아니다. 40대는 2019년에 14.2%, 2020년에 13.6%를 차지했으며, 50대는 2019년에 16.5%, 2020년에 15.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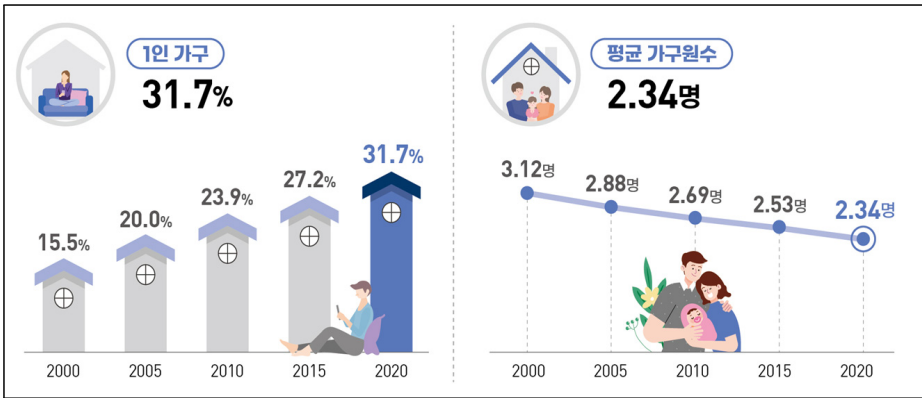
〈표 2-2〉 성별 및 연령별 1인 가구¹⁰⁾

(단위: 천 가구, %)

연령	2019년			2020년		
	1인 가구			1인 가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계	6,148 (100.0)	3,054 (100.0)	3,094 (100.0)	6,643 (100.0)	3,304 (100.0)	3,339 (100.0)
20세 미만	59 (1.0)	29 (0.9)	31 (1.0)	76 (1.1)	36 (1.1)	40 (1.2)
20~29세	1,118 (18.2)	587 (19.2)	531 (17.2)	1,267 (19.1)	650 (19.7)	617 (18.5)
30~39세	1,036 (16.8)	664 (21.7)	372 (12.0)	1,116 (16.8)	715 (21.6)	401 (12.0)
40~49세	872 (14.2)	550 (18.0)	322 (10.4)	904 (13.6)	572 (17.3)	332 (9.9)
50~59세	999 (16.3)	562 (18.4)	437 (14.1)	1,039 (15.6)	595 (18.0)	445 (13.3)
60~69세	933 (15.2)	398 (13.0)	534 (17.3)	1,039 (15.6)	451 (13.6)	588 (17.6)
70세 이상	1,132 (18.4)	264 (8.7)	867 (28.0)	1,202 (18.1)	286 (8.7)	917 (27.5)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기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도 꾸준히 하락하였다. 2000년에 3.12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2020년 현재 2.3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1인 가구와 평균 가구원 수 추이¹¹⁾



1인 가구 증가와 평균 가구원 수 감소는 가족임에도 자발적으로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 단위로 설정되어 실행되어 오던 복지, 주택 등 여러 정책들의 단위를 개인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② 인구고령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인구고령화이다. 고령화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율을 측정한다. 고령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노년부양비 증가,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복지분야의 지출 증가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586만 6,000가구로 일반가구의 28.0%이며, 2019년 559만 8,000가구보다 26만 8,000가구(4.8%)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296만 5,000가구로 일반가구의 14.2%이며, 2019년 272만 가구보다 24만 5,000가구(9.0%) 증가하였다.

10)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발표.” 보도자료. p.45.

11) 통계청. 202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도자료.

3)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영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¹²⁾으로 불리며, 급속하게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발전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초자동화’,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의 변화를 실현시키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시스템, 조직 등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언택트 기술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 발전되어온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들이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추진하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AR, VR 등 첨단 디지털 기술들이 도입되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지원 및 관리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으며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활용한 의약품 구호물자 수송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재택근무제 확산은 디지털 기술의 밑받침이 없었다면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온라인 쇼핑 또한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필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통로였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배송시스템도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기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디지털 기술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 등에서 계층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¹³⁾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보 서비스별 이용량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서비스에서 취약계층의 이용량 증가는 일반 국민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취약계층은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의 이용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생활 서비스’, ‘디지털(비대면) 소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 생산·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의 이용량은 큰 변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 관련 인터넷/모바

12) 4차 산업혁명은 로봇(Rob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기술융합에 의한 사이버-실물세계(Cyber-Physical) 연계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기술혁명이다.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 2020.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박영사, p. 17

13) 윤정섭·손은정.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 「Future Horizon+」 2021년 제3호 (Vol.5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 서비스 경험과 인지율 모두에서 고령층이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 인문정신문화정책의 개념

가. 학술적 이해

인문정신문화는 ‘인문’, ‘정신’, ‘문화’를 결합한 용어이며, 가치 지향을 담은 ‘인문정신’과 ‘정신문화’가 결합한 용어로서 행복, 소통, 인간다움, 조화, 비판정신, 자유, 배려, 관용, 교양, 인간의 존엄 등 다양한 이념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문정신은 인문과 정신의 결합 개념으로 주로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지향과 관련된 개념이며, 정신문화는 물질문화와 구분되어 ‘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이룬 문화, 학술, 사상, 종교, 예술, 도덕 등의 의식활동으로 정의된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 및 인문적 전통에서 산출된 인문콘텐츠 등의 문화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문정신문화는 인간의 존엄, 가치 존중, 행복 등의 이념적 가치를 담은 용어로 개념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활동이 시도되고 있다.¹⁴⁾

인문정신문화는 ‘인문’ 개념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인간의 사색적 활동과 그로 인해 출현하는 문화적 결과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넓은 차원에서 ‘인문학’과 같은 제도화된 인문적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색적 활동과 그로 인해 출현하는 문화적 결과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¹⁵⁾

따라서 인문정신문화는 인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문화, 학술, 사상, 종교, 예술, 도덕 등의 다양한 가치와 이 가치들의 융·복합된 파생 가치들과 연관된 의식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문정신문화라는 개념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정의된 용어로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14) 김면. 「2018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p.23.

15) 문화체육관광부(2016), 「인문정신문화 중장기 정책 및 사업 계획」, p.6

나. 법률적 이해

2016년 2월 제정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인문학법)은 인문학 진흥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에서 급증하는 인문활동에 대응하여 시민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 진흥 및 국가 인문역량 확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인문학 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민 행복도 저하,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에 대응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중심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법의 목적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인문학법 제3조에서는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를 정의하였다. 인문정신문화는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2-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4.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7.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지원·관리
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그리고 제9조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곧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인문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이 곧 인문정신문화 정책이며,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임을 의미한다.

3. 인문정신문화정책의 범주

가. 정책 기본계획

① 제1차 기본계획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016년 12월 29일 제1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 통해 「제1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인문학 진흥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공통비전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인문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교육부는 <제1차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①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 ② 인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의 다양화·심층화 지원, ③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인문학 대중화, ④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 구축 등을

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①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②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③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로 정하였다.

<표 2-4> 제1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 향상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 인문 진흥 및 사회적 확산 	
분야	인문학 진흥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략 및 중점 과제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①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인문소양교육 체계화 ■ 모든 대학생 대상 인문교양교육 강화 ■ 평생교육기관 및 소외계층 인문교육 확대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② 인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다양화 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후속세대 교육·연구 안정적 지원 ■ 인문학자 연구 지원 내실화 ■ 인문학 교육·연구 거점으로서 HK연구소 육성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③ 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인문학 대중화 기반 마련 ■ 인문학 성과의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e4c4;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①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본질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공 ■ 인문활동의 자생력 신장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e4c4;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②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인문적 활용 촉진 ■ 문화기반시설의 매개역량 강화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e4c4;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③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화두에 적극 대처 ■ 인문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 ■ 장기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반 정비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d3d3d3;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⑦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협업 강화 및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전담 조직 운영 ■ 안정적인 인문 진흥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 확보 </div>	

② 제2차 기본계획

2021년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심의회를 개최하고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교육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비전으로 ‘국가와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인문학 진흥’으로 정하였고, 목표는 ‘본질가치를 생산하는 인문학의 발전’,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인문학의 도전’으로 하였다. 추진전략은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인문학의 본질 실현을

위한 교육·연구지원’, 둘째, ‘인문학의 새로운 도전: 융합, 국제화, 디지털’, 셋째, ‘인문학 가치의 공유와 확산’이다. 세 가지 추진 전략에 따라, 대학의 인문학 교육·연구역량 확보, 우수 인문학 연구자 양성 및 연구지원, 대학 외 생애주기별 인문교육 내실화,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 도전, K-인문학으로의 발전 및 확산, 디지털 인문학 2.0: 축적에서 확산으로, 대중·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 인문학 진흥 추진체계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을 제2차 기본계획상의 중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표 2-5〉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분야	인문학 진흥	인문정신문화 진흥
비전	국가와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인문학 진흥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있는 공동체’ 실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질가치를 생산하는 인문학의 발전 ◆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인문학의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체감형·참여형·사회공헌형 사업 확대 ◆ [인문공간] 도서관·박물관 편중 → 문화기반시설 전반 ◆ [전문인력] 연구자, 활동적 고령자층 등을 적극 활용
전략 및 중점 과제	① 인문학의 본질 실현을 위한 교육·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인문학 교육·연구역량 확보 ■ 우수 인문학 연구자 양성 및 연구지원 ■ 대학 외 생애주기별 인문교육 내실화 	① 인문가치 발견 및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확대 ■ 인문의 시각으로 ‘코로나19’ 기록·보존 및 활용 ■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지원강화
	② 인문학의 새로운 도전: 융합, 국제화,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 도전 ■ K-인문학으로의 발전 및 확산 ■ 디지털 인문학 2.0: 축적에서 확산으로 	② 인문 가치 구현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 ■ 인문 격차 해소 및 지역 인문 자원 발굴 확대 ■ 인문 자원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
	③ 인문학 가치의 공유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 ■ 인문학 진흥 추진체계 구축 ■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③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진흥체계 재정립 및 전문역량 활용 강화 ■ 디지털 인문정신문화 플랫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을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있는 공동체’ 실현’으로 정하였다. 목표는 첫째, ‘[프로그램] 체감형·참여형·사회공헌형 사업 확대’, 둘째, ‘[인문공간] 도서관·박물관 편중 → 문화기반시설 전반’, 셋째, ‘[전문인력] 연구자, 활동적 고령자층 등을 적극 활용’으로 하였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세 가지로 하였다. 첫째, 인문가치 발견 및 공유, 둘째, 인문가치 구현 및 확산, 셋째,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강화이다. 이 추진전

략에 따라 중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기본계획상의 중요 추진 과제로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확대, 인문의 시각으로 '코로나19' 기록·보존 및 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지원강화,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 인문 격차 해소 및 지역 인문 자원 발굴 확대, 인문 자원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 인문 진흥체계 재정립 및 전문역량 활용 강화, 디지털 인문정신문화 플랫폼 구축 등을 선정하였다.

나. 인문정신문화 정책 범주

① 학문적 범주

먼저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범주를 분류하기 위해 기존 학문분류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행 학문분류들을 검토한 결과 한국연구재단 학문 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길 위의 인문학 보고서, 인문학 강좌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순수 인문학으로 통용되는 문학, 역사, 철학을 공통적으로 인문학의 범주로 두었으며, 문화·예술 분야를 인문학으로 포함한 분류 또한 일부 존재하였다.

〈표 2-6〉 선행 학문 분류 예시

선행 학문분류	내용
한국심신분류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한국연구재단 학문 분류	인문학(역사학, 철학, 종교학, 언어학, 문학, 기타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등
한국표준교육분류(통계청)	예술 및 인문학(예술, 인문학, 어문학), 교육, 사회과학·언론·정보학, 경영·행정·법, 자연과학, 정보통신, 일반 프로그램 및 자격 등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간(역사/고고학, 철학/종교, 언어, 문학, 문화/예술/체육), 사회, 자연, 생명, 인공물, 인간과학과 기술, 임시(인력 및 인프라)
인문학 강좌 실태조사 보고서 내 분류표 (한국학술진흥재단)	문학(문예창작 이론과 실습, 문학의 이해와 체험, 인문학적 글쓰기), 역사(역사일반, 동양사, 서양사, 문화사), 철학(철학일반, 동양철학, 서양철학, 미학/예술철학)
길 위의 인문학 보고서 내 강의 주제 분류 (문화체육관광부)	문학, 역사, 철학, 문화예술, 사회과학, 자연/환경, 과학/미래, 융합, 진로체험/글쓰기, 기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사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문 지표개발 및 지수측정을 위한 기초연구〉(2017)에서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범주로 생각하는 분야가 인공물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 대한 응답은 인간 16.6%(문학, 역사

/고고학, 철학/종교, 언어, 문화 등), 사회 17.5%(법, 정치/행정, 심리, 교육, 경제/경영 등), 인간과학과 기술 18.1%(뇌과학, 인지/감성과학,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자연 3.7%(수학, 물리학, 화학 등), 생명 11.5%(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인공물 32.6%(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원자력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인문 세부 학문분야는 정통 분류인 ‘문학, 역사, 철학(종교), 문화·예술’로 설정하고, 그 외 ‘인문기반 학제 간 영역’과 ‘융복합’ 분야로 구분되어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표 2-7〉 도출된 인문 학문분류 및 예시

분 야		세부 분류 및 정의	
①	문학	문학일반, 동양·서양문학, 문예이론, 문학이해, 인문학적 글쓰기 등	
②	역사	역사일반,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민속, 미술사, 문화사, 전통문화, 지역사, 예술사 등	
③	철학 (종교)	철학일반, 동·서양철학, 미학/예술학, 종교일반, 한국·동양·서양종교, 윤리, 신화 등	
④	문화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콘텐츠, 문화재, 문화이해교육 등	
⑤-1	인문 기반 학제 간 영역	사회 과학 계열	인문학과 연계하여 시민의 의식수준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전반(시민정치·경영·경제·외교·법 등)을 다루는 영역 예) 문화외교, 시민인문학, 정치인문학, 법의 인문정신, 역사경영, 인문경영, 정치학과 경제학의 만남, 문화심리학, 세계시민의식 함양, 다문화 이해 등
⑤-2		자연 과학 및 공학 계열	인문학과 연계하여 현대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자 생활과학, 자연과학, 천문·지리·생명과학·공학 분야를 다루는 영역 예)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심리과학, 뇌과학, 인간과 생태환경, 인문예술미디어, 디지털인문학, 미디어리터러시 등
⑥	융복합	특정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간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가치 및 인문자원을 다루는 영역	예) 인문학과 삶 등 일반 인문교양, 도시인문학, 생활인문학, 생태·환경관련, 힐링캠프, 행복프레임, 전인교육, 인성교육, 창의력교육 등
※	제외 분야	어학습득교육(외국어회화, 토익강의 등), 직업교육(요리교실, 캘리그라피, 쿼트 등), 직무습득(세법, 컴퓨터관련 등), 학력보완과정(문해교육 등), 자격관련습득(바리스타, 사회복지사, 각종 강사반 등), 음악교실(합창, 노래교실, 악기류: 기타·우쿨렐레·하모니카·바이올린·피아노 등), 단순실기교육(꽃꽂이, 캐리커처그리기, 공예, 무용, 바둑교실, 서양화, 서예, 주산·암산 등), 사주·관상, 영화감상, 비학술적 체험교육(행사에서의 단순체험 등)	

과거에 비해 오늘날 인문 학문분야가 확장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정책 및 사회변화에 따라 분류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옳다고 논의되었다. 실제로 문(文), 사(史), 철(哲) 기반의 사회과학 계열과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간 융합이 이루어져 시민인문학,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대중인문학, 디지털인문학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에 인문교양분야 등 특정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는 융·복합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분류에서도 인문계열에는 언어, 문학, 민속, 철학, 윤리, 역사, 문헌정보 등의 학과로 분류가 되었다(학과(전공)분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따라서 인문 세부 학문분야는 문학, 역사, 철학(종교),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되, 사회과학 계열과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은 인문기반 학제 간 영역으로, 그 밖에 융·복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인문영역 내에서 무분별하게 분류되지 않도록 단순 어학습득 교육이나 직업교육, 음악교실, 단순실기교육, 비학술적 체험교육 등을 제외분야로 설정하였다. 인문교양과 자연과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시대 속, 정통 인문 학문 분야가 가장 많이 향유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아래 <표 2-8>과 같이 분류하였다.

② 정책사업 범주

인문정신문화정책 범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의 범주를 살펴본다. 이 사업들을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으로 정의하고 본 보고서를 작성한다.

인문정신문화정책사업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인생나눔교실,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각 사업들은 여러 유형의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8> 인문정신문화 진흥 주요 대표사업 현황 및 성과(2019~2020)

구분	프로그램		실적	
			2019년 실적	2020년 실적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기본 프로 그램	자유기획 (기본형, 보급형)	300개관 총 3,147회 88,530명	329개관 총 4,028회 103,431명 참여
		자유학년 (기)제	20개관 263회 7,055명	
		심화과정 (함께쓰기, 함께읽기)	80개관 1,689회 33,634명	
		도서관	9개관 108회 2,235명	

구분	프로그램	실적	
		2019년 실적	2020년 실적
	지혜학교		
	계	409개관 5,207회 131,454명 참여	
	특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 22개사, 22회 2,006명 • 청년 인문학 5개 단지, 19회 264명 • 도서관 찾아가는 다원인문콘서트 5개관, 5회 725명 • 도서관 지혜학교 시범사업 9개관, 108회 2,235명 • 인문공감 3회 53,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동네 인문 자료 개발 36건/관 • 인문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100건 • 팬데믹 시대의 인문학 언론 특별공동기획 연재 총15회 •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 사업 19개 강연, 875명 신청
	계	41개관 157회 58,230명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일반/기획(관 내)	4,153회, 125,407명	1,926회, 54,349명
	찾아가는 박물관	454회, 15,360명	3,025회, 85,068명
	자유학기제	994회, 33,133명	517회, 18,033명
	계	5,601회 173,900명 참여	5,468회 157,450명 참여
생활 문화 시설 길 위의 인문학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전공자 협업 인문프로그램 지원 : 46개 시설 113명의 인문활동가 지원 • 프로그램 총 3,265회, 26,793여명 참여 • 시설별 현장컨설팅: 생활문화시설 및 인문협업자, 컨설턴트 등 총 97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개의 시설, 110개 인문프로그램, 125명 인문협업자 지원 • 프로그램 총 3,698회, 19,905여명 참여 • 시설별 현장컨설팅: 생활문화시설 담당자 및 인문협업자, 컨설턴트 등 120명 참여
	청년 인문상상 프로젝트	• 20개 단체 지원	• 19개 청년 인문·문화단체 지원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 100개 팀 총 354명 활동 수행	• 99개 팀 총 381명 활동 수행 * 비대면 워크숍, 홍보콘텐츠 제작 진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전담기관 정례회의 개최(4회) • 2019년 인문진흥실무자협의회 개최(2회) • 2019년 생활이문포럼 개최(2회) • 인문공감 2019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생활이문 릴레이 포럼 개최(3회) • 인문전담기관 정례회의 개최(4회)
인생 나눔 교실 운영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 195명 멘토, 243개 그룹, 총 2,953회 멘토링 진행	• 187명 멘토, 265개 그룹, 총 3,123회 멘토링 진행
	삼삼오오 인생나눔 활동	• 25개 기관, 205개 그룹 활동	• 20개 기관, 145개 그룹 활동

구분	프로그램	실적	
		2019년 실적	2020년 실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삼모작 인생나눔학교 : 23회, 132명 참여 함께하는 인생식탁: 685명 참여 튜터 네트워크 워크숍 인생나눔교실 교육운영체계 연구 인생나눔축제 평가회의 사업점검 및 사업개선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튜터 온라인 교육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191개 처) 튜터 오리엔테이션(1차 33명, 2차 15명) 인문 학습 소모임 사전 온라인 워크숍 인문 학습 소모임 운영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워크숍
인문정 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인문 360°)	인문 360° 웹사이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뉴개편(상위 8개→5개, 하위 22개→17개)으로 웹사이트 이용자 편의성 증대 2019년 인문360 웹사이트 방문자 수 : 229,457명 2019년 인문360 웹사이트 페이지뷰 : 576,16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적 게시물 수(2020.3월~2021.2월) : 593건 2020년 인문360 누적 방문자 수 (2020.3월~2021.2월) : 150,423명 2020년 인문360 웹사이트 페이지뷰 실적(2020.3월~2021.2월) : 334,433회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운영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달의 주제 선정 (정체성, 역사, 대화와 치유, 디아스포라, 공감, 기획과 디자인, 주거공간, 우주, 설화 스토리텔링, 소비 등 주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웹사이트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달 인기 인문360 콘텐츠를 모아 뉴스레터 발송(평균 1,755건) - 2019년 인문360 웹사이트 게시물 수 : 789건 시민 기자단 「인문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쟁이 5기 186건 발행 - 인문360 지역인문)탐구생활 콘텐츠 195건 발행 골목 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360 줄길인문)골목콘서트 콘텐츠 38건 발행 - 오리엔테이션, 현장 스케치 등 영상 39건 제작 - 소규모 지역 인문 활동 골목콘서트 1,008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 고전극장 연 4회 개최 인간과 기술 포럼 연 2회 개최 인간과 문화 포럼 연 3회 개최 우리동네 인문책수다 공모전 실시 : 책수다 및 북토크 활동 후기 콘텐츠 55건 발굴

제2절 정책지표 구성 사례

본 절에서는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해외 지표 사례들을 검토한다. 향후 인문정신문화 정책 지표 구성에 필요한 함의들을 중심으로 해외 지표의 지표 구성 상세 내용을 검토한다. 인문분야를 직접적으로 다룬 해외지표는 미국의 인문학 지표(Humanities Indicators, HI)밖에 없다. 그 외 지표는 정책지표 구성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개념과 범위의 명확화, 통계의 세분화

가. 주요 특징

지금 살펴보는 미국의 인문학 지표(Humanities Indicators, HI)와 예술활력지수(Arts Vibrancy Index, AVI)는 개념과 범위의 명확화와 통계의 세분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관련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인문 분야의 세분화를 통한 개념 이해 증진

위에 제시된 미국 내 인문지수들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칫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문 개념과 관련하여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분야를 제시함으로써 인문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가령 인문학지표는 일반인 대상 설문에서 '인문'이라는 단어의 직접 사용 없이도 인문 활동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험적 사례(미술관/박물관 방문, 문화행사 참여, 윤리적 선택에 대한 사고, 미디어 콘텐츠 시청/검색, 논리적/언어적 소통 등)를 제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문 활동의 범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반면 학계 대상의 조사에서는 인문학

학문 분야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제시한 뒤 분야별 통계를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인문학 전반의 현황 파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돕는다. 예술활력지수 역시 지표 측정 시 포괄하는 12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서두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예술지수의 경우 세 지표 중 가장 다양한 세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인문 분야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2) 조사 범위의 시공간적 확장 도모

미국의 인문지수들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은 지표가 포괄하는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설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추세 및 전국 단위의 지역 편차를 파악하기 용이한 자료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인문학지표의 경우 공신력 있는 2차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세부 지표에 따라 1960년대부터 2019년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시계열 변화를 추적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으며, 국가예술지수 역시 약 15년간의 데이터 누적을 통해 전체 지수상의 변화 양상은 물론 세부 지표별의 연도별 증감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서 다른 지표들과 차별적이다. 국가/지역예술지수의 경우 현재는 지원하지 않지만, 미국 전역을 가장 세부적인 군(county) 단위로 세분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온라인상에서 공개하였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예술활력지수의 경우 지역예술지수에 비해 지리적 범위는 다소 크게 설정했으나, 950여 개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시각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

3) 인문 분야의 실용적 특성 파악 노력

인문 활동에의 참여적 측면, 특히 참여자 규모를 강조하는 다른 나라 사례와는 달리 미국에서 개발되는 인문지수들의 경우 그러한 참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가령 인문학지표 중 일반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인문 활동 경험을 통해 배양된 기술역량이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인문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인문학 전공자들의 취업률과 평균 소득 등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전공 및 직무에 대한 만족도, 졸업 후 인문학 전공 교육의 가치 등 주관

적 지표에 대한 측정 결과를 타 학문 전공자들과 함께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문학 전공자의 사회적 활용 정도 및 그에 대한 개인적 효용감을 두루 파악하고, 인문학이 사회 및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술활력지수에서는 문화예술 공급자로서의 개인 및 단체와 지역사회 내 문화적 수요의 다양성 간의 상호작용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태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초래하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 보다 많은 대화가 필요함을 촉구하고 있다.

나. 인문학지표(Humanities Indicators, HI)

1) 개요

인문학지표는 앤드류 멜론 재단(Andrew W. Mello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에서 시행하는 전국 단위의 인문 관련 지표이다. 인문학지표는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이 미국인들의 인문 교육과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련 태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문학(humanities)’ 용어의 표준적인 정의와 활용 영역¹⁶⁾의 규정과 더불어 문화기반시설, 대학정부 부설기관, 문화단체 등 비영리 인문 단체 관련 자체 분류체계(National Inventory of Humanities Organizations, NIHO)의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이 지표는 미국 내 인문 단체의 구성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등으로 자료를 구성하며, 인문학과 관련된 121개 주제를 포괄한다. 주요 포괄 분야는 1)초등 및 중등 교육(K-12 Education), 2)학부 및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 3)인문학 연구와 펀딩, 4)인문학 관련 일자리, 5)미국인의 삶에서의 인문학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State of the Humanities’와 ‘The Humanities in American Life’라는 두 가지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주로 인문학 전공자들의 학위 수여, 일자리, 소득, 직업 만족도 등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며, 후자는 미국 일반인들의 인문학 관련 참여 경험과 인식,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¹⁷⁾

16) 본 지수를 위해 설정한 인문학 표준범위에 포함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예술연구, 미국학, 고고학, 커뮤니케이션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문학, 역사, 철학, 법학, 종교, 특정 학제간 연구.

<https://www.amacad.org/humanities-indicators/scope-of-humanities> 검색일: 2022.08.14.

〈표 2-9〉 미국 인문학지표의 주요 분야별 구성¹⁸⁾

주요 분야	세부 분야	세부 지표
초·중등 (K-12) 교육	학업 성취도 측정	학령기 아동의 기초 읽기 능력 동향
		독해, 수학, 과학에 대한 학생의 숙련도
		읽기 능력: 국제 비교
		쓰기 능력
		미국 역사에 대한 지식
		시민윤리에 대한 지식
		음악, 시각예술에의 반응
	고등학교 과정 수강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이수 학점
		초등학교·중학교에서의 영어 외 언어(LOTE) 교육 이수 비중
		인문학 과목별 대학 학점 선취득 시험(AP Exams) 응시자 수
		인문학 과목별 대학 학점 선취득 시험(AP Exams) 고득점 비율
	초·중등 학교 교원	미국 공립 중학교 인문학 교원의 자격취득 여부 및 담당 학생 비율
		미국 공립 고등학교 인문학 교원의 자격취득 여부 및 담당 학생 비율
		인문학 교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문학 교원의 수입		
인문학 교원의 직무만족도		
고등 교육	학부	문과 및 인문학 분야 준학사학위 취득자 비중
		인문계 준학사학위 취득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문학 학사학위 취득자 비중
		제2전공으로서의 인문학 학사학위 취득자 비중
		인문학 학사 학위의 학제 분포
		인문학 학사 학위의 기관별 분포
		인문학 학사 학위의 인종/민족 분포
		인문학 학사 학위의 성별 분포
		자주 수강하는 학부 수업과목
		영어 외 언어 관련 고등교육과정 수강자 수
	대학원	인문학 석박사 학위 이수자 수
		전체 석박사 학위 이수자 중 인문학이 차지하는 비중
		인문학 석박사 학위의 학제 분포
		인문학 석박사 학위의 기관별 분포
		인문학 석박사 학위의 인종/민족 분포
		인문학 석박사 학위의 성별 분포
		인문학 박사학위 취득 소요기간
		인문학 박사학위 신규 취득 연령 분포
		편당과 박사학위 취득기간 간 관계

17) 출처: <https://www.amacad.org/humanities-indicators> 검색일: 2022.02.11.

18) 출처: <https://www.amacad.org/humanities-indicators/public-life> 검색일: 2022.08.10.

주요 분야	세부 분야	세부 지표	
		인문학 박사과정 이수 시 소요 비용	
		인문학 박사과정 이수 시 부채수준	
		인문학 박사과정 중도포기 비율	
		다학제적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문학 박사의 비중	
인력	특정 인문학 분야에서의 학부/대학원 학위 정보	영어영문학 학위 취득자 수 및 비중, 인구통계학적 분포	
		역사학 학위 취득자 수 및 비중, 인구통계학적 분포	
		영어 외 어문학 취득자 수 및 비중, 인구통계학적 분포	
		철학 학위 취득자 수 및 비중, 인구통계학적 분포	
		종교학 학위 취득자 수 및 비중, 인구통계학적 분포	
	국제교육	인문학 학위 취득자 수 및 비중: 국제 비교	
		인문학 관련 해외로 유학 가는 미국 학생의 수, 비중, 학제 분포	
	인문학 전공자의 소득 및 직업	고용	인문학 관련 취업자 수 및 분야별 분포
		인문학 전공자의 소득 및 직업	인문학 전공자의 직업 분포(전문대/4년제/대학원, 성별 격차)
			인문학 전공자의 취업 현황(실업률)
인문학 전공자의 소득(학위별, 전공별, 성별, 연령대별 격차)			
인문학 전공자의 직무 만족도			
인문학 전공자의 경영대학원(GMAT), 의과대학(MCAT), 로스쿨(LSAT) 입학시험 응시자 비중 및 평균 점수			
직업 부문별 인문학 전공자 수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소득 및 직업		인문학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의 취업 현황(고용부문)	
		인문학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직업 분포	
		인문학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소득(연평균소득, 성별 격차)	
	인문학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직무 만족도		
인문학 교원 (고등교육기관)	대학 내 인문학 교원 비중		
	대학 내 인문학 교원의 학제별 분포		
자금지원 및 연구	인문학 관련 연방자금지원	국립인문재단(NEH)의 지원(예산대비 집행액, 예산유형별)	
		기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인문학 관련 주정부의 자금지원	주립 인문학위원회(State Humanities Council)별 수입/주요 재원	
		주립 도서관 기구(state library agency)별 수입/지출(총, 1인당)	
		주 정부별 공립 고등교육 지출	
		주 정부별 관할 예술기구(State Arts Agencies) 배정액(총, 1인당)	
	민간지원	인문예술활동에의 민간기부	
		인문예술활동에의 재단 보조금(총액, 건수, 분야별 분포)	
	비영리 인문단체	비영리 인문단체(전체/유형별 단체 수, 수입)	
		세부 유형별 비영리 인문단체의 수 및 수입 (박물관, 도서관/기록보관소, 역사단체, 문화/인종단체, 영어 문해력 증진단체, 기타)	
인문학 연구 지원	대학의 인문학 분야 연구개발(R&D) 지출 및 재원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 지출 (회원기관별 평균지출, 논문구입, 학생 1인당 가용자원)		

주요 분야	세부 분야	세부 지표
		학술도서(인문학 전체/세부분야별 신간 비중, 분야별 도서가격)
공공 생활	인문 기술 및 관행	성인 문해력
		가족구성원이 책을 읽어주는 미취학아동의 비율
		청소년 독서빈도
		성인 독서인구
		성인 독서 분야
		평균 독서시간
		창의적 글쓰기 참여
		다국어 구사자 비율
		성인 평생교육
	공공 도서관	공공 도서관 장서 수
		공공 도서관 이용
		공공 도서관의 인터넷 가능 컴퓨터 보유 수
		공공 도서관 수익, 지출, 자금출처
		공공 도서관 사서 수, 전문성(관련 석사학위 소지 여부)
	인문프로그램 및 기관	State Humanities Council programs
		최근 1년간 역사적 장소 방문자 수
		최근 1년간 미술관 관람자 수
		오프라인 서점, 직원 수, 매출액
특정 도서 검열에 대한 대중 인식	특정 도서 주제 관련 공공 도서관에서의 배제에 찬성하는 미국 성인의 비중	

2) The State of the Humanities: 대학 및 연구자 대상 조사

먼저 인문학지표는 4년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인문 관련 학부대학원 전공자들의 학위 취득, 취업, 소득, 직무만족도 현황과 관련한 여러 항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미국의 인문학 전공자들의 감소 추세에 대한 토론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¹⁹⁾

현재까지 2005년, 2014년, 2018년, 2021년, 2022년에 관련 보고서인 ‘State of the Humanities’를 발간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22년 보고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인문학 박사학위 취득자는 석사학위 취득자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2020년 신규 인문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수가 예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대공황 이후 인문학 분야의 지속적인 구직시장 침체로 인하여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에서 인문학 전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다.²⁰⁾

19) Jaschik, Scott. 2017. "Humanities Majors Drop". Inside Higher Ed (June 5).

3) The Humanities in American Life: 일반인 대상 지표

인문학지표 중 일반인 대상 지표에 해당하는 공공생활(Public Life)의 경우, 미국인들의 일상생활 중 일부로서의 인본주의적 활동과 더불어 시민의 지적 발달 및 평생교육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지표는 크게 1)인문 기술 및 실천(Humanistic Skills and Practices), 2)공공도서관(Public Libraries), 3)기타 인문프로그램 및 기관(Other Humanities Programs and Institutions for the Public), 4)인문학 관련 시민의식(Public Attitudes toward the Humanities)의 4개 분야로 구분되며, 분야별 세부 지표의 측정을 위해 OECD, 미 정부 부처, 국립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진행된 2019년 조사의 경우 조사 이래 최초로 전국 단위의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18세 이상 미국 성인남녀 5,0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인 'The Humanities in American Life'의 경우, 1)일상생활에서의 인문학, 2)인문학에 대한 인식, 3)인문학 교육에 대한 인식, 4)직장에서의 인문학이라는 네 가지 챕터로 구분하여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 활용한 주요 지표로는 인문학활동 참여 분야 및 형태, 인문학 관련 콘텐츠 소비행태, 온라인 인문학활동 정도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통한 활동에 대해서는 한 단락 이상 견해 작성, 정보 검색이나 콘텐츠 공유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아울러 유아청소년기 인문학 관련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인문학 관련 활동을 통해 익힌 실용능력이 실제 직무수행에서 쓰임이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학생 때 교육받아야 하는 중요한 분야는 무엇인지, 관련 활동을 언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도 있다. 구체적인 세부 문항은 <표 2-10>과 같다.

20)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State of the Humanities 2022: From Graduate Education to the Workforce (Cambridge, Mass.: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2022), p.5.

〈표 2-10〉 일반인 대상조사 설문 내용²¹⁾

문항	세부 활동
지난 1년간 인문활동 참여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관, 예술 축제, 미술감상 행사 방문 역사박물관 및 역사유적지 방문 독서 및 문학행사 참여 예술, 역사, 문학, 철학, 종교에 대한 팟캐스트, 라디오쇼, TED Talk TV,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역사 콘텐츠 시청 TV,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예술, 역사, 문학, 철학, 종교 콘텐츠 시청 생활 속 선택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생각 및 탐구 영어 외 다른 언어를 활용한 소통
지난 1년간 독서 관련 활동 참여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장편, 단편) 읽기 비소설(전기, 역사서, 문화/종교서적) 읽기 오디오북 듣기 독서/희곡낭독 클럽 참여 개별 또는 단체로 종교 관련 쿤헌 스터디 참여
지난 1년간 소셜미디어 접속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cebook, Twitter, Instagram, Reddit, LinkedIn, 블로그 등
지난 1년간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통해 참여한 인문 활동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셜미디어나 다른 온라인 사이트(Facebook, Tumblr, blog, Reddit 등 포함)에서 예술, 역사, 문학, 철학, 종교에 대한 한 단락 이상 견해 작성 소셜미디어(Facebook, Twitter, Instagram, YouTube)에서 예술, 역사, 문학, 철학, 종교에 대한 기사, 비디오나 다른 디지털 콘텐츠 공유 유명한 철학자, 작가, 역사가, 예술가, 음악가 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정보 탐색 예술, 역사, 문학, 철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정보 탐색 개인 생활에서 관심을 가진 것들에 대한 역사 조사(예, 가족이나 이웃, 스포츠팀, 예술가, 음악가의 역사) 타 종교, 타 문화에 대한 정보 탐색
지난 1년간 인문 강좌 수강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 문학, 철학, 타 언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강좌
18세 이전 부모님 또는 다른 어른들의 인문 활동 목격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 1문단 이상 글쓰기 가족사에 대한 논의
18세 이전 부모님 또는 다른 어른들과의 인문 활동 참여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사/세계사에 대한 논의 예술에 대한 논의 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
직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관련 인문활동 수행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 작성 다른 사람 설득을 위한 글쓰기
본인이 보유한 직무관련 인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 회당 20분 이상 집중하여 특정 자료(온/오프라인) 읽기

21) Humanities Indicators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2020. *The Humanities in American Life: Insights from a 2019 Survey of the Public's Attitudes & Engagement* (Cambridge, Mass.: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Appendix D, pp. 92-100.

문항	세부 활동
수행 능력으로 인해 경력 향상이 제한된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문화권 출신 사람과 일하기 • 토론, 주장, 결정에서 상반된 관점을 비교 • 업무에 대해 역사적 조사나 역사적 관점 적용
유아초등교육 시 주제별 인문 교육의 중요도	주제: 읽기, 쓰기, 문학, 미국 역사, 영어 이외의 언어, 예술사/미술감상, 논리, 윤리, 세계사/세계문화, 종교사상 간 차이
아이들이 주제별 인문 교육을 배우기 좋은 장소	주제: 읽기, 쓰기, 문학, 미국 역사, 영어 이외의 언어, 예술사/미술감상, 논리, 윤리, 세계사/세계문화, 종교사상 간 차이 장소: 학교, 학교 밖(집, 교회, 지역공동체), 둘 다
아이들이 주제별 인문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	주제: 읽기, 쓰기, 문학, 미국 역사, 영어 이외의 언어, 예술사/미술감상, 논리, 윤리, 세계사/세계문화, 종교사상 간 차이 교육시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인문학'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은 모든 미국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 인문학은 다소 엘리트적이거나 하세적인 사람을 끌어들이는다. • 인문학은 더 의미있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 • 인문학은 시간낭비다. • 인문학은 미국인들이 더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하도록 돕는다. • 인문학 활동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 인문학 활동과 토론은 가족/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좋은 방법이다. • 인문학은 미국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인문학은 내가 지역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도록 돕는다. • 인문학은 미국인들이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인문학은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인문학은 미국인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 인문학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 인문학은 경제를 더 부강하게 한다. • 인문학은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생각하도록 돕는다. • 인문학은 아이와 청소년들이 삶에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본인이 더 공부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	분야: 문학, 미국사, 영어 이외에 언어, 철학, 젠더 연구, 예술사/예술감상, 윤리학, 세계사, 컴퓨터 공학, 과학(생물학, 화학, 물리학 포함), 수학과 통계, 창조/행위예술, 체육, 경영학, 사회과학/행태과학(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다른 사람이 다음 용어를 사용했을 때의 친근감	용어: 역사, 공학, 문학, 수학, 인문학, 과학, 예술, 외국어, 통계학, 철학
학부 전공	전공: 사회과학/행태과학(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교육학, 공학/컴퓨터공학, 순수/행위예술(음악, 무용, 방송예술 포함), 의료/보건, 인문학(어문학, 역사, 철학 포함), 자연과학(생명과학, 물리학, 수학, 통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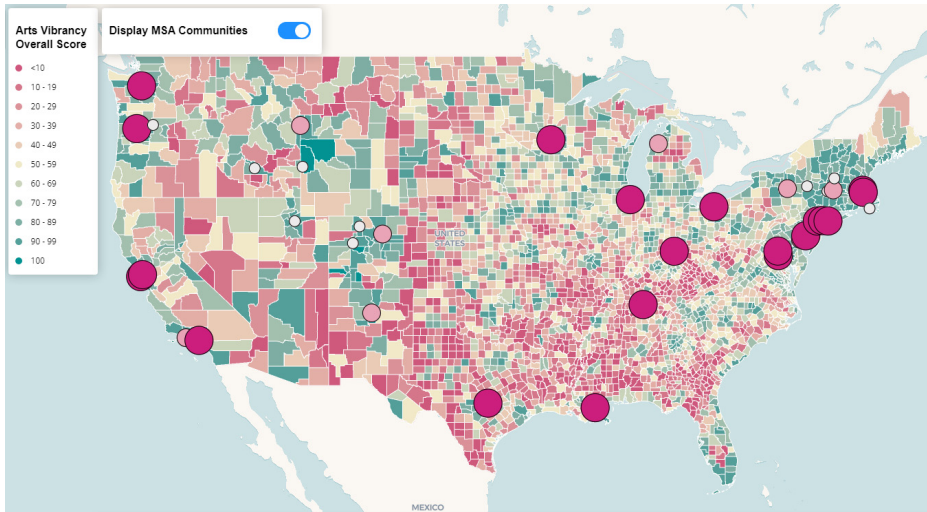
다. 예술활력지수(Arts Vibrancy Index, AVI)

1) 개요

예술활력지수는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의 문화예술 데이터 수집기관인 SMU DataArts에서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지역공동체 단위

의 예술지수이다. 본 지표는 도시의 예술적 활력도(Vibrancy)와 그 형태의 지역별 편차를 데이터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예술기관의 활동이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미국의 지역 기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지역 내 공급과 수요, 그리고 공적 지원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예술 부문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40개 지역²²⁾을 매년 선별하여 보고서²³⁾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전역의 947개 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and Metro Divisions)의 예술활력 지수 현황을 대화형 맵(Arts Vibrancy Map) 형태로 제공하여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각화하고 있다.

[그림 2-5] 미국 예술활력지도(Arts Vibrancy Map)²⁴⁾



22) 지역별 인구규모 편차를 고려하여 Top 20 Large Communities(인구 100만 명 이상), Top 10 Medium Communities(인구 10만~100만 명), Top 10 Small Communities(인구 5만~10만 명)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다.

23) 2021년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술계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https://culturaldata.org/learn/data-at-work/2021/arts-vibrancy-index-report-2021/> 검색일: 2022. 08. 16.

24) 출처: <https://sites.smu.edu/Meadows/ArtsVibrancyMap/> 검색일: 2022. 8. 16.

2) 예술활력지수의 구성

세부지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본 지수는 예술단체와 해당 단체가 소재한 지역공동체 간의 공생적 관계를 상징한다.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특성 및 결정은 해당 단체의 결과물뿐 아니라 개별 예술가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를 포괄하는 지역공동체 전반의 사회경제적·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문화적 대체재의 다양성, 그리고 보다 큰 차원에서의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지원 역시 상호 영향 하에 해당 지역의 예술 활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예술가 개인과 문화예술단체, 지역공동체 내 문화예술기반, 정부 지원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하여 이를 예술활력지수의 분석틀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틀 하에서 예술활력지수는 크게 1)예술 공급자(arts providers), 2)비영리 예술자금(arts dollars), 그리고 3)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지원(government support)이라는 세 가지 지표 영역을 제시한다. 먼저 예술 공급자는 공급 측면의 척도로서 지역사회의 독립 예술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단체 및 회사의 수를 포함한다. 예술자금은 수요 측면의 척도로서 지역사회 내 비영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 예술분야 기부 수입, 지역 내 예술가 및 직원의 총 보수, 그리고 총지출을 세부지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척도로,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보조금 건수 및 총액을 통해 측정한다.²⁵⁾ 모든 세부지표는 해당 지역사회 인구 1인당 평균값으로 측정하며, 요인분석을 통해 개별 지표영역을 표준화한 뒤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을 통해 최종 순위를 부여한다. 예술에 활력을 주는 요인으로서 정부지원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보다는 예술 공급자 및 예술자금 지표에 보다 많은 가중치가 부여된다.²⁶⁾

25) SMU DataArts. *Arts Vibrancy Index Report VI: Hotbeds of America's Arts and Culture*, 2020. p.8.

26) 세부 가중치는 예술 공급자 45%, 예술자금 45%, 정부지원 10%이다. SMU DataArts. *Arts Vibrancy Index Report VI: Hotbeds of America's Arts and Culture*, 2020. p.40.

라. 국가/지역 예술지수(National/Local Arts Index, NAI/LAI)

1) 개요

국가예술지수 및 지역예술지수는 Americans for the Arts(AFTA)²⁷⁾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전체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예술과 문화의 건전성 및 활력(vitality)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대 중반 개발한 지표이다. 국가 및 지역예술지수의 가장 큰 특징은 각각 81개, 122개라는 방대한 지표를 망라하여 미국의 예술 시스템 전체의 시계열 변화를 추적하려 한 종합정책지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국가예술지수의 경우 약 10년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국 차원의 지표변화를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에 걸쳐 총 6차례 보고서를 통해 제공하였으며,²⁸⁾ 지역예술지표의 경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 전역 3,143개 군(county)의 지표별 측정결과를 웹사이트²⁹⁾를 통해 게시함으로써 내거 사는 지역사회의 예술 현황을 직접 탐색하고, 관심 지역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2) 국가/지역예술지수의 구성

① 국가예술지수의 구성

국가예술지수의 경우 크게 1)재정흐름(Financial Flows), 2)역량(Capacity), 3)예술 참여(Arts Participation), 4)경쟁력(Competitiveness)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흐름의 경우 문화산업 세부 분야별 수입과 더불어 재원별 예술재정의 편성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량 지표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나 관련 인프라/투자 규모를 포괄하고 있다. 예술 참여의 경우 세부 문화예술 분야에의 참여자 수나 예술관련 전공자 수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경쟁력 영역에서는 미국 전체 인구, 산업, 자금지원에

27) Americans for the Arts는 미국 내 예술을 옹호하는 선두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National Assembly of Local Arts Agencies(NALAA)와 American Council for the Arts(ACA)의 합병으로 탄생한 단체이다. 예술관련 국회 정책 입안과 관련된 로비활동,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https://www.theapro.kr:441/kor/korea/directory_view.asp?idx=7515&s1=&s2=&od=&r_c_idx=&r_genre=&r_category= 검색일: 2022. 08. 17.

28) 국가예술지수는 2016년도 보고서를 끝으로 연구를 종결하였다.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by-program/reports-and-data/research-studies-publications/arts-index> 검색일: 2022. 08. 16.

29) 현재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다.

서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된 세부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표 2-11〉 미국 국가예술지수의 지표구성³⁰⁾

연번	세부 지표	주요 분야	
1	작사가 및 작곡가 공연저작권 사용료	재정 흐름	
2	예술 직종의 임금		
3	문화예술산업의 총 급여지출		
4	출판산업 수입		
5	베스트셀러 도서 판매액		
6	악기 판매액		
7	음반산업 출하 가치		
8	총 앨범 판매액		
9	콘서트산업 티켓 판매액		
10	창작물(creative goods) 수출		
11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수입		
12	재단의 문화예술분야 자금지원		
13	문화예술분야 민간기부		
14	예술분야 연대 모금활동		
15	연방정부의 문화예술분야 자금지원		
16	주립예술기구의 예산책정액		역량
17	지역예술기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금지원		
18	전체 노동인구 중 예술가의 비중		
19	문화예술계 종사자 수		
20	문화예술기업 종사자 수		
21	창의산업 종사자 수		
22	예술노조 회원 수		
23	음반(CD 및 레코드) 매장 수		
24	독립 예술가, 작가, 공연자 수		
25	영화 스크린 수		
26	문화예술산업 관련 설립기관의 수		
27	창의산업 시설 수		
28	등록문화예술단체(501(c)(3)) 수		
29	예술지원단체 수		
30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자본투자	예술 참여	
31	비영리 예술단체에 대한 자본투자		
32	국민소득 계정에서 예술자산의 비중		
33	저작권 신청 수		

30) Americans for the Arts. *National Arts Index 2016: An Annual Measure of the Vitality of Arts and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2012-2013*, 2016.

연번	세부 지표	주요 분야	
34	문화예술분야 개인소비지출		
35	예술활동 참여시간		
36	연극, 오케스트라, 오페라, 브로드웨이, 영화부문 신작 수		
37	음악, 연극, 무용, 예술 관련 신간 수		
38	예술단체 자원봉사자 수		
39	예술분야 재능기부자 수		
40	4년제 대학 음악/미술 전공 SAT 응시자의 성적		
41	영상/공연예술 전공 입학예정자 수		
42	영상/공연예술 전공 학위취득자 수(준학사, 학사, 석박사 포함)		
43	비상업 라디오 청취자 수		
44	공영 텔레비전 시청자 수		
45	외국인 방문객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수		
46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 관람자 수		
47	브로드웨이 순회공연 관람자 수		
48	라이브 대중음악 관람자 수		
49	교향악, 무용, 오페라, 연극 관람자 수		
50	영화 관람자 수		
51	미술관 방문자 수		
52	오페라 관람자 수		
53	교향악 관람자 수		
54	비영리 연극 관람자 수		
55	문화예술분야 민간기부 비중		경쟁력
56	대도시 가구의 문화예술분야 기부 비중		
57	개인의 문화예술 지출 비중		
58	GDP 내 예술부문 비중		
59	전체 학위취득자 중 영상/공연예술 전공자 비중		
60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비중		
61	문화예술계 종사자 비중		
62	문화예술산업 급여 비중		
63	SAT I 응시자 중 4년제 예술/음악전공 지원자 비중		
64	문화예술산업 관련 설립기관 비중		
65	재단 지원 중 문화예술부문 비중		
66	기업 지원 중 문화예술부문 비중		
67	연방정부의 1인당 문화예술부문 지원규모		
68	연방정부의 국내 재량 지출 중 문화예술부문 지원 비중		
69	인구 1인당 주립예술기구 지원규모		
70	주정부의 일반 기금지출 중 주립예술기구 지원 비중		
71	브로드웨이 공연 관람 인구 비중(뉴욕/순회공연)		
72	라이브 대중음악 관람 인구 비중		

연번	세부 지표	주요 분야
73	교향악, 무용, 오페라, 연극 관람 인구 비중	
74	미술관 방문 인구 비중	
75	오페라 관람 인구 비중	
76	교향악 관람 인구 비중	
77	비영리 연극 관람 인구 비중	
78	메이 모세스 예술 지수(Mei Moses® All Art index)의 연말 가치	
79	세계 창작물(creative goods) 무역의 미국 점유율	
80	예술사업의 자산 수익률	
81	비영리 예술단체의 연말 흑자 비중	

② 지역예술지수의 구성

지역예술지수 역시 큰 틀에서는 국가예술지수와 맥락을 같이하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된 지표구성을 보여준다. 세부 지표영역으로는 크게 1)지역 내 예술계 종사자 및 예술사업 수, 2)지역 내 비영리 예술단체, 3)지역 내 1인당 문화예술 소비 지출, 4)지역 내 문화활동 참여 비중, 5)지역 내 문화프로그램, 6)지역경제 내 문화예술 부문 설립기관, 종사자, 임금 비중, 7)인구 1인당 정부 지원 규모, 8)지역 내 예술단체 및 기업 특성, 9)전국 단위 협회와의 연계, 10)비영리 수입, 11)전문 교육훈련, 12)지역 내 공공/민간지원 등이 제시되었다.³¹⁾

2. 표본의 대표성 확보

가. 주요 특징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영국의 참여설문(Taking Part Survey)은 광범위한 조사대상과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노력을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국 DCMS의 중요한 전략목표 중 하나는 대중들이 사회적 활동, 문화, 스포츠 및 육체적 활동들에 대한 참여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경제를 성장시키며, 안전하고, 공정하며, 다양한 정보에 기반을 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조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1) 개별 세부지표에 대한 상세 설명은

<https://www.icpsr.umich.edu/web/NADAC/studies/36984/variables> 참고. 검색일: 2022. 08. 17.

1) 광범위한 조사대상

2005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참여조사는 최초 16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사 2년차인 2006년부터는 조사대상 가구에서 임의로 선정된 11~15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2008/2009년 조사에서는 5~10세까지의 어린이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DCMS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의 문화, 예술, 스포츠 경험이 그 자체로도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문화, 예술,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의 문화, 예술, 스포츠 관여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2) 표본의 대표성 확보 노력

DCMS의 참여조사는 잉글랜드의 민간 거주지에 생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편번호를 활용하여 최대한 전체 인구와 유사한 지역별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면 조사를 1년에 걸쳐 수행하고 월별로 각 지역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특정 사건이나 시기에 따른 변수가 전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개인 수준의 변화 추적

개인적 수준에서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한다. DCMS의 참여조사는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축적하였다. 특히, 2012/2013년(8년차 조사)부터는 개인적 수준에서 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관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 속 사건(life events)이 참여에 기여하거나 방해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종단 자료(longitudinal data)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8년차 조사 이후부터는 일부 응답자는 2차례 이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나. 영국의 참여설문(Taking Party Survey)³²⁾

1) 개요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DCMS)의 플래그십 설문인 참여설문(Taking Part Survey)은 2005년부터 수행되었으며 2012년 국가통계 자격을 획득하였다. 잉글랜드 지역의 16세 이상의 성인과 5~15세 사이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대면 가구조사(웹 패널 조사 병행)이며, DCMS 및 관련 부문에서의 정책 형성을 위한 핵심 근거를 제공한다. 본 참여설문의 목적은 왜 대상자들(시민)이 문화, 디지털, 스포츠에 관여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참여설문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를 충족하고, 이러한 관여의 가치와 이익에 대한 후속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참여설문은 설문대상자들이 6개 분야—예술, 박물관과 갤러리, 아카이브, 도서관, 문화유산, 스포츠—에 대한 참여/관여 자료를 추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 빈도, 참여 동기,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분야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교육수준 등)과 심리적 변수(외로움/고립감), 디지털 기술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최근 참여설문에는 상기 6개 분야 이외에 관광, 주요 문화 행사, 주요 스포츠 행사, 도박, 디지털 부문이 추가되었고, 아카이브는 제외되어 총 10개 분야에 대해서 참여 빈도, 참여 동기, 참여 장애요인, 분야에 대한 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웰빙, 고립감, 디지털 기술 사용 등을 조사하였다.

2) 지수구성

영국 참여설문 조사의 핵심 측정 지수는 잉글랜드 지역에서 ①예술에 관여하는 성인 비율, ②문화유산 장소를 방문한 성인 비율, ③박물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한 성인 비율, ④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활용한 성인 비율이다. 추가적으로 참여설문 조사는 관련된 다른 자료 역시 추적하고 있는데, △문화와 스포츠 만족 및 즐거움, △성장 과정에서 문화와

32) 본 내용은 영국 DCMS의 “The Taking Part Survey”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taking-part-survey>), “The Participation Survey”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participation-survey>), Ipsos MORI, “Taking Part Year 15 (2019/20): Cross-sectional survey, Technical Report,” (August 2020)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스포츠에 관여, △자원봉사,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사용, △자선기부, △TV, 라디오, 신문 소비, △도박과 복권 참여, △주관적 웰빙과 외로움/고독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지는 △가구 정보, △사회화(과거 경험), △자유시간 활동, TV, 컴퓨터 게임, △예술 참여, △예술 참석, △도서관, △아카이브, △문화유산, △박물관과 갤러리, △산책, 자전거, 스포츠 참여, △디지털 활동, △자원봉사와 자선기부, △공동체 유대감과 소속감, △예술과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태도, △뉴스, △도박과 복권, △주관적 웰빙과 외로움/고독감, △인구통계학적 정보, △웹 패널 참석 초대 등으로 이뤄진다.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해서 조사하는 정보는 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활동 공간, 구체적 활동 내용, 빈도, 만족도, 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미참여 이유, 비용 지불 여부, 방문을 위한 이동 방식과 거리, 시간 및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2-12>와 같다.

<표 2-12> 영국 참여설문의 범주별 문항 구성

범주	조사 내용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예술에 관여 여부 - 지난 1년간 예술에 관여한 빈도 - 예술 행사에 참석하는 데 장애요인 - 예술에 참여하는 데 장애요인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방문 여부 -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방문 빈도 -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방문 이유(개인적 시간, 유급 근로, 학술연구, 자원봉사) -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한 방식 -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아카이브나 기록보관소 방문 여부 - 지난 1년간 아카이브나 기록보관소 방문 이유(개인적 시간, 유급 근로, 학술연구, 자원봉사) - 지난 1년간 아카이브나 기록보관소 방문 빈도 - 개인적 시간을 할애하거나 자원봉사를 위해 아카이브나 기록보관소를 방문한 이유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문화유산 방문 여부 - 지난 1년간 문화유산 방문 빈도 - 지난 1년간 문화유산 방문 이유(개인적 시간, 유급 근로, 학술연구, 자원봉사) - 방문한 문화유산의 종류 - 문화유산을 방문한 이유 - 문화유산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박물관과 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박물관/갤러리 방문 여부 - 지난 1년간 박물관/갤러리 방문 빈도 - 지난 1년간 박물관/갤러리 방문 이유(개인적 시간, 유급 근로, 학술연구, 자원봉사) - 박물관/갤러리를 방문한 이유 - 박물관/갤러리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

범주	조사 내용
디지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방문한 웹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또는 갤러리 웹사이트 • 도서관 웹사이트 • 문화유산 웹사이트 • 예술 웹사이트 • 아카이브 또는 기록보관소 웹사이트 • 스포츠 웹사이트 - 웹사이트를 방문한 이유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여부 - 지난 1년간 DCMS 분야에서 자원봉사 여부 - 지난 1년간 자원봉사 빈도 - 자원봉사 활동 종류 - 자원봉사를 한 이유 - 자원봉사 활동이 아래 부문과의 연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 박물관 또는 갤러리 • 문화유산 • 도서관 • 아카이브 • 스포츠 • 기타 DCMS 분야
웰빙	- 외로움/고독감

3. 평가 프레임워크의 활용과 공간의 중요성

가. 주요 특징

싱가포르의 국립예술협의회(National Arts Council, NAC)는 싱가포르 내 문화예술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통계·서베이 데이터³³⁾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예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매체를 통한 예술 참여, 예술생태계 등에 대한 사례연구의 수행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활발하게 양산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33)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기관 현황, 예술교육, 정부·민간지원, 문화예술계 고용 및 경제적 가치 등과 관련한 연 단위의 문화통계(Singapore Cultural Statistics), 문화예술과 관련된 싱가포르 시민의 인식 및 참여 동인과 관련된 격년 단위의 예술에 대한 인구조사(Population Survey on the Arts), 문학음악극장 등 세부 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등이 있다.

1) 평가 프레임워크 구성

싱가포르의 ‘예술이 이웃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특성(조건)과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문화예술 활동이 수행되는 환경과 맥락, 조건들과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분리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에 적합하다. 실제로 보고서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기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간의 경우 △다양한 참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통요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종류에 부합하는 장소를 식별·활용하고, △참여자와 공연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좌석, 조명, 환기 등을 제공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나 이웃에 있는 기관들과 같은 예술 전용공간이 아닌 장소를 식별하고, △‘제3의 공간’(예: 식당, 카페, 쇼핑몰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의 종류를 다변화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예술가들에게 생활과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편의시설(예: 푸드코트, 식당 등)에 가까운 공간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참석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상호작용, 큐레이션, 공동창작 등)를 제공하고, △더 많은 참여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참여자를 유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참여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다.

2) 공간 평가의 중요성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실제 문화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의 공간적, 물리적 특성이 문화예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활용하는가, 어떠한 문화예술 활동에 초점을 두는가, 공간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등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간의 물리적 범위를 이웃,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이 추구해야 할 목표의 사회적 단위를 명확히 하였다.

3) 사회적 영향 지표 다양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표를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다른 부문/차원에 비해서 사회적 영향력 관련 지표는 5개로 가장 많은 지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연결망 구축

과 더불어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사회로서 싱가포르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 싱가포르의 ‘예술이 이웃에 미치는 영향 평가’³⁴⁾

싱가포르 국립예술협의회는 싱가포르국립대학(NUS) 디자인환경대학(School of Design and Environment)의 지속가능한 아시아도시센터(Centre for Sustainable Asian Cities, CSAC)와의 연구협력을 통해서 예술이 지역 공동체와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공동체 기반 예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인 ‘NAC & NUS-CSAC Guides’를 2019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예술과 공간, 지역공동체 간 상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입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지역사회 파트너, 예술가 및 예술집단의 활동이 이웃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이다.

1) 문화예술노드(Arts and Culture Nodes)

싱가포르 국립예술협의회는 2012년에 시작한 ‘Arts and Culture Nodes’ initiative를 통해서 모든 싱가포르 국민이 양질의 예술에 더 용이하게 접근하고, 공공장소에 활력과 정체성을 부여하며, 공동체 참여 기회와 예술을 통한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이웃 내 예술 접점(arts touch-points)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예술 접점은 도심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예술 공간을 넘어서며, 각각의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 정부기관, 주민센터, 지역사회와 동아리모임, 기업체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포함한다.

또한 개별 문화예술노드의 공간적 영향력을 측정,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이웃 공간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Checklists for Neighbourhood Space Evaluation)를 제시하였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크게 1)일반 공간 환경(General Spatial

34) 본 내용은 Zdravko Trivic, Quyen Duong, Nina Mascarenhas, Beng Kiang Tan, and Rita Padawangi, (2019), “Assessing the Impact of Bringing Arts into Neighbourhoods,” National Arts Council(NAC) Singapore and the Centre for Sustainable Asian Cities(CSAC) at the School of Design and Environment(SD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NUS)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Conditions), 2)일상활동(Pedestrian Activity), 3)적합성 기준(Suitability Criteria)의 필터(filter)로 구성되며, 필터별로 2~6개의 기준(criteria)과 기준별 세부 문항을 통해 각 공간의 노드 특성 및 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일반 공간 환경의 경우 공간의 규모(면적), 폐쇄의 정도, 지표면의 포장상태 등으로 구분하며, 일상활동의 경우, 해당 공간 인근 주요 보행로를 통과하는 인구와 해당 공간에 정주하는 인구수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적합성은 접근성, 배치형태, 편의성, 지원 인프라, 다기능성, 이미지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특정 공간이 지닌 문화예술노드로서의 가치를 측정한다.

〈표 2-13〉 싱가포르 이웃 공간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³⁵⁾

필터	기준	세부문항
일반 공간 환경 (General Spatial Conditions)	1a. 규모 (Scale/Size)	Small(200㎡ 이하)
		Medium(200-500㎡)
		Large(500-1,000㎡)
		Extra Large(1,000-5,000㎡)
		Double Extra Large(5,000㎡ 이상)
	1b. 개방도 (Level of Enclasure)	Open(벽/지붕이 없는 공간)
Sheltered(지붕은 있으나 벽은 없는 공간)		
Indoor(완전히 폐쇄된 공간)		
1c. 지표면 (Ground Surface)	Paved(포장된 지표면, Hardscape)	
	Unpaved(비포장 지표면, Softscape)	
일상활동 (Pedestrian Activity)	2a. 유동 활동 (Transient Activity)	해당 공간이 보행자 도로와 인접한가? (주요 인접 보행로 내 유동인구수 반복 측정)
	2b. 정주 활동 (Stationary Activity)	해당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정주 활동을 수행하는가? (결집, 좌식활동을 수행하는 인구수)
적합성 기준 (Suitability Criteria)	접근성 (Accessibility)	해당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해당 공간은 멀리서도 잘 보이는가?
		해당 공간은 도보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가?
		내부 공간이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가?
		해당 공간은 장애인 친화적인가?
		해당 공간은 상시(24/7) 공개되어 있는가?

35) Zdravko Trivic, Nina Mascarenhas, Quyen Duong, Beng Kiang Tan, and Rita Padawangi, (2019), "Bringing Arts into Neighbourhoods: Choosing the Right Space and Strategy," National Arts Council(NAC) Singapore and the Centre for Sustainable Asian Cities(CSAC) at the School of Design and Environment(SD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NUS). pp.40-42.

필터	기준	세부문항
	배치형태 (Configuration)	해당 공간은 기동 및 기타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운가?
		해당 공간은 유동적인가?
편의성 (Comfort)		해당 공간은 적절한 청각적 경험을 제공하는가?
		해당 공간의 인접 환경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해당 공간은 적절한 환기/냉방시설을 갖추었는가? /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가?
		해당 공간은 외부 시정각적 자극 및 기타 방해요소로부터 자유로운가?
지원 인프라 (Supporting Infrastructure)		해당 공간은 적절한 조명을 갖추었는가?
		해당 공간은 공공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공간 내 앉거나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다기능성 (Multi-functionality)		해당 공간은 다기능적인가? (복합적인 활용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인근에 취식, 오락, 대기, 장보기를 위한 공간이 있는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선택지가 존재하는가?
		해당 공간은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하는가?
		해당 공간은 집결지(gathering point)로 사용되는가?
이미지 (Image)		해당 공간은 청결하며, 안전한 느낌을 주는가?

2) 이웃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Impact Assessment Framework)

싱가포르 국립예술협회의는 예술 프로젝트, 이벤트, 이니셔티브들이 이웃, 대중의 삶, 지역사회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쉬는 공간에 양질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특성(조건)과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holistic) 프레임워크이며, 서로 상이한 이해당사자—주민, 행사 기획자, 예술가, 다양한 기관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투입(inputs)을 고려하여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를 영역(domains), 차원/부문(dimensions), 지표(indicators)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장 상위의 분류인 영역은 크게 ‘특성(attributes) 혹은 조건(conditions)’과 ‘영향(impacts)’의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영역인 특성(조건)은 문화예술 활동이 발생하는 역량과 환경의 묘사적 척도(descriptive measures)로서 활동의 성공을 나타내며, 공간(space), 프로그램(program), 참여와 참석(participation and attendance)이라는 세 가지 핵심 차원/부문에 의해서 형성된다. 두 번째 영역인 영향은 문화예술 개입으로부터 기인하는 단기적 혹은 장기적 변화를 의미하며, 공간 활용(activation of

spa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s), 교육적 영향(educational impacts), 웰빙 영향(well-being impacts), 예술에 대한 관심과 관여(interest and engagement with the arts) 등 다섯 개의 차원/부문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차원/부문과 이에 대한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차원인 공간(space)은 공간의 규모, 접근성, 가시성, 편안함, 유연한 활용(flexibility)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활동 장소의 공간적·물리적 특성을 지칭한다. 이러한 공간의 전반적인 질은 문화예술 활동의 유형, 규모, 강도 및 빈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간 차원의 지표는 3개로 지표 ①‘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의 가용성과 활용성(availability and utilization of space)’ 지표, ②‘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의 적합성(suitability of spaces)’ 지표, ③‘문화예술 활동에의 접근성(accessibility)’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차원인 프로그램(program)은 공간에서 제공되는 문화예술 활동을 의미하며, 어떻게 공간이 기능하고, 사람들이 공간, 예술 및 다른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어떻게 공간이 기능하는지는 일반적으로 공간이 특정 활동—어떤 종류의 활동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등—을 위해서 디자인되고 사용되는지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지표는 총 4개로 지표 ④‘문화예술 활동 가용성(availability)’ 지표, ⑤‘문화예술 활동 관여와 만족 수준(level of engagement and enjoyment)’ 지표, ⑥‘문화예술 활동의 전반적 질(overall quality)’ 지표, ⑦‘저명 아티스트들의 참여(involve-ment of established artists)’ 등이다.

세 번째 차원인 참여와 참석(participation and attendance)은 문화예술 활동의 영향은 참여와 참석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며, 참여자의 규모와 특성을 아는 것은 참여자 및 맥락에 조응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참여와 참석 차원에서의 지표는 지표 ⑧‘참여자 규모와 특징(volume and profile of participants)’ 지표, ⑨‘참여 빈도(frequency of participation)’ 지표, ⑩‘문화예술 활동 참석 이유(reason for attending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등 3개이다.

네 번째 차원이자 영향 영역의 첫 번째 하위 요소는 공간 활용(activation of space)이다. 예술은 일상적 공간들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이다. 창의적인 공간 창출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문화예술 전라들은 기저에 있는 정체성과 물리적 공간의 가

치와 특성을 드러내고 증진시키며, 일상적 삶에 활력을 부여하며 공동체의 사회적 형태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공간 활용 차원에서의 지표는 지표 ⑪‘예술과 공간의 활력(arts and space vibrancy)’이다.

다섯 번째 차원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s)은 상이한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개인 간 수준(interpersonal level)에서 예술 경험은 가족 화합, 확장된 사회적 연결망,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 등의 형태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 수준(community level)에서 예술 경험을 통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유대감은 지리적 혹은 특정한 집단으로서 정의되는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사회적 영향 차원에서의 지표는 지표 ⑫‘기존 사회적 연결망 증진(enhancing existing social network)’ 지표, ⑬‘새로운 사회적 연결망 구축(building new social network)’ 지표, ⑭‘이웃과의 친밀감/애착감(sense of attachment to the neighborhood)’ 지표, ⑮‘공동체에 대한 자부심(sense of pride to the community)’ 지표, ⑯‘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공감(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different cultures and lifestyles)’ 등 5개이다.

여섯 번째 차원은 교육적 영향(educational impacts)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관람하고 조직하고, 공동으로 창작하는 개인들은 보다 즐기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인들에게서 보다 높은 창의성, 향상된 소통역량, 기획·조직·분석·문제해결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학교에서 예술 분야 이외의 과목을 포함한 전반적인 성과/성적을 향상시킨다. 교육적 영향 차원에서의 지표는 지표 ⑰‘새로운 지식 습득과 기술 학습(gaining new knowledge and learning new skills)’이다.

일곱 번째 차원은 웰빙 영향(well-being impacts)이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여와 긍정적인 정신적 웰빙을 포함한 전반적인 웰빙과의 관계에 대한 문헌이 증가하고 있다. 예술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관여할 때 개인의 무드, 감정, 다른 심리적인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만성질환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 웰빙 영향 차원에서의 지표는 지표 ⑱‘감정과 건강에 대한 긍정적 영향(positive impacts on mood and health)’이다.

여덟 번째 차원은 예술에 대한 관심과 관여(interest and engagement with the arts)이다. 문화예술 활동이 이웃에게 가져다주는 다양한 영향 이외에도 문화예술에의

노출은 보다 광범위한 대중에게 긍정적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익에는 예술에 대한 주민들 사이의 관심 증가,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방문 증가, 창의적 취미활동 수행, 예술 관련 이익집단 형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참여자들은 공동창작, 연기자, 자원봉사자, 주최자 등과 같이 보다 활동적인 역할을 추구할 수 있다. 예술에 대한 관심과 관여 차원에서의 지표는 지표 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stronger interest)’ 지표, ⑱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active participation)’이다. 영역, 차원/부문, 지표와 더불어 지표에 대한 측정(예시)을 정리하면 아래 <표 2-14>와 같다.

<표 2-14> 싱가포르 Impact Assessment Framework 변수 구성

영역	차원/부문	지표명	측정(예시)
특성/조건	공간	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의 가용성과 활용성	- 가용한 공간이 활용되는 정도와 다양성(실내공간, 실외공간,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웃 공간 등) -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사용의 빈도(정기적으로 활용되는 공간, 간헐적으로 활용되는 공간 등)
		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의 적합성	- 장소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동의하는 참여자의 숫자/비율 또는 적합성 점수(1-5 척도)의 평균값 - 공간 규모(㎡, 좌석 수, 입석 참여자 수) - 적합성 수준에 대한 구체적 질문(주최, 아티스트)
		3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 장소 근처에 살거나 일하는 참여자의 숫자/비율(5분/10분 거리, 400m-1km 등) - 집 근처 장소를 선호하는 참여자 숫자/비율 - 장소에 가까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정거장 숫자
	프로그램	4 문화예술 활동 가용성	- 이웃에서 제공되는 문화예술 활동의 숫자, 다양성, 빈도(공연, 워크숍 등 참여가능한 활동의 숫자, 주별/월별/분기별/연간 등 활동의 빈도)
		5 문화예술 활동 관여와 만족 수준	- 문화예술 활동이 감동적이거나 감정적/지적으로 관심을 끌었다고 느끼는 참여자의 숫자/비율 또는 '관여 점수(Engagement Score)'(1-5 척도)의 평균값 - 문화예술 활동을 즐겼다고 느끼는 참여자의 숫자/비율 또는 '즐거움 점수(Enjoyment Score)'(1-5 척도)의 평균값
		6 문화예술 활동의 전반적 질	- 문화예술 활동의 질이 '좋음(good)' 혹은 '매우 훌륭함(excellent)'이라고 평가한 참여자의 숫자/비율 혹은 '품질 점수(Quality Score)'(1-5 척도)의 평균값
		7 저명 아티스트들의 참여	- 저명 아티스트를 관여시킨 문화예술 활동의 숫자/비율 - 문화예술 활동에 관여한 저명 아티스트의 숫자
	참여 및 참석	8 참여자 규모와 특징	-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의 숫자/비율 - 다양한 참여자(성별, 나이, 인종, 직업 등)의 숫자/비율 - 공간 수용인원(㎡ 당 인원) 대비 참여자의 숫자

영역	차원/부문	지표명	측정(예시)
		9 참여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동안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포함해서 처음 참석한 참여자의 숫자/비율 - 이웃에서 적어도 한번 이상 문화예술 활동에 참석한 참여자 중 동 활동에 최초 참석한 참여자의 숫자/비율 - 문화예술 활동 지속 참여자의 숫자/비율
		10 문화예술 활동 참석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활동에의 우연적 참여자(passer-by) 숫자/비율 - 문화예술 활동에의 자발적/의도적 참여자 숫자/비율 - 특정한 공적 경로를 통해서 활동을 인지하게 된 참여자의 숫자/비율
영향	공간 활용	11 예술과 공간의 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해서 이웃 공간이 보다 활기차게 되었다고 느끼는 참여자의 숫자/비율 또는 '활력 점수(Vibrancy Score)'(1-5 척도)의 평균값 - 문화예술 활동 전후로 장소에 있는 장비(좌석, 책상, 무대 등)를 사용하는 주민의 숫자
		12 기존 사회적 연결망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가족구성원, 친구, 이웃주민, 직장동료 등)과 함께 오는 참여자의 숫자/비율 - 문화예술 활동에 함께 온 타인 이외에 이미 알고 있던 사람(지인)과 해당 장소에서 소통한 참여자의 숫자/비율
	사회적 영향	13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는 사람과 대화한 참여자의 숫자/비율 - 새로운 친구를 사귄 참여자의 숫자/비율 - 문화예술 활동 중 새롭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new contacts)을 만든 참여자, 아티스트, 주최자의 숫자/비율
		14 이웃과의 친밀감/애착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활동에 참석한 후 이웃에 대해 보다 큰 친밀감/애착감을 느끼는 참여자의 숫자/비율 또는 '이웃 친밀감/애착감 점수(Neighborhood Attachment Score)'(1-5 척도)의 평균값
		15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활동에 참석한 후 공동체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느끼는 참여자의 숫자/비율 또는 '공동체 자부심 점수(Community Pride Score)'(1-5 척도)의 평균값
		16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활동에 참석한 후 다른 문화나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참여자의 숫자/비율 또는 '문화 공감 점수(Culture Appreciation Score)'(1-5 척도)의 평균값
	교육적 영향	17 새로운 지식 습득과 기술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활동에 참석한 후 (예술적/비예술적)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획득한 참여자의 숫자/비율 또는 '신지식 획득 점수(Gaining New Knowledge Score)'(1-5 척도)의 평균값
웰빙 영향	18 감정과 건강에 대한 긍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활동에 참석한 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참여자의 숫자/비율 또는 '좋은 감정 점수(Good Mood Score)'(1-5 척도)의 평균값 	
관심과 관여	19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문화예술 활동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숫자/비율 또는 '미래 참석 점수(Future Attendance Score)'(1-5 척도)의 평균값 - 문화예술 활동에 참석한 후 예술 관련 다른 활동(예술 취미, 예술 이해집단 참여, 예술 수업 등록 등)에 관심을 표명한 참여자의 숫자/비율 또는 '예술 관심 점수(Arts Interest Score)'(1-5 척도)의 평균값 	

영역	차원 /부문	지표명	측정(예시)
		20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에 관여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활동(규레이션, 기부, 공동창작 등의 숫자/비율 - 향후 이웃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보다 활동적인 역할(자원봉사, 주최, 교사, 연기자 등)을 하고 싶다는 참여자의 숫자/비율 - 문화예술 활동에 관여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숫자 - 이웃에서 참여가 가능한 예술 이해관계집단과 예술 수업의 숫자

4. 지표의 체계적 구성과 시각화

가. 주요 특징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역시 유럽지역의 문화 및 창의산업 분야의 역동성 및 매력과 관련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이를 유럽연합통계청 홈페이지(eurostat)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³⁶⁾ 유럽연합의 지표를 통해 지표의 구성과 시각화의 중요성을 확인해본다. 여기서는 문화창의도시 모니터(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와 지역혁신점수(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를 살핀다.

1) 분야-부문-지표 체계적 구성 및 효과 측정

문화창의도시 모니터 및 지역혁신점수 모두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주요 분야-부문/차원-세부지표 순으로 지수 구성 체계를 확립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문화창의도시 모니터의 경우 정량지표의 측정 외에도 해당 지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부분을 정성지표로 포괄하여 정량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지역혁신점수의 경우 효과(impact)를 주요 측정 분야 중 하나로 포함하여 혁신이 해당 지역의 고용, 판매,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측정을 도모하고 있다.

2) 다양한 비교자료 및 시각적 자료 생산

유럽연합 차원의 문화 관련 지수들이 갖는 또 다른 함의는 바로 평가대상 지역에 대해

36) Eurostat에서는 비정기적으로 EU 내 세계문화유산, 문화관련 교육, 고용, 문화산업 및 무역동향, 문화부문 참여 및 ICT 활용, 가계 및 정부지출 등 문화예술 관련 전반을 아우르는 연간 문화통계 보고서(Culture statistics)를 발간하고 있다. 개별 문화통계 관련 정보는 <https://ec.europa.eu/eurostat/web/culture> 참조.

서 지역별,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생산하여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들의 정책 설계 및 벤치마킹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의 생산 및 측정을 위한 지표의 정교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비교, 지역별 순위와 국가별 순위, 데이터의 신규 가공, 시각화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개발하여 이를 모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3) 지수 구성의 변동

지수 구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또한 큰 특징이다. 지역혁신점수의 구성을 위한 분야, 부문, 지표를 조사 때마다 변경, 추가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평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나. 문화창의도시 모니터(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1) 개요

문화창의도시 모니터는 복합 지표 및 점수에 대한 유럽위원회 역량 센터(The European Commission's Competence Centre on Composite Indicators and Scoreboards, CC-COIN)³⁷⁾에서 개발한 여러 대화형 시각화 플랫폼 중 하나이다. 문화적 역동성 및 창의성과 관련된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유럽도시를 평가 및 상호 비교하고, 국가, 지역 및 도시 정책 입안자가 유사 도시의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도구이다. Eurostat의 Urban Audit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럽 내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약 1,000개 중 문화 및 창의성 증진에 대한 입증 가능한 활동³⁸⁾에 참여한 유럽 30개국 190개 도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2017년 1차 모니터링에

37) CC-COIN은 다차원 현상의 분석 및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정보에 입각한 국가, 지역 및 지방 정책 결정을 위한 '큰 그림(big picture)'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차원적 불평등(Multidimensional Inequalities), 양성평등 전략(Gender Equality Strategy), 문화 및 창의도시(Cultural and Creative Cities), 사회권(Social Rights), 유라시아 지역 간 연결도(ASEM Sustainable Connectivity), 노령층 활동(Active Ageing) 등 6개 분야에 대한 측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실제 국가별, 지역별 측정값을 시각화하여 각각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https://composite-indicators.jrc.ec.europa.eu/> 참조. 검색일: 2022. 08. 27.

38) 입증 가능한 활동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2019년까지 유럽 문화 수도였거나 2023년까지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된 98개 도시
- 2) 2019년까지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된 33개 도시 (유럽 문화 수도와의 중복 제외)
- 3) 2017년 또는 2018년까지 최소 2개의 국제 문화축제(비엔날레)를 개최한 59개 도시

이어 2019년에 2차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

2) 정량지표

정량 지표의 경우 1)문화적 역동성(Cultural Vibrancy), 2)창조경제(Creative Economy), 3)환경이라는 주요 측면(main facets)과 관련하여 총 9개 차원,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문화적 역동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도시가 지닌 문화인프라를 측정하는 문화적 장소 및 시설(Cultural Venues & Facilities)과 더불어 해당 시설에 방문한 관광객·관람객 및 그들의 만족도를 세부지표로 하는 문화적 참여 및 매력도(Cultural Participation & Attractiveness)를 하위 차원으로 두고 있다. 창조경제 측면의 경우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타 창의부문에서의 직종을 측정하는 창의/지식기반 직업 차원(Creative & Knowledge-based Jobs)과 해당 분야의 신규 직종 창출 차원(New Jobs in Creative Sectors), 그리고 ICT 특허 신청 수 및 공동체 생활환경 설계(community design) 적용 수 등을 파악하는 지식재산권 및 혁신 차원(Intellectual Property & Innovation)의 3개 세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는 인문예술/ICT 부문 졸업생 수 및 관련 지역 대학 순위를 측정하는 인적자원 및 교육 차원(Human Capital & Education), 해외 유학생 및 외국인주민, 외국인 집중도, 외국인 및 사람에 대한 신뢰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개방성·관용·신뢰 차원(Openness, Tolerance & Trust), 항공, 도로, 철도 등의 접근성을 통해 측정하는 지역/국제 연결성 차원(Local & International Connections), 그리고 거버넌스의 질(Quality of Governance)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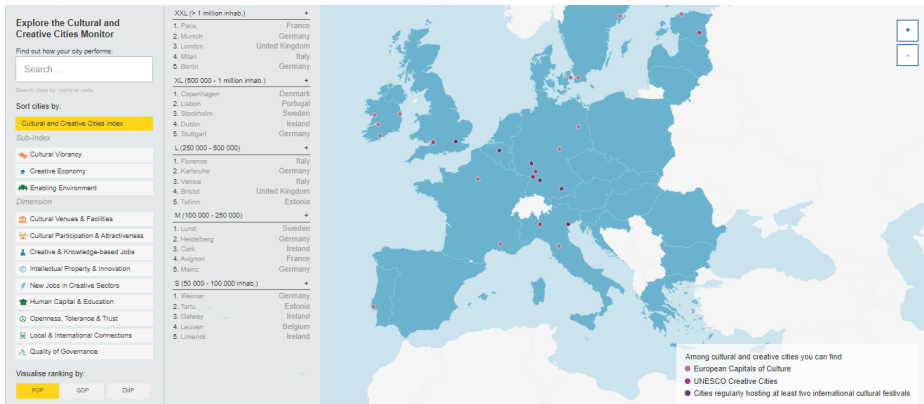
3) 정성지표

정성 지표의 경우, 주요 문화 장소, 예술 기관 또는 행사 실행부터 정책 전략 및 인프라 개발(예: 기금, 세제 혜택, 창의 육성, 소규모 작업장(fab labs))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문화 및 창의성 지원정책 현황을 포괄함으로써 양적 지표가 미처 보여주지 못하는 도시 당국의 정책적 노력을 보완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상의 각 지표에 대한 국가 및 도시별 데이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대화형 지도로 시각화함으로써 개별 도시의 문화 및 창의부문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유사 도시 간 즉각적인 비교 및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기존 도시에 대한 자체

데이터를 입력하고, 새로운 도시 항목을 생성하거나 차원 또는 하위 인덱스의 가중치를 변경하여 맞춤형 버전의 모니터를 생성하는 등 유연한 가공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증진하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림 2-6] EU의 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의 시각화 페이지³⁹⁾



다. 지역혁신점수(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 RIS)

1) 개요

유럽연합 지역혁신점수는 유럽 지역 내 국가들의 혁신 정책 이행 정도 및 이들 국가의 혁신시스템이 지닌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틀로서 유럽혁신점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EIS)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혁신점수는 EIS를 지역 단위에 적용한 확장 도구이다. 2009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1년 총 7회에 걸쳐 평가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1년 RIS에서 22개 EU 회원국 240개 지역을 비교한 결과, 2014년 이후 225개 지역에서 혁신 성과가 증가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은 유럽 내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⁴⁰⁾

39) 출처: <https://composite-indicators.jrc.ec.europa.eu/cultural-creative-cities-monitor/performance-map> 검색일: 2022. 08. 26.

40) 유럽에서 지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며, 핀란드의 헬싱키-우시마, 독일의 오버바이에른이 그 뒤를 잇는다.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statistics/performance-indicators/regional-innovation-scoreboard_en 검색일: 2022. 08. 26.

2) 지표구성

2016년 지역혁신지수 도출에 사용된 자료는 총 3개 분야(type), 7개 부문(dimension), 12개 지표(indicator)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3개 분야는 투입(Enabler), 기업활동(Firm Activities), 성과(Outputs)이며, 7개 부문은 인적자원, 재정 지원, 기업투자, 기업가정신과 네트워크, 지식재산, 혁신주체, 경제적 효과이다.⁴¹⁾

2021년 지역혁신지수에는 총 4개 분야, 12개 부문, 32개 지표가 활용되었으며, 이전에 비해 4개의 지표가 새로이 추가되었다.⁴²⁾ 4개 주요 분야는 1)기본 틀(Framework Conditions), 2)투자(Investments), 3)혁신활동(Innovation activities), 4)효과(Impacts)로 구성된다. 12개 부문은 인적자원, 매력적인 조사시스템, 디지털화, 재정 지원, 기업투자, 정보기술 활용, 혁신주체, 연계시스템, 지식재산, 취업효과, 판매효과, 환경적 지속성이다. 각 부문별로 2~3개의 측정지표들로 구성된다.⁴³⁾

3) 시각화

지표 평가에 근거하여 유럽의 지역들을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EU 평균의 125% 이상의 평가결과를 보이는 지역을 Innovation Leaders 그룹으로, EU 평균의 100~125% 사이의 평가결과를 보이는 지역을 Strong Innovators 그룹으로, 70~100%의 지역을 Moderate Innovators 그룹으로, 70% 이하 지역을 Emerging Innovators 그룹으로 분류하여 공표한다.⁴⁴⁾ 국가별로도 구분하며, 지역별로 상위 25개 지역의 순위도 발표한다. 국가별로 개별 주단위의 평가점수도 보고서에 수록된다.⁴⁵⁾

41) European Union. 2016. 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 2016,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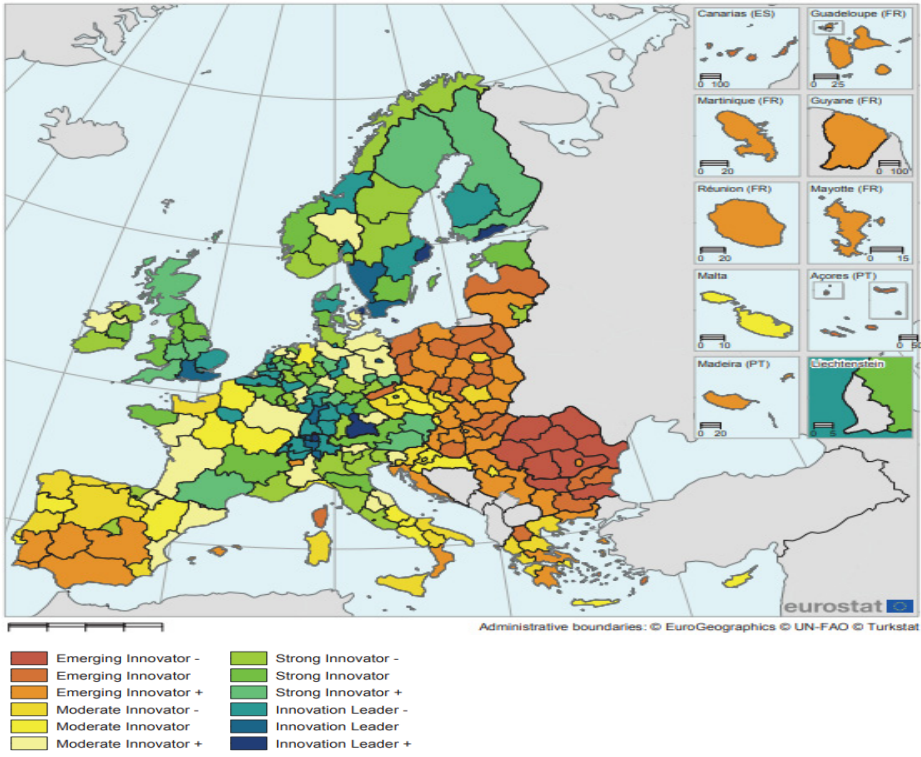
42) 새로 추가된 지표는 일정 이상의 디지털 기술 보유자 수(individuals who have above basic overall digital skills), 피고용인 1인당 혁신 지출(innovation expenditures per person employed), 고용된 ICT 전문가 수(employed ICT specialists), 산업의 대기배출(air emissions in industry) 이다.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statistics/performance-indicators/regional-innovation-scoreboard_en 검색일: 2022. 08. 26.

43) European Union. 2021. 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 2021, p.6.

44) European Union. 2021. 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 2021, pp.16~18.

45) 홈페이지 상에서는 RIS 역시 예술창의도시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대화형 도구를 제공한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실제 들어가 본 결과 제대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았다.

[그림 2-7] RIS 2021에 따른 지역분포



제3절 소 결

1. 성과관리와 근거기반 정책 추진 및 연구 기반 구축

가. 성과관리와 성과지표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목적은 예산집행의 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책무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과거와는 달리 정부 운영의 정당성은 민주적 절차만으로 담보되기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합리주의적 예산이론 및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정부 조직은 자신의 임무 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역량과 정책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며,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행정영역 전반에 걸쳐 자리잡아 왔다. 그 결과를 다시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함으로써 달성한 성과에 책임을 지고 납세자이자 정책고객인 시민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성과주의적 예산관리의 취지이다.

공공조직의 성과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 단계에서 정책사업의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하고, 실제 사업추진 단계에서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정보를 측정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과정보는 관리적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요인이 되는 만큼 정책의 현황과 그 결과를 측정 가능한 지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와 예술,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고 전달이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특성을 지닌다 (Schneider & Bowen, 1993; 유란화유은지, 2022). 따라서 공급의 주체인 정부 조직들이 서비스 제공, 즉 산출(output)과정에서 관리적 적정성을 유지하였는지와 더불어 수요의 대상인 이용자들의 다양한 니즈와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지와 같은 정책의 궁극적 영향력(outcome/impact)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인문예술 정책 역시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러한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성과정보를 누적할 필요가 있다.

나. 근거기반 정책 추진과 환류

성과관리과정에서 생산된 성과정보는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과목표 및 사업을 수정하거나 사업설계를 변경하는 등 예산 배분과 사업성과의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 환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지표의 개발은 단순히 사업결과의 측정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정책이 투입-과정-산출-결과-환류로 적절하게 이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정책집행 과정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특히 위험사회의 도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급증, 민주화 이후 압축적 시민사회의 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최상의 근거(best evidence)와 정교한 인과관계에 바탕을 둔 근거기반 정부 운영(evidence-based governance)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박석희, 2008). 합리적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최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정책이나 행정 현안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효율적으로 탐색, 수집, 분석함으로써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거중심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계량화된 증거뿐만 아니라 거시적, 이론적 조망과 다양한 질적 증거에 근거한 다기준분석기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인문정책의 성공을 위한 근간을 다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싱가포르의 경우, 투입(input)에 해당하는 특성/조건으로서 문화예술 공간, 프로그램, 참여와 참석을 고려함과 동시에 산출(output)인 영향과 관련된 여러 지표 역시 개발하여 이 두 영역을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대한 영향을 다시금 지표를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으며 정

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 연구 기반 조성

지표개발과 활용은 또한 관련 연구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일관되며, 비교가능한 지표는 이를 활용한 연구를 촉진하고, 특히 지역 간 비교 연구의 초석을 제공한다. 영국의 참여설문은 그 목적 중 하나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여가 어떠한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에 대한 기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표개발은 전국 단위의 비교연구도 가능하게 하지만, 국가 간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국 사례를 다양한 공간적 맥락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하다.

2. 지역별, 세대별 현황 파악과 맞춤형 정책 형성

가. 지역별 현황 분석과 정책 활용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매우 빠르면서도 근본적으로 개인 간 그리고 개인과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의 방식과 강도, 지속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등 새로운 가구형태의 등장과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대면 상호작용의 감소 등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근원적 가치를 다루는 인문학, 인문정신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들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문정신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공적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보편적이고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과 기획들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은 해당 개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수도권을 포함한 특정 지역의 경우 인문정신문화와 관련된 서비스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이외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지역 간 경제적 편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지역의 지리적 요건, 인구사회적 구성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역 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정책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간 차이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들은 지표개발을 통해서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인문화지표, 유럽연합의 지역혁신지수, 캐나다의 주별 문화지표, 영국의 참여설문, 싱가포르의 '예술이 이웃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과 그 영향을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여 지역 간 비교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지역예술지수는 가장 세부적인 군(county) 단위에서 지표를 측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역시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이 발생하는 노드(node)를 기본단위로 비교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혁신지수는 240여 개 지역 간 혁신시스템 실행을 비교하여, 지표 평가에 근거하여 4개의 그룹을 나눔으로써 지역 간 편차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나. 세대별 차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인문정신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세대별 차이이다. 먼저, 세대별로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매우 다르다. 젊은 세대의 경우, 이동성이 높아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반면, 노년층의 경우, 낮은 이동성으로 인해 비록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 반면, 여가시간 활용의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는데, 동일한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경제활동이 활발한 청장년 세대의 경우 여가시간의 소극적 활용으로 인해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에 잘 접근하지 못하는 반면, 은퇴 후 여가시간이 풍부한 노년 세대의 경우,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접근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 또 다른 변수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인문정신문화 관련 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 간의 격차(digital divide)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세대별, 개인별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노출이더라도 개인이 살아가는 인생 중 어느 시점

에 발생하였는지가 한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접근이 생애주기 상 어느 시점에서든 동일한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참여설문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참여설문의 경우 2005년 최초 실시되었을 때는 16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듬해부터는 11~15세 청소년을 포함하였고, 이후 그 범위를 5~10세의 어린이까지 확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접한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성년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문학지표 및 일본의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자녀의 문화예술 체험 여부가 중요한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세대가 인문정신문화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인문정신문화 관련 경험에 얼마나 노출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세대별 차이와 시간적 추이를 객관적이고 일관된 지표로 확인하는 것은 장기적 인문예술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노년층을 비롯한 국민의 삶의 질, 복지, 정신건강에 인문정신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과 맞물려 이러한 세대별 차이를 포착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인문지표 개발 및 지수화 방안 연구

제3장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개발

제1절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방향

1.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지표 검토

가. 인문 지표개발 및 지수측정을 위한 기초연구(2017) 조사

선행된 본 조사에서는 인문 지표개발 및 지수측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위해 습득실태, 나눔실태, 활용실태, 인문정신문화 인식 및 역량강화 지표로 구성하였다.

습득실태는 인문습득 활동 유형, 독서량, 독서분야, 독서 동반자, 인문관련 온·오프라인 참여여부, 참여빈도, 보완점, 문화예술활동 관람여부, 관람 프로그램, 업무도움 여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나눔실태는 인문관련 나눔활동 여부, 동호회활동 참여여부, 참여빈도, 재능기부활동의 참여여부 및 참여빈도, 정보교류활동 참여여부, 참여빈도로 설정되었다. 활용실태는 업무적 활용여부, 업무활용에 도움 된 습득활동, 업무 외적 활용여부로 구성되었다.

인문정신문화 인식 및 역량강화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범위, 인문정신문화 수준, 인문정신문화 필요 측면, 소양을 기르는 방법, 사서교육의 보완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사구분은 사서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과 전문인력 대상의 실태조사를 위해 확장된 지표 및 문항 설정이 필요했으며, 인문정신문화의 인식도, 정부지원 만족도 및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보완되어야 했다.

습득실태와 나눔 및 활용실태 지표는 인문정신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용한 지표이지만, 보다 더 세부적인 인식도, 정부지원 만족도 및 발전방향 지표에 따른 문항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지표는 사서 중심으로 설정된바, 일반국민과 전문인력 대상의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를 위해 더 확장된 의미의 지표 및 설문문항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사회변화에 따라 인문정신문화 습득의 유형 및 형태, 시간대, 습득을 위해 문화기반 시설별 이용 빈도 등 문항 설정이 보완되어야 했다.

〈표 3-1〉 인문 지표개발 및 지수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조사항목

구분	설문 항목
1. 습득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습득 활동 • 독서량(일반도서, 전자책) • 업무 관련 독서량(일반도서, 전자책) • 독서분야(일반도서, 전자책) • 독서 동반자 • 인문관련 온오프라인프로그램 참여여부 • 인문관련 온오프라인프로그램 참여빈도 • 인문관련 온오프라인프로그램 보완점 • 문화예술활동 직접 관람 여부 • 문화예술활동 직접 관람 프로그램 • 문화예술활동 직접 관람 업무도움여부 • 온라인문화예술활동 관람 여부 • 온라인문화예술활동 관람 프로그램 • 온라인문화예술활동 관람 업무도움여부
2. 나눔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관련 나눔활동 여부 • 동호회활동 참여여부 • 동호회활동 참여빈도 • 재능기부활동 참여여부 • 재능기부활동 참여빈도 • 정보교류활동 참여여부 • 정보교류활동 참여빈도
3. 활용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적 활용 여부 • 업무활용에 도움 된 습득활동 • 업무 외적 활용여부
4. 인문정신문화 인식 및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범위 • 인문정신문화 수준 • 일반시민보다 자신의 강점 • 매개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직군 • 인문정신문화 필요 측면 • 인문정신문화 소양을 기르는 방법 • 사서교육의 보완점 • 사서업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받고 싶은 교육 • 사서 연구모임 참여여부 • 인문정신문화 정책 필요성

나.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항목 구성(2018)

〈표 3-2〉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2018) 조사 항목

범주	세부 지표 항목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정신문화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이해도 •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수준 정도 •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개인)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필요 정도 • 인문정신문화의 의식수준 정도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중요한 이유와 한계점
인문정신문화 정책 만족도 및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정신문화 지원정책 만족도 • 인문관련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점 • 인문프로그램 발전 방향
인문정신문화 습득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관련 프로그램 참여여부 • 인문관련 프로그램의 인식경로/참여유형/참여분야 • 인문관련 프로그램 수강 방법(방문시설/수강시간대/대중매체) • 인문관련 프로그램 수강 시 고려사항 • 인문 프로그램 한 달간 평균 참여 횟수 • 1년간 참여한 강좌 수 • 1년간 참여한 강좌 월평균 수강료 • 인문 프로그램 동반자 •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요인
인문정신문화 나눔 및 활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 인문 프로그램의 효과성 • 습득한 인문 활동 및 지식 활용여부(나눔활동 유형/활용 계기/미참여 이유)

2018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항목은 크게 4부문으로,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인식, 정책 만족도 및 발전방향, 습득실태, 나눔 및 활용 실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인문정신문화 인식 조사 항목은 인문정신문화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이해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수준 정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필요 정도, 인문정신문화의 의식수준 정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중요한 이유와 한계점으로 구성되었다. 인문정신문화 정책 만족도 및 발전방향 항목은 인문정신문화 지원정책 만족도, 인문관련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점, 인문 프로그램 발전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인문정신문화 습득실태는 인문관련 프로그램 참여여부, 인식경로/참여유형/참여분야, 수강방법(방문시설/수강시간대/대중매체), 프로그램 수강 시 고려사항, 한 달간 평균 참

여 횡수, 1년간 참여한 강좌 수, 1년간 참여한 강좌 월평균 수강료, 인문 프로그램 동반자,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인문정신문화 나눔 및 활용 실태 항목은 인문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점, 인문 프로그램의 효과성, 습득한 인문 활동 및 지식 활용 여부로 이루어졌다.

다. 공공분야 인문프로그램 보고서(2018)

공공분야 인문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바, 정책 실태를 파악하고 인문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인문관련 기초통계, 세부 실태조사 등이 풍부하지 않기에 인문영역의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재까지 수행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향 설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과 인문 수요증대로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88만 명이 참여하며 사업규모가 증가했지만, 일부 사업의 중복문제 및 유사형태로의 편향성이 확인되고 있어 현장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인문진흥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바, 향후 지역맞춤형 및 수요 대응형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현상(現狀) 분석에 따른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였다. 인문진흥정책이 단순히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성과가 사회 속에서 공유·확산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책 효과 및 관련 활동성과를 가늠해 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였다. 실증적인 진단을 기초로 하여 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마련 및 전체적인 수준과 역량을 평가하고,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유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및 특화프로그램 기획을 분명히 설정하여 운영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인문사업과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비판적이고 발전적인 검토 위에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인문사업의 지속성 확대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체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객관적인 현장평가를 토대로 그동안의 양적 성과 확대에 상응한 질적 성과 제고 및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도출·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인문정책이 어떠한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며 어떤 요소들이 우선시되고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인문커리큘럼이 개발되도록 체계적인 전략 및 발전방안을 제
안하고자 하였다. 공공분야 인문프로그램 현황조사는 크게 운영현황, 운영계획 및 정부
지원방안, 기관현황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3〉 공공분야 인문프로그램 현황조사(2018) 조사 항목

조사 지표	세부 항목
개설 목적	- 인문 프로그램 운영 목적 - 인문 프로그램 개설 요인
세부 운영현황	- 운영 시작 연도 - 인문 프로그램 당 유형 - 인문 프로그램 당 세부 분야 - 인문 프로그램 당 회당시간 - 인문 프로그램 당 운영횟수 - 인문 프로그램 당 운영시간 - 인문 프로그램 당 수강대상 - 인문 프로그램 당 수강인원 - 인문 프로그램 당 소요예산 - 인문 프로그램 당 예산구성 - 인문 프로그램 당 지원기관 - 인문 프로그램 당 지원예산
운영 및 관리 방법	- 인문 프로그램 수강생 홍보·모집 - 인문 프로그램 강사 및 운영인력 모집 - 인문 프로그램 담당 직원의 전문교육 여부
문제점 및 개선 시 중요사항	- 인문 프로그램 개선·변경 시 중요사항 -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시 문제점
평가여부 및 만족도	- 인문 프로그램 만족도(공급자 측면) - 인문 프로그램 평가 여부 및 활용
향후 운영계획	- 인문 프로그램 운영 확대 여부 - 인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대책 - 강화하고 싶은 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
정부지원 방안	-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정부 지원 사항
발전방향	- 인문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기타사항	- 기관명 - 기관유형 및 구분 - 운영형태 - 기관 소재지 및 규모 - 인문 프로그램 운영 투입 총사자

공공분야 인문프로그램 현황조사는 크게 운영현황, 운영계획 및 정부지원방안, 기관
현황으로 구성되며, 운영현황 문항은 다음과 같다. 개설목적은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 목
적과 개설 요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 운영현황으로는 운영 시작 연도, 인문 프로그램당 유형, 세부 분야, 회당시간, 운영횟수, 운영시간, 수강대상, 수강인원, 소요예산, 예산구성, 지원기관, 지원예산으로 구성된다. 운영 및 관리 방법에는 인문 프로그램 수강생 홍보·모집, 강사 및 운영인력 모집, 담당 직원의 전문교육 여부 문항이 들어 있다.

문제점 및 개선 시 중요사항은 인문 프로그램 개선·변경 시 중요사항, 운영 시 문제점으로 구성된다. 평가여부 및 만족도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자체 인문 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가 여부와 활용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영계획 및 정부지원방안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향후 운영계획은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 확대 여부,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대책, 강화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유형과 세부 분야 문항으로 구성된다. 정부지원방안은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정부 지원 사항 문항 및 인문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기관현황 문항에는 기관명, 기관유형 및 구분, 운영형태, 기관 소재지 및 규모, 인문 프로그램 운영 투입 종사자가 서술되어 있다.

라.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항목 구성(2021)

2021년 인문학 진흥 국민인식조사 일반국민 조사는 ‘인문 관련 인식 현황’, ‘인문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실태’, ‘인문 관련 프로그램 향후 참여 의향’, ‘인문 관련 발전 방향’의 4개 부문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① 인문 관련 인식 현황

〈표 3-4〉 인문 관련 인식 현황 조사내용

항목
- [인문학법]의 제정 및 시행 인지 여부
- 인문정신문화의 의미에 대한 이해 용이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삶의 질 향상’ 역할에 대한 인식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중요한 이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확산의 한계점
- 정부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

세부 항목 문항으로는 인문학법 관련 인지여부, 인문정신문화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인문이 학문, 기술환경, 문화예술분야, 일상 및 사회분야, 여가활동분야에 미치는 영향 관계, 인문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역할, 인문이 중요한 이유, 인문 정책 확산의 어려운 점, 정부의 인문 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② 인문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실태

〈표 3-5〉 인문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실태 조사내용

항목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방법
- 참여한 프로그램 분야
- 프로그램 참여 장소
- 교육 장소 이동 수단 및 시간
- 인문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간대
- 인문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 요인
- 1년간 인문 관련 프로그램 참여 횟수
- 인문 활동 및 지식 습득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
- 인문 관련 프로그램을 접하는 시간대
- 참여한 인문 관련 프로그램 만족도
- 1년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습득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

세부 항목으로는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방법, 참여한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참여 장소, 교육 장소에 이르는 이동 시간, 인문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간대,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 요인, 1년간 인문 관련 프로그램 참여 횟수, 인문 활동 및 지식 습득을 위한 이용 매체, 참여한 인문 관련 프로그램 만족도, 연간 인문 습득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③ 인문 관련 프로그램 향후 참여 의향

〈표 3-6〉 인문 관련 프로그램 향후 참여 의향 조사내용

항목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방법
- 향후 참여 희망 프로그램 분야

세부 프로그램 향후 참여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직접참여와 매체활동으로 크게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직접참여에서는 대면/비대면 커뮤니티·모임·동아리 활동, 강의 및 강좌, 탐방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학술행사, 기타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매체활동과 관련되어 TV·컴퓨터 등 영상매체 인문콘텐츠 시청, 라디오·팟캐스트·음반 등 음성매체 인문 콘텐츠 청취, 인터넷·SNS·유튜브 등 뉴미디어 활용 인문콘텐츠 시청, 전자책 및 디지털 자료(인포그래픽 등) 인문 콘텐츠 활용, MOOC·인문 OTT 등 온라인 인문학스플랫폼을 통한 학습, 독서 및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자료 학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인문 프로그램의 참여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학력에 따른 응답률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④ 인문 관련 발전 방향

〈표 3-7〉 인문 관련 발전 방향 조사내용

항목
- 인문정신문화 지원 정책 및 기반환경
-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인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및 보완점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기술, 경제, 과학 분야와 융합 필요성
- 첨단 기술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필요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융합이 필요한 콘텐츠 분야
- 코로나19 이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필요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사회 변화(open 응답)

세부 문항으로는 인문정신문화 인적·물적 지원 정책 및 시설 조성 분야 등의 기반환경,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인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및 보완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프로그램 진행에서 기술, 경제, 과학 분야와의 융합 필요성, 첨단 기술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필요성, 인문정신문화와 융합이 필요한 콘텐츠 분야(구체적으로 다큐, 예능 등 시청각영상물/영화 및 드라마/연극, 음악 등 공연물/ 웹툰 및 웹소설 등), 코로나19 이후 인문정신문화 필요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사회 변화로 구성된다.

2.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 원칙

첫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제반 여건과 사업 운영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설, 조직, 인력 등 필수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여러 연관된 문화예술 교양 프로그램과 별개로 인문정신문화 정책 프로그램이 측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교양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집계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지표가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정책 수행과 연관된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인문정신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 시설, 운영프로그램 수, 접근성 등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함께 인문정신문화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후 사회 활동과 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만족도가 아니라, 향후 사회적 영향과 개인에 미칠 영향 효과 등에 대한 측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향후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시 별도의 조사항목을 구성할 필요 없이 관련 현황 실태가 파악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관련하여 시기마다 일부 수정될 수 있는 지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로 파악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여섯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지표의 세분화를 추구하여야 하지만, 조사의 용이성을 항상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사항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세분화되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표 사항에 대한 자료를 기입하는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조사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지표가 세분화되어 많은 시간이 들게 된다면, 전체적인 현황 조사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3.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 조사 개요

본 보고서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지표 구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델파이 조사와 AHP 분석을 시도하였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가. 전문가 자문회의

〈표 3-8〉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대상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 실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오지은 서울도서관 관장	장진성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전 경기대 교수)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	백원근 책과사회문화 연구소장 송경희 행복한 상상(주) 대표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주희 ㈜입소 대표	오길주 경민대학교 아동독서지도과 교수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고영직 문화평론가 정중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최해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희 행복한 상상(주) 대표
내용	지수화필요성 인문정신문화조사실태 및 어려움 구성지표에 대한 의견 지표조사에 대한 의견	지수 구성방식 조사진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 인문프로그램 관련 지자체 상황 조사방식 인문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사항	측정지표에 대한 의견 정책지표 구성에 대한 의견	수정지표안에 대한 의견 측정지표에 대한 의견 정책지표 구성에 대한 의견	최종지표안 검토의견
일시	2022년 4월 14일	2022년 4월 29일	2022년 8월 3일	2022년 8월 10일	2022 9월 20일

과제 수행을 위해 총 5차에 걸쳐 대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와 2차 자문회의는 정책지표 구성과 지수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지표 구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정책지표 초안 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였다. 3차와 4차 자문회의에서는 인문정책지표 구성안의 수정과 측정 지표 구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인문정책지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지표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 5차의 경우는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자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지표 안에 대하여 최종검토의견을 구하였다.

나. DHP(Delphi Hierarchy Process) 분석

본 보고서에서는 델파이 조사에 이어 AHP 분석을 통하여 가중치를 구하고 이후 지수를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DHP(Delphi Hierarchy Process) 분석 기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다기준 의사결정 모형에 개입되는 주관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조직의 목적과 그 목적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고안되었다.⁴⁶⁾

본 보고서의 델파이 조사와 AHP 분석은 200여 명의 인문분야 전문가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74명이 응답하였고, 제2차 델파이 조사와 AHP 분석에서는 37명이 응답하였다.

델파이 제1차 조사에서는 인문정신문화정책 사업의 방향성, 인문정신문화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 인문 정책지표 설정, 지수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제1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조사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다만 델파이 조사와 AHP 분석은 연구일정 상 최종 지표로 진행하지 못하고 최종 지표 이전 수정지표안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지표가 확정되고 지수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AHP 분석으로 추가 진행하여 지수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46) Khorramshahgol, R., & Moustakis, V. S. (1988). Delphic hierarchy process (DHP): A methodology for priority setting derived from the Delphi method and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37(3), 347-354.

〈표 3-9〉 델파이 조사 시행 지표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문자본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수립여부 (정책수립) -인문관련조례제정 및 입안 (정책실행) -정부지원정도: 예산대비 인문정책예산비율 (정책예산)
	시설/조직/인력 인문학습 지원 인문 접근성	-사업운영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수 -인문관련 전담조직 보유, 관리인력(정규직)확보 -인문프로그램 강좌개발, 인문 운영 사업 수 -인문습득 장소의 접근성
인문정책	참여기회 참여율 참여이수	-프로그램(온라인, 오프라인) 참여 강좌 수 -프로그램 유형 수 -인문 프로그램 참여자 수 -프로그램 운영 일수
	동아리활동 사회참여도 사회적 상호작용	-지역 인문관련 동아리(모임) 수 -인문관련 사회참여활동 및 봉사활동 월평균빈도/시간 -참여이후 변화: 지역사회참여증가율, 문화기반시설 이용시간의 퍼센트
인문성과	여건만족도 참여만족도 활동만족도 시민의식증진	-예산대비 인문관련 집행률 -인문지원 만족도 -인문참여 만족도 -인문활동 만족도 -시민의식 증진

제2절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안

1.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 과정

가.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초안 구성

〈표 3-10〉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초안

대분류	중분류	지표
인문자본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수립 여부 • 인문관련조례제정 및 입안 • 정부지원정도: 예산대비 인문정책예산비율
	시설/조직/인력 인문학습 지원 인문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수 • 인문관련 전담조직 보유, 관리인력(정규직)확보 • 인문프로그램 강좌개발, 인문 운영 사업 수 • 인문습득 장소의 접근성
인문정책	참여기회 참여율 참여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온라인, 오프라인) 참여 강좌 수 • 프로그램 유형 수 • 인문 프로그램 참여자 수 • 프로그램 운영 일수
	동아리활동 사회참여도 사회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인문관련 동아리(모임) 수 • 인문관련 사회참여활동 및 봉사활동 월평균빈도/시간 • 참여이후 변화: 지역사회참여증가율, 문화기반시설 이용시간의 퍼센트
인문성과	여건만족도 참여만족도 활동만족도 시민의식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대비 인문관련 집행률 • 인문지원 만족도 • 인문참여 만족도 • 인문활동 만족도 • 시민의식 증진

본 연구의 진행 초기 지표 구성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먼저 지표 구성 초안을 만들었다. 제1차와 2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를 거쳐 인문정신문화정책 지수도출을 위한 지표초안을 구성하였다. 지표 구성의 일차적인 목적을 지역 기초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인문관련 정책 사업들의 현황을 확인하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편차, 그리고 비수도권 간 인문사업의 격차를 줄이는 종합적인 인문지원 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인문정책의 지수화 연구는 좋은 시도이나,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로서 기능을 하기보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문정책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기준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문정책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항목보다는 정책 목적에 맞는 방향성을 연계해서 보이는 지표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는 가능한 지표 내용을 단순하게 구성하고 분류 간에 논리성이 중요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소분류에서 측정이 어려운 항목은 배척하고 정책의 실행목적이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문정책을 확산하는 정책기준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도출하고자 했다. 지표조사 항목은 3개 대분류, 5개 중분류에 19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대분류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구체적으로 인문정신문화정책의 인문 자본, 인문 정책, 인문 성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지표문항 체계는 아래와 같다.

인문 자본의 중분류 조사 항목은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그리고 시설/조직/인력, 인문학습지원, 인문접근성으로 분류되었다. 인문 정책의 중분류 조사 항목은 참여기회, 참여율, 참여이수 그리고 동아리활동, 사회참여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포함되었다. 인문 성과의 중분류 조사 항목은 여건 만족도, 참여 만족도, 활동 만족도 및 시민의식증진이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소분류의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정책수립 항목에는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 수립여부, 정책실행 항목에는 인문관련 조례 제정 및 입안, 정책예산 항목에는 정부지원정도로 예산대비 인문정책예산 비율을 지표화하였다. 시설/조직/인력 항목에는 사업운영 문화기반시설 수와 인문관련 전담조직 보유 및 관리인력(정규직) 확보, 인문학습 지원 항목에는 인문프로그램 강좌개발, 인문 운영 사업 수, 인문접근성 항목에는 인문습득 장소의 접근성을 배치하였다. 참여기회, 참여율, 참여이수 항목에는 프로그램(온라인, 오프라인) 참여 강좌 수, 프로그램 유형 수, 인문 프로그램 참여자 수, 프로그램 운영 일수를 세부지표로 설정하였다. 동아리 활동 항목에는 지역 인문관련 동아리(모임) 수, 사회참여도 항목에는 인문관련 사회참여활동 및 봉사활동 월평균빈도/시간, 사회적 상호작용 항목에는 참여이후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참여 증가율, 문화기반시설 이용시간의 퍼센트를 구성하였다. 여건 만족도 항목에는 예산대비 인문관련 집행률과

인문지원 만족도, 참여 만족도 항목에는 인문참여 만족도, 활동 만족도 항목에는 인문활동 만족도, 시민의식증진 항목에는 시민의식 증진을 세부지표에 포함하였다.

나. 1차 조사 및 의견반영에 따른 수정안

1) 지표 구성에 대한 의견

인문정책이라는 대분류 항목은 인문자본 안에 정책실행, 정책예산이 있는 내용 구성으로 이름 변경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인문정책 용어 대신에 인문참여 항목으로 수정 교체되었다. 인문정책 지표항목에서 세부사항으로 실적 위주의 내용 편성보다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이 보다 요구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인문자본 항목에서 자본의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인문생태(계)'라는 용어가 평가지표를 고려할 때 더 적절해 보인다는 권고사항이 주어졌다. 현 평가지표 내 이질적인 항목들이 혼재되어 있기에, 추후 관련 측정지표의 세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인문성과 항목에서 중분류 '시민의식 증진'이라는 표현이 막연해 보이며,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시민의식 증진' 세부지표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어렵기에, 해당 분류를 삭제하고 양적인 측정이 아닌 질적인 측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참여 시민들이 실제 삶에 있어 어느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본 항목을 수정하였다. 인문성과 내 다른 항목과의 통합을 시도하여, 만족도와 시민의식 증진 효과를 연계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성과 지표와 관련하여 단순히 만족도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전후 우울증 자가 진단 점수 비교 항목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객관적인 조사지표가 시계열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는지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1차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인문정책 평가지표에 관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지표를 아래와 같이 조성하여 구성하였다.

〈표 3-11〉 1차 수정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 조정안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인문자본	정책수립	인문자본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실행
	정책예산		정책예산
	시설		시설
	조직		조직
	인력		인력
인문정책	인문학습 지원	인문참여	인문학습 지원
	인문접근성		인문접근성
	참여기회		참여기회, 참여율
	참여율		동아리활동
	참여이수		사회참여도
	동아리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인문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인문성과	참여만족도
	참여만족도		활동만족도
	활동만족도		여건만족도
	여건만족도		여건만족도

2) 측정지표에 대한 의견

중분류의 정책예산 항목에는 기존 예산대비 인문정책 예산비율에서 중앙정부 기획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를 추가 설정하였다. 조직 항목에는 당초 인문관련 전담조직 보유에서 지역별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로 변경하였다.

인력 항목에는 인문관련 관리인력(정규직) 확보에서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증감률을 추가하였다. 인문접근성 항목에는 당초 인문습득 장소의 접근성에서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및 인구단위(십만 명)로 환산한 문화기반시설수로 교체하였다. 인문학습 지원 항목에는 인문프로그램 강좌개발, 인문 운영 사업 수 및 도서관 1관당 정규직원 현황에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현황을 추가 배치하였다.

참여기회, 참여율 항목의 경우 소분류에서 선행된 일단 측정 가능한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전문가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온라인, 오프라인) 참여 강좌 수, 프로그램 유형 수, 인문 프로그램 참여자 수, 프로그램 운영 일수에서 시도별 1관당 이용자 교육현황(교육횟수, 참가자 수, 교육시간), 시도별 1관당 문화 및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수, 참가자 수)으로 변경하였다. 사회참여도 항목에는 인문관련 사회참여활동 및 봉사활동 월평균빈도/시간에서 지자체별 사회단체 참여율로 교체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항목에는 지역사회참여증가율이라는 세부항목은 특히 정량화하기에 무척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프로그램 수, 운영횟수, 참여자 수, 예산 등 계량화된 수치 외에 참여자 및 담당자 개별 인터뷰 등 질적 성과에 대한 반영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당초 지역사회참여증가율, 문화기반시설 이용시간의 퍼센트에서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로 참여이후 변화인식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배치하였다.

인문 사업프로그램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인문성과는 거의 만족도만으로 평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소 애매해 보이기에 소분류의 수정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참여만족도 항목에는 인문참여만족도 대신에 삶의 만족도로 변경하였으며, 활동만족도 항목에는 인문활동 만족도에서 여가활용 만족도(e지방지표) 및 여가만족도(생활시간조사)로 교체하였다. 여건만족도 항목에는 예산대비 인문관련 집행률, 인문지원 만족도에서 지역별 여가시간으로 수정 제시하였다.

〈표 3-12〉 1차 수정 지표 항목 조정안

중분류	지표	중분류	지표
정책수립	인문관련조례제정 및 입안	정책수립	인문관련 조례제정 여부
정책실행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수립여부	정책실행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수립여부
정책예산	정부지원정도: 예산대비 인문정책예산비율 (정책예산)	정책예산	중앙정부 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예산대비 인문정책예산비율
시설	사업운영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수	시설	사업운영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수
조직	인문관련 전담조직 보유	조직	지역별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
인력	관리인력(정규직)확보	인력	인문관련 전담조직 보유, 관리인력(정규직)확보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 직 증감률
인문학습 지원	인문프로그램 강화개발, 인문 운영 사업 수	인문학습 지원	인문프로그램 강화개발, 인문 운영 사업 수 도서관 1관당 정규직원 현황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현황
인문접근성	인문습득 장소의 접근성	인문접근성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단위(십만 명)로 환산한 문화기반시설 수
참여기회 참여율 참여이수	프로그램(온라인, 오프라인) 참여 강좌 수 프로그램 유형수 인문 프로그램 참여자 수 프로그램 운영 일수	참여기회 참여율	시도별 1관당 이용자 교육현황 (교육횟수, 참가자 수, 교육시간) 시도별 1관당 문화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수, 참가자 수)
동아리활동	지역 인문관련동아리(모임) 수	동아리활동	지역도서관 인문관련 동아리(모임) 수
사회참여도	인문관련 사회참여활동 및 봉사활동 월평균빈도/시간	사회참여도	지자체별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이후 변화: 지역사회참여증가율, 문화기반시설 이용시간의 퍼센트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이후 변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참여이후 변화인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참여만족도	인문참여만족도	참여만족도	삶의 만족도
활동만족도	인문활동만족도	활동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e지방지표) 여가만족도(생활시간조사)
여건만족도	예산대비 인문관련 집행률 인문지원 만족도	여건만족도	지역별 여가시간
시민의식 증진	시민의식증진		

다. 2차 조사 및 의견반영에 따른 수정안

1) 지표 구성에 대한 의견

앞선 대분류인 인문자본과 인문참여의 관계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중분류를 보면,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과 함께 인문학습 지원 및 접근성 평가가 대분류 인문자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대분류의 세부 항목을 나누거나 중분류의 관계 설정이 요구된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대분류 구성에서 ‘인문자본’보다는 ‘인문자원’이, ‘인문성과’보다는 ‘인문효과’가 보다 더 인문학적 취지를 담은 용어로 제시되었다. ‘자본’은 말 그대로 경제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 보다 인문학적이며 동시에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자원’이라는 단어를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문자본’ 항목 내 세부지표들이 너무 많고, ‘인문성과’ 항목은 참여자만족도 위주로 배치되어 비대칭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문자본’ 항목에서 ‘시설’, ‘조직’, ‘인력’이 한 부분으로, ‘정책 수립’, ‘정책 실행’, ‘정책 예산’은 정책여건으로 따로 구분하고, ‘인문학습 지원’ 항목과 별도 구성이 추천되었다.

‘인문성과’라는 표현은 ‘인문’과 ‘성과’가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부자연스러울뿐더러, ‘만족도’나 ‘의식’과 같은 세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를 ‘성과’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지 의문이 있었다. ‘성과’라는 표현이 인문학적 소양 축적 및 정식 확산이라기보다는 결과를 강조한다는 느낌이므로 ‘효과’와 같은 보다 중립적인 용어가 적합함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대분류에서 ‘인문자본’ 항목이 ‘인문환경’, ‘인문기반’, ‘인문지원’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지표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인문성과’ 항목도 성과의 부정적 의미성을 줄 수 있기에, ‘인문효과’로 대체되었다.

중분류는 대체로 적절하나, 지표가 양적 평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질적 평가 부분이 세부지표로 보다 보완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참여율, 참여일 수, 참가자 수 등의 양적 평가보다 사회 참여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등 질적 평가를 보다 우선으로 두어야 하며,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측정 방법도 수정,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문정신문화정책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표가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인문정책사업의 수동적 참여보다는 인문활동 등 참여자 주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용어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문참여’ 용어를 ‘인문향유’로 변경하여 구성하였다.

종합적으로, 수정된 지표조사 항목은 5개 대분류, 19개 중분류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대분류는 크게 다섯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구체적으로 인문환경, 인문기반, 인문지원, 인문향유, 인문효과로 정리하였다. 2차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인문정책 평가지표에 관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지표를 아래와 같이 조성하여 구성하였다.

〈표 3-13〉 2차 수정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 조정안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인문자본	정책수립	인문환경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실행	
	정책예산		정책예산	
	인문참여	시설	인문기반	인프라
		조직		정보화
		인력		조직, 인력
		인문학습 지원	인문지원	인문사업 운영의 적절성
인문접근성	인문학습 지원			
인문성과	참여기회, 참여율	인문향유	인문공간 접근성	
	동아리활동		참여기회 및 다양화	
	사회참여도		동아리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인문성과	참여만족도	인문효과	참여만족도	
	활동만족도		활동만족도	
	여건만족도		여건만족도	

2) 측정지표에 대한 의견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에서 지표설정 방향에서 ‘시설/조직/인력 지표 선정’(평균 70.9점)이 가장 높았으며,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지표 선정’(평균 68.2점), ‘인문학습지원체계 지표 선정’, ‘인문자본 측정에 인문접근성 지표 선정’(각 평균 6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인문자본’ 항목에서 세분화된 ‘인문기반’ 항목에서 ‘인문시설’ 용어는 사회자본의 의미가 내포된 ‘인프라’로 변경되었다. ‘조직’과 ‘인력’ 항목은 ‘조직, 인력’으로 통합되었고 소분류 내용으로 지역별 인문관련 담당 행정인력 구성, 관리인력(정규직)확보 그리고 인문 관련 전문가 운영 및 강사풀 인력 구축으로 축약 구성되었다. 그리고 중분류에서 ‘정보화’ 항목을 새로이 구성하여 대면 사업운영뿐만 아니라 인문정책 관련 정보

운영 페이지뷰 및 접속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화된 '인문자원' 항목에서 중분류 '인문접근성'은 소분류 내용이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단위(십만 명)로 환산한 문화기반시설 수'에서 구체성을 강화하여 '인문교육 강연 및 행사프로그램의 접근성, 편이성'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인문학습지원'은 소분류 내용에서 '인문프로그램 강좌개발, 인문 운영 사업 수, 도서관 1관당 정규 직원 현황' 및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현황'에서 '인문프로그램 강좌 및 인문 행사운영 사업 수, 운영일수'로 정리되었다. 또한, 투입요소 중 인문프로그램 운영전문가(운영자) - 강좌전문가(강사)에 대한 인력풀에 대한 지표가 꼭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인문사업 운영의 적절성' 항목을 중분류에 삽입하여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대상, 주제, 프로그램 풀)을 구성하였다.

중분류 '인문향유' 항목에서 '참여기회, 참여율'의 소분류 세부 내용이 '시도별 1관당 이용자 교육현황'(교육횟수, 참가자 수, 교육시간) 및 '시도별 1관당 문화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수, 참가자 수)에서 '시도별 1관당 인문범주 프로그램당 참여자 수' 및 '시도별 1관당 인문 이용자 취약계층 참여 비율'로 변경되었다. '동아리 활동' 및 '사회참여도' 항목은 '동아리 활동'으로 통합되었고, 세부 내용으로 지역 문화기반시설 인문관련 동아리(모임) 활동단체 수 및 권역별 지역단위 인문사업 활동 인력 수로 구성하였다.

당초 대분류 '인문성과'에서 바뀐 '인문효과' 항목은 여가란 용어가 주는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이란 개념이 시간이 있어야 인문사업이 참여한다는 부적절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으로 용어 교체가 이루어졌다. '참여만족도' 내 세부내용인 '삶의 만족도'에서 '인문사업의 참여자 만족도'로 대체하였다. '활동만족도'에서 '여가활용 만족도', '여가만족도'에서 '여가활용 만족도', '인문동호회 활동시간', '인문동호회 활동 횟수'로 구성하였다. 중분류 '여건만족도'에서 '지역별 여가시간'에서 '지역별 인문 향유 시간'으로 수정되었다.

〈표 3-14〉 2차 수정 지표 항목 조정안

중분류	지표
정책수립	인문관련 조례제정 여부
정책실행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수립여부
정책예산	중앙정부 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예산대비 인문정책예산비율
시설	사업운영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수
조직	지역별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
인력	인문관련 전담조직 보유, 관리인력(정규직)확보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 직 증감률
인문 접근성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단위(십만명)로 환산한 문화기반 시설 수
인문학습 지원	인문프로그램 강좌개발, 인문 운영 사업 수
	도서관 1관당 정규직원 현황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현황
참여기회 참여율	시도별 1관당 이용자 교육현황(교육 횟수, 참가자수, 교육시간)
	시도별 1관당 문화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수, 참가자 수)
동아리 활동	지역 도서관 인문관련 동아리(모임) 수
사회 참여도	지자체별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이후 변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참여이후 변화인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참여 만족도	삶의 만족도
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만족도
여건 만족도	지역별 여가시간

중분류	지표
정책수립	인문정책 관련 법률조례제정 여부
정책실행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수립여부
정책예산	중앙정부 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예산대비 인문정책예산비율
인프라	인문사업운영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수
정보화	인문정책 관련 정보 운영 페이지부 및 접속현황
조직, 인력	지역별 인문관련 담당 행정인력 구성, 관리인력(정규직)확보
	인문 관련 전문가 운영 및 강사풀 인력 구축
인문사업 운영의 적절성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대상, 주제, 프로그램 풀)
인문학습 지원	인문프로그램 강좌 및 인문 행사운영 사업수, 운영일수
인문공간 접근성	인문교육 강연 및 행사프로그램의 접근성, 편이성
참여기회 및 다양화	시도별 1관당 인문범주 프로그램당 참여자 수
	시도별 1관당 인문 이용자 취약계층 참여 비율
동아리활동	지역 문화기반시설 인문관련 동아리(모임) 활동단체 수 권역별 지역단위 인문사업 활동 인력 수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참여이후 변화인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참여만족도	인문사업의 참여자 만족도
활동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인문동호회 활동시간 인문동호회 활동 횟수
여건만족도	지역별 인문 향유 시간



라. 인문정책지수 평가지표 의견반영 최종안 구성

1) 지표 구성에 대한 의견

인문정책 평가지표항목은 5개 대분류 및 15개 중분류도 유지,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분류에서 ‘인문향유’ 항목이 ‘인문참여’로 수정되었다. 전문가 자문에서 향유 용어가 주는 흥밋거리를 누린다는 의미가 삶의 성찰을 습득, 교육하려는 인문정책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대분류 ‘인문지원’이 ‘인문자원’ 항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분류 내 중분류 항목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대분류 ‘인문기반’ 항목에서 중분류 ‘정보화’ 항목이 대분류 ‘인문자원’ 항목으로 이동되었다. 반면 대분류 ‘인문지원’의 중분류 ‘인문공간 접근성’ 항목이 ‘인문기반’ 항목으로 편입되었으며, ‘공간’이란 명칭도 인문활동의 한계를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인문정보 접근성’으로 정리하였다.

대분류 ‘인문참여’에서 ‘동아리활동’이 ‘단체·모임 활동참여’로 바뀌었다. ‘동아리’ 용어가 주는 의미가 인문정책에 제한적인 범위만을 주기에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생활문화사업 같은 지역단위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기에 ‘단체, 모임 활동참여’로 새로이 구성하였다. 중분류 ‘사회적 상호작용’은 대분류 ‘인문참여’ 내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표 3-15〉 3차 수정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 조정안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인문환경	정책수립	인문환경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실행
	정책예산		정책예산
인문기반	인프라	인문기반	인프라
	정보화		활동여건
	조직, 인력		인력여건
인문지원	인문사업 운영의 적절성	인문자원	인문사업 운영
	인문학습 지원		인문학습 지원
	인문공간 접근성		인문정보 접근성
인문향유	참여기회 및 다양화	인문참여	참여기회
	동아리활동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
	사회적 상호작용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
인문효과	참여만족도	인문효과	참여만족도
	활동만족도		지원만족도
	여건만족도		여건만족도

2) 측정지표에 대한 의견

이전 대분류 '인문지원' 내 중분류 '인문사업 운영의 적절성' 항목은 '인문사업운영'으로 바뀌었고, 세부내용도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대상, 주제, 프로그램 풀)에서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로 수정되었다.

중분류 '인문학습지원' 항목에서 세부 내용에 앞서 '인문프로그램 강좌 및 인문 행사운영 사업 수', '운영일수'에서 '인문프로그램 운영 수' 및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으로 변경하였다. 대분류 '인문지원' 항목에 '홍보 및 정보화' 세부내용을 바꾸어 배치하여 인문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습득으로 인하여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과 측정을 내는 지표도 추가되었다.

이전 대분류 '인문향유' 내 중분류 '동아리 활동' 항목은 '단체모임 활동참여'로 교체되었고, 세부내용도 인문프로그램 참가자의 동아리(모임), 자원봉사 활동단체, 사회단체 참여율로 보완되었다. 동아리 활동 등을 참여의 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동아리 개수의 단순한 합으로만 산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활동의 내용이나 활동의 결과에 따른 개인 삶의 변화 등 질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중분류 '참여만족도' 항목에서 당초 '인문사업의 참여자 만족도'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인문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로 수정되었다. 중분류 '활동만족도' 항목 내 '여가활용 만족도', '인문동호회 활동시간', '인문동호회 활동 횟수'에서 '인문사업 지원 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또한 중분류 '여건만족도' 항목에서 '인문관련 시설 공간만족도'로 대체되었다.

만족도 관련해서는 양적인 평가 외에도 심층 인터뷰를 포함해, 프로그램 이수 이전과 이후를 비교 및 평가하는 등 질적인 방식의 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안되었다. 인문정책의 측정지표들이 양적 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식의 변화, 후속 연계 활동, 공동체의 변화 등의 질적 지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3-16〉 3차 수정 지표 항목 조정안

중분류	지표	중분류	지표
정책수립	인문정책 관련 법률 조례제정 여부	정책수립	인문정책 지원을 위한 법률 조례 및 규칙 수
정책실행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수립여부	정책실행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지원사업 건수
정책예산	중앙정부 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정책예산	예산대비 인문정책 지원예산 비율
	예산대비 인문정책예산비율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인프라	인문사업운영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수	인프라	인구십만명 당 인문 관련 활동지원 기관시설 수 (자체/ 임차/ 공동)
정보화	인문정책 관련 정보 운영 페이지뷰 및 접속현황	활동여건	지역 내 인문 관련 단체협회 수
조직, 인력	지역별 인문관련 담당 행정인력 구성, 관리인력(정규직)확보	인력여건	지역별 인문 담당 인력 구성, 지원인력(정규직) 수
	인문 관련 전문가 운영 및 강사풀 인력 구축	인문사업 운영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강의/토론/ 체험/ 혼합)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
인문사업 운영의 적절성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대상, 주제, 프로그램 풀)	인문학습 지원	인문프로그램 운영 연간 소요예산
인문학습 지원	인문프로그램 강좌 및 인문 행사운영 사업 수, 운영일수	인문정보 접근성	인문 프로그램의 정보습득에 따른 참여정도
인문공간 접근성	인문교육 강연 및 행사프로그램의 접근성, 편이성	참여기회	지역별 인문 범주 프로그램 참여율
참여기회 및 다양화	시도별 1관당 인문범주 프로그램당 참여자 수	인문관련 사회활동 참여	인문사업 참가자의 동호회활동 정도, 자원봉사 참여율
	시도별 1관당 인문 이용자 취약계층 참여 비율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정도
동아리 활동	지역 문화기반시설 인문관련 동아리 (모임) 활동단체 수 권역별 지역단위 인문사업 활동 인력 수	참여 만족도	인문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양적/ 질적)만족도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참여이 후 변화인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지원 만족도	인문사업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
참여 만족도	인문사업의 참여자 만족도	여건 만족도	인문관련 시설 공간만족도(기관접근성 포함)
활동 만족도	여가활용 만족도 인문동호회 활동시간 인문동호회 활동 횟수		
여건 만족도	지역별 인문 향유 시간		

2. 단계별 인문지표의 변화 정리

1) 지표 구성에 대한 종합의견

인문정책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연구실무진 회의 등을 통해 5차례 검토되었으며 지표별로 선정, 수정, 삭제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조사항목이 5개 대분류 및 15개 중분류로 확정되었다.

대분류 ‘인문자본’ 항목에서 세분화된 ‘인문기반’ 항목에서 ‘인문시설’ 용어는 사회자본의 의미가 내포된 ‘인프라’로 변경되었다. 인문지표 초안의 ‘인문정책’ 항목 대신에 ‘인문참여’로 수정 교체하여 실적 위주의 내용 편성보다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중분류 ‘시민의식 증진’이라는 표현이 막연해 보이며,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삭제되었다. 성과와 관련하여 단순히 만족도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고려되었다.

2차안 대분류 구성에서 ‘인문자본’보다는 ‘인문자원’이, ‘인문성과’보다는 ‘인문효과’가 보다 더 인문학적 취지를 담은 용어로 제시되었다. ‘자본’은 말 그대로 경제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 보다 인문학적이며 동시에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자원’이라는 단어를 선정하였다. ‘인문성과’라는 표현은 인문학적 소양 축적 및 정식 확산이라기보다는 결과를 강조한다는 느낌이므로 ‘효과’와 같은 보다 중립적인 용어가 적합함이 제안되었다. ‘인문접근성’의 경우 시설공간의 접근성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최종 인문정보를 습득하고 참여하는 ‘인문접근 정보성’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간접근성의 경우 만족도 지표에서 조사하기로 되었다.

3차 단계에서 인문정신문화정책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표가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인문정책사업의 수동적 참여보다는 인문활동 등 참여자 주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인문향유’ 용어를 대신하여 ‘인문참여’로 배치되었다. 대분류 ‘인문참여’에서 ‘동아리활동’이 ‘단체·모임 활동참여’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동아리’ 용어가 주는 의미가 생활문화사업 같은 지역단위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기에 인문사업 평가에 보다 적합한 용어로 ‘단체, 모임 활동참여’로 새로이 변경 구성하였다.

〈표 3-17〉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대분류 및 중분류 수정내용

대분류		중분류			
초안	수정	1차안	2차안	3차안	최종안
인문 자본	인문 환경	정책수립	정책수립	정책수립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실행	정책실행	정책실행
		정책예산	정책예산	정책예산	정책예산
	인문 기반	시설	인프라	인프라	인프라
		조직	정보화	인문기관접근성	활동여건
		인력	조직, 인력	인력	인력여건
	인문 자원	—	인문사업운영의 적절성	인문사업운영	인문사업 운영
		인문학습지원	인문학습지원	인문학습지원	인문학습지원
		인문접근성	인문공간접근성	홍보 및 정보화	인문정보 접근성
인문 정책	인문 참여	참여기회, 참여율	참여기회 및 다양화	참여기회	참여기회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	단체모임 활동참여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참여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
인문 성과	인문 효과	참여만족도	참여만족도	참여만족도	참여만족도
		지원만족도	지원만족도	지원만족도	지원만족도
		여건만족도	여건만족도	여건만족도	여건만족도
		시민의식증진	—	—	—

2) 측정지표에 대한 종합의견

중분류 ‘인문학습지원’ 항목에서 세부 내용이 앞서 ‘인문프로그램 강좌 및 인문 행사운영 사업 수’와 ‘운영일수’에서 ‘인문프로그램 운영 수’ 및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으로 변경하였다. 대분류 ‘인문자원’ 항목에 ‘홍보 및 정보화’ 세부내용을 바꾸어 배치하여 인문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습득으로 인하여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추가되었다.

인력여건 항목에서 투입요소 중 인문프로그램 운영전문가(운영자) 대한 인력에 대한 지표가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지역별 인문담당 인력 수’ 및 ‘지원인력(정규직) 수’를 선정하였다. 참여기회 항목지표의 경우 ‘시설당 인문범주 프로그램당 참여자 수’와 ‘시설당 인문 이용자 취약계층 참여 비율’에서 ‘프로그램 참여율’로 변경하여 보편적인 측정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참여도 항목에는 ‘인문관련 사회참여할

동 및 봉사활동 월평균빈도/시간'에서 '지자체별 사회단체 참여율'로 교체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항목에는 '지역사회참여증가율'이라는 세부항목은 특히 정량화하기에 무척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지역 문화기반시설 이용시간의 퍼센트에 서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로 참여 이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배치하였다.

이전 대분류 '인문향유' 내 중분류 '동아리 활동' 항목은 '단체모임 활동참여'로 교체되었고, 세부내용도 인문프로그램 참가자의 동아리(모임), 자원봉사 활동단체, 사회단체 참여율로 보완되었다. 동아리 활동 등을 참여의 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동아리 개수의 단순한 합으로만 산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활동의 내용이나 활동의 결과에 따른 개인 삶의 변화 등 질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만족도 관련해서는 인문관련 사업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참여만족도' 내 세부내용인 '삶의 만족도'에서 '인문사업의 참여자 만족도'로 대체하였다. '활동만족도'는 '지원만족도'로 교체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지원정책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건만족도에서는 인문관련 시설 공간 만족도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최종 수정되었다.

〈표 3-18〉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지표 수정내용

지표	1차안	2차안	3차안	최종안
인문정책 지원을 위한 법률 조례 및 규칙 수	○	○	○	○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지원사업 건수	○	○	○	○
예산대비 인문정책 지원예산 비율	○	○	○	○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	○	○	○
인구십만 명당 인문 관련 활동지원 기관시설 수	○	○	○	○
지역 내 인문 관련 단체협회 수	—	전문예술 법인 수	인문 인력풀	○
지역별 인문 담당 인력 구성, 지원인력 수	○	○	○	○
인문접근성	○	○	○	공간만족도 통합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	○	○	○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	운영 일수	교육 시간	기회 제공	○
인문프로그램 운영 연간 소요예산	—	—	지출 총액	○

지표	1차안	2차안	3차안	최종안
인문 프로그램의 정보습득에 따른 참여정도	—	—	정보 현황	○
지역별 인문 범주 프로그램 참여율	참여자 수	참여자 수	참여자 수	○
인문사업 참가자의 동호회활동 정도, 자원봉사 참여율	동아리 수	동아리 수	○	○
인문참여가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도	참여율	참여율	변화 인식	○
인문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	삶 만족도	○	○
인문사업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	○	여가 만족도	○	○
인문관련 시설 공간만족도(기관접근성 포함)	시민의식 증진	여가 시간	○	○

3.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분류체계

앞서 살펴본 과정을 거쳐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안)를 구성하였다. 최종안을 우선 제시하고 관련 분류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소분류 측정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할 것이다.

〈표 3-19〉 인문정신문화정책 정책지표 최종안

대분류	중분류	지표
인문환경	정책수립	인문정책 지원을 위한 법률 조례 및 규칙 수
	정책실행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지원사업 건수
	정책예산	예산대비 인문정책 지원예산 비율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인문기반	인프라	인구 십만 명당 인문 관련 활동지원 기관시설 수 (자체/ 입차/ 공동)
	활동여건	지역 내 인문 관련 단체협회 수
	인력여건	지역별 인문 담당 인력 구성, 지원인력(정규직) 수
인문자원	인문사업 운영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강의/토론/ 체험/ 혼합)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
	인문학습 지원	인문프로그램 운영 연간 소요예산
인문정보 접근성	인문 프로그램의 정보습득에 따른 참여정도	
인문참여	참여기회	지역별 인문 범주 프로그램 참여율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	인문사업 참가자의 동호회활동 정도, 자원봉사 참여율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	인문참여가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도
인문효과	참여만족도	인문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양적/질적) 만족도
	지원만족도	인문사업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
	여건만족도	인문관련 시설 공간만족도(기관접근성 포함)

가. 대분류 체계

본 보고서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의 대분류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정하였다. 인문환경, 인문기반, 인문자원, 인문참여, 인문효과가 그것이다.

1) 인문환경

인문환경은 각 지자체가 인문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사회적으로 인문정신문화 관련 활동이 침체된 속에서 국민들의 인문정신문화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활용 등에 필요한 여건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기대어 있는 경우가 많다. 민간분야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문활동 환경이 인문정신문화 정책 수립에 기반한다는 측면에서 대분류로서 인문정신문화 정책 수립, 집행, 예산 정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인문진흥정책에 대한 정책 구상 및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자 한다. 중분류에서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으로 분류하여 각 세부측정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정책수립에는 인문정책 관련 법률·조례 제정 여부를 측정지표로 하였고, 정책실행에는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 수립여부를 측정지표로 삼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문정책을 수립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정책예산에서는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예산대비 인문정책 예산 비율을 넣어 관련 예산 확보에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인문기반

인문기반 부문은 인문정책 활동과 관련된 여건이 지역별로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인문환경보다 좀 더 인문정신문화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관련 단체, 관련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정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대분류이다. 인문기반이라는 대분류 하에서 중분류로서 중요 요인으로, 인프라, 단체협회 수, 기관담당 지원 인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기반시설, 활동 단체와 지원인력은 지역 주민들이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인프라는 인구 십만 명당 인문관련 활동지원 기관시설 수를 측정지표로 선정하였고,

활동여건은 지역내 인문 관련 단체협회의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있는지 파악하고, 지원인력은 지역별 인문관련 담당 인력 구성, 지원 인력 수를 지표로 삼고자 한다.

3) 인문자원

인문자원 부문은 지역주민들이 인문관련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적 요소들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기반 시설과 활동 및 인력 여건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예산 측정액,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 지역 내에서 국민들의 관련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기반 형성의 토대 위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요인들이 필요하다. 그중 핵심요인으로 인문사업 운영, 인문학습 지원, 인문정보 접근성을 설정하였다. 지역 내에 선택할 수 있는 인문관련 프로그램 수가 얼마나 되는지, 관련 운영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인문관련 프로그램의 정보를 습득에 따른 참여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지표로는 인문사업운영 부문에선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인문관련 프로그램 다양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인문학습 지원에서는 인문프로그램 운영 지출총액/인구수, 인문프로그램 운영 기회제공/인구수를 측정하고자 한다. 인문정보 접근성 부문에서는 인문 사업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어느 정도 습득되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인문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인문자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여러 다른 용어보다 인문학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인 ‘인문자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문자본’보다는 ‘인문자원’이, ‘인문성과’보다는 ‘인문효과’가 더 인문학적이라 여겨진다는 의견이다. ‘자본’은 말 그대로 경제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느낌을 주므로, 보다 인문학적이며 동시에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자원’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라는 의견이다.

4) 인문참여

인문참여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지표에 포함하였다. 주민들의 참여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효용의 가장 직접적인 측정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다른 여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지역의 인문정신문화 활동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참여가 많을수록

다른 정책과 예산, 기반 시설 등이 따라오게 만들 수도 있다. 인문참여 대분류 하에 중분류로, 참여기회,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를 설정하였다. 참여기회는 관련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관련한 단체 및 모임에는 얼마나 참여하는지,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변화를 사회참여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참여기회의 측정은 지역별 인문범주 프로그램 참여율을 측정하고자 하며, 인문관련 사회활동 참여 부문에서는 인문사업 참가자의 동호회 활동 정도, 그리고 인문프로그램 참가자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는 인문프로그램 참여가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제1차 델파이조사에서도 참여율, 참여일수 등의 양적 평가보다 사회 참여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등 질적 평가를 보다 우선으로 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 자문의견에서도 단순히 특정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참여만을 측정하지 말고, 인문정신문화 활동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내 여러 다른 사회활동과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인문정신문화 활동의 전체적인 긍정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인문효과

인문효과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과 지원정책, 관련 공간 시설 이용 만족도 등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문을 측정하여 지역별 편차를 확인하고자 설정하였다. 인문정신문화정책, 문화시설,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인문정신문화정책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인문정신문화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인문효과는 중분류로 참여만족도, 지원만족도, 여건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고 참여만족도는 인문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지원만족도에는 인문프로그램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관련 만족도, 여건만족도에는 인문프로그램 문화시설별 공간활용 만족도를 시설만족도, 기관접근정도, 편의시설 만족도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정책지표 초안에서는 인문성가로 표현하였었다. 하지만,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 '인문성가'의 경우, 보다 인문학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인 '인문효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문성가'라는 표현은 '인문'과 '성가'가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부자연스러울뿐더러, '성가'라는 표현이 인문학적이라기보다는 결과를 강조한다는 느낌이므로 '효과'와 같은 보다 중립적인 용어가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

나. 중분류 체계

앞서 살펴봤던 대분류 하에서 중분류별로 설정된 요인들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인문환경의 중분류

인문환경지표는 각 지자체가 인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의 중분류지표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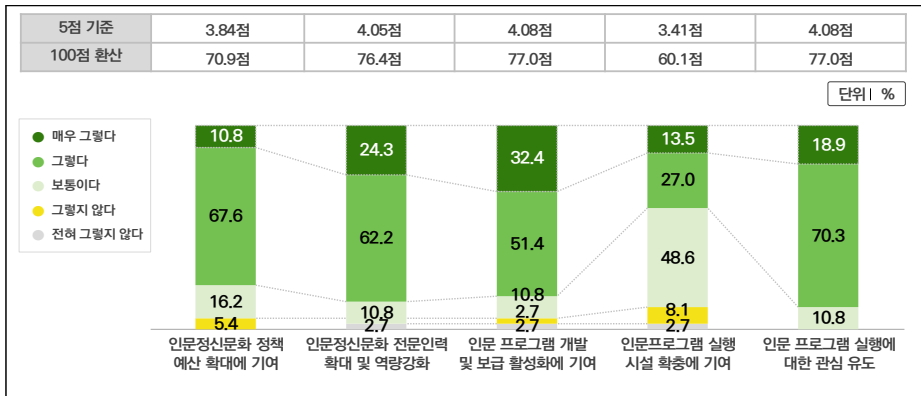
정책수립은 지자체에서 인문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 구상 및 계획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정책실행은 지자체가 인문 관련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인문 추진 및 성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책예산은 지자체가 인문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재원을 확보하고 투입하고 있는지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요소이며 인문 정책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를 물었다.

[그림 3-1]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로 ‘인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와 ‘인문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관심 유도’라는 응답이 각 100점 환산 평균 77.0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확대 및 역량강화’(평균 76.4점), ‘인문정신문화 정책 예산

확대에 기여'(평균 70.9점), '인문프로그램 실행 시설 확충에 기여'(평균 60.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지표 설정은 정책의 수립과 예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2) 인문기반의 중분류

인문기반지표는 인문관련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가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인프라, 활동여건, 지원인력여건 등 3개의 중분류지표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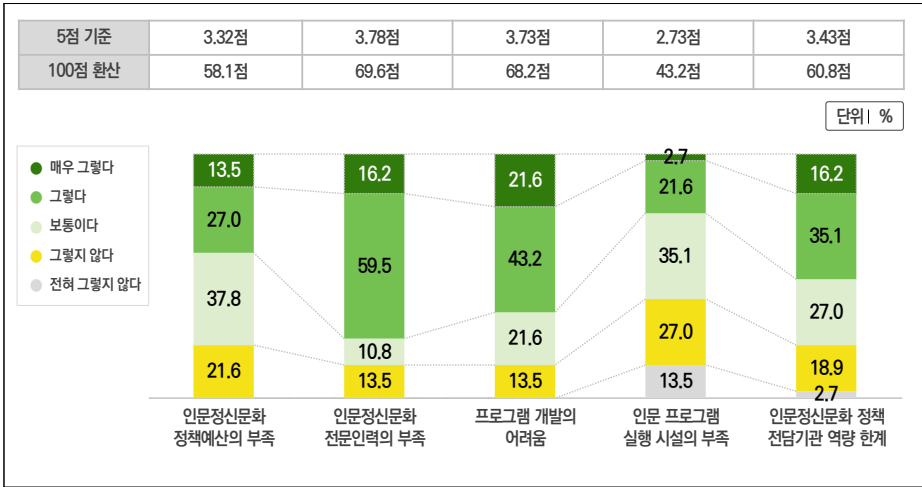
인프라는 각 지자체가 인문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지표이다. 인프라 현황을 측정함으로써 지자체들이 관련 인프라 조성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활동여건은 각 시도 내에 인문 활동과 관련된 자원으로 협회나 단체가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지역 내에 관련 단체가 많다면 인문정신문화 활동여건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 내 자생적 인문정신문화 활동 활성화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인력여건은 각 지자체 내에 인문관련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인문정책 진흥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흔한 상황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얼마나 지원인력 수가 있느냐는 곧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물었다.

[그림 3-2]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100점 환산 평균 6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평균 68.2점),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 역량 한계’(평균 60.8점), ‘인문정신문화 정책예산의 부족’(평균 58.1점), ‘인문 프로그램 실행 시설의 부족’(평균 43.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인문자원의 중분류

인문자원지표는 인문관련 지원정책 사업과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정책사업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인문사업운영, 인문학습 지원, 인문기관 접근성 등 3개의 중분류지표로 구성된다. 인문자원 지표의 중분류를 통해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 예산현황, 정보유통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문사업운영은 지자체에서 인문관련 운영 프로그램별 운영 건수와 총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지표이다.

인문 학습지원은 지자체에서 인문정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문 프로그램의 예산구성을 살펴보는 지표이다.

인문정보 접근성은 지자체에서 인문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 정도와 이를 통해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4) 인문참여의 중분류

인문참여지표는 인문사업 관련 참여정도와 인문 프로그램 참여 후속으로 인문 나눔과 관련된 활동 정도, 그리고 참가자 본인의 삶의 질적 가치향상을 이루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인문 프로그램 참여기회,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 등 3개의 중분류지표로 구성된다.

참여기회는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이 인문사업 프로그램에 참여 정도와 활동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인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할 수 있는 여건인지 가늠하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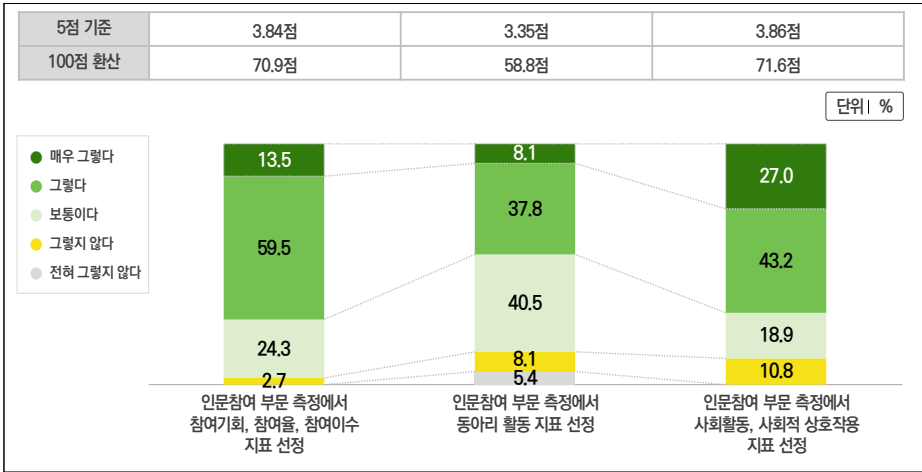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는 지자체 내 인문 사업 참여 이후 인문적 가치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후속 협력활동 및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 증대 정도를 조사하는 지표이다. 지역의 인문 활동이 지역사회단체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및 자선단체에 참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는 지자체 내 인문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변화 및 본인의 삶의 질에 대해 가늠해보는 지표이다.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정책 사업 참여자들이 인문적 가치 습득을 통해 나와 사회에 대한 의식 확장을 이루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최대한 양적인 측정이 아닌 질적인 측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참여 시민들이 실제 삶에 있어 어느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문정책과 인문성과의 측정지표들이 의식의 변화, 후속 연계 활동, 공동체의 변화 등의 질적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인문참여에 대한 지표 설정 방향에 대한 물음에 ‘인문참여 부문 측정에서 사회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지표 선정’이라는 응답이 100점 환산 평균 71.6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문참여 부문 측정에서 참여기회, 참여율, 참여이수 지표 선정’(평균 70.9점), ‘인문참여 부문 측정에서 동아리 활동 지표 선정’(평균 58.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인문정책지표 중 인문참여에 대한 지표 설정 방향



5) 인문효과의 중분류

인문효과지표는 인문관련 프로그램, 정책적 지원, 시설 인프라에 대해 참여자들이 평소 느끼는 각각의 만족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인문활동의 정책성과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서 인문관련 참여만족도, 지원만족도, 여건만족도 등 3개의 중분류지표로 구성된다.

참여만족도는 인문사업의 참여자들이 인문 프로그램의 호감 정도를 가늠하고 실제로 체감하는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지원만족도는 인문사업의 참여자들이 각 시도 내에 인문 지원정책 분야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경험과 지원정책 및 제도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여건만족도는 인문사업의 참여자들이 지역 내 인문관련 인프라 분야 만족도 파악을 위해 인문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여건 조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제3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정책지표의 구체적인 구성과정과 구성과정에서 근거가 된 여러 조사과정과 원칙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인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구성안을 제시하고 관련 설정을 설명하였다. 핵심적인 구성과정과 정책지표 구성안에 대한 기본 설명을 정리하였다.

1. 정책지표 구성과정

인문정책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연구실무진 회의 등을 통해 5차례 검토되었으며 지표별로 선정, 수정, 삭제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조사항목이 5개 대분류 및 15개 중분류로 확정되었다.

대분류 ‘인문자본’ 항목에서 세분화된 ‘인문기반’ 항목에서 ‘인문시설’ 용어는 사회자본의 의미가 내포된 ‘인프라’로 변경되었다. 인문지표 초안의 ‘인문정책’ 항목 대신에 ‘인문참여’로 수정 교체하여 실적 위주의 내용 편성보다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이 보다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중분류 ‘시민의식 증진’이라는 표현이 막연해 보이며,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삭제되었다. 성과와 관련하여 단순히 만족도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고려되었다.

2차안 대분류 구성에서 ‘인문자본’보다는 ‘인문자원’이, ‘인문성과’보다는 ‘인문효과’가 보다 더 인문학적 취지를 담은 용어로 제시되었다. ‘자본’은 말 그대로 경제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 보다 인문학적이며 동시에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자원’이라는 단어를 선정하였다. ‘인문성과’라는 표현은 인문학적 소양 축적 및 정식 확산이라기보다는 결과를 강조한다는 느낌이므로 ‘효과’와 같은 보다 중립적인 용어

가 적합함이 제안되었다. ‘인문접근성’의 경우 시설공간의 접근성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최종 인문정보를 습득하고 참여하는 ‘인문접근 정보성’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간접근성의 경우 만족도 지표에서 조사하기로 되었다.

3차 단계에서 인문정신문화정책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표가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인문정책사업의 수동적 참여보다는 인문활동 등 참여자 주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인문향유’ 용어를 대신하여 ‘인문참여’로 배치되었다. 대분류 ‘인문참여’에서 ‘동아리활동’이 ‘단체·모임 활동참여’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동아리’ 용어가 주는 의미가 생활문화사업 같은 지역단위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기에 인문사업 평가에 보다 적합한 용어로 ‘단체, 모임 활동참여’로 새로이 변경 구성하였다.

2. 정책지표 분류체계

본 보고서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의 대분류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정하였다. 인문환경, 인문기반, 인문자원, 인문참여, 인문효과가 그것이다.

인문환경은 각 지자체가 인문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중분류에서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으로 분류하여 각 세부측정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인문기반 부문은 인문정책 활동과 관련된 여건이 지역별로 적절한 수준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중분류로서 중요 요인으로, 인프라, 단체협회 수, 기관 담당 지원인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인문자원 부문은 지역주민들이 인문관련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적 요소들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인문사업 운영, 인문학습 지원, 인문정보 접근성을 설정하였다. 지역 내에 선택할 수 있는 인문관련 프로그램 수가 얼마나 되는지, 관련 운영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인문관련 프로그램의 정보 습득에 따른 참여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인문참여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지표에 포함하였다. 중분류로, 참여기회,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도를 설정하였다.

인문효과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과 지원정책, 관련 공간 시설 이용 만족도 등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측정하여 지역별 편차를 확인하고자 설정하였다. 인문효과는 중분류로 참여만족도, 지원만족도, 여건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인문지표 개발 및 지수화 방안 연구

제4장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 측정지표

제1절 측정지표 설명

1. 인문환경의 중분류별 측정지표

가. 정책수립의 측정지표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의 정책목표가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인문정책 지원을 위한 법률 조례 및 규칙 수'로 정하였다.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표 4-1〉 정책수립 측정지표

번호	지표
1	인문정책지원을 위한 법률 조례 및 규칙 수

나. 정책실행의 측정지표

지방자치단체가 인문 관련 정책을 실제로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평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가능성 및 성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지원사업 건수'로 설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중앙정부 부처의 사업을 포함한 인문정책지원사업 건수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 관련 지원사업 건수'는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인문 활동 지원 역량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2〉 정책실행 측정지표

번호	지표
2	최근 2년 동안 추진한 인문정책 활동 지원사업 건수

다. 정책예산의 측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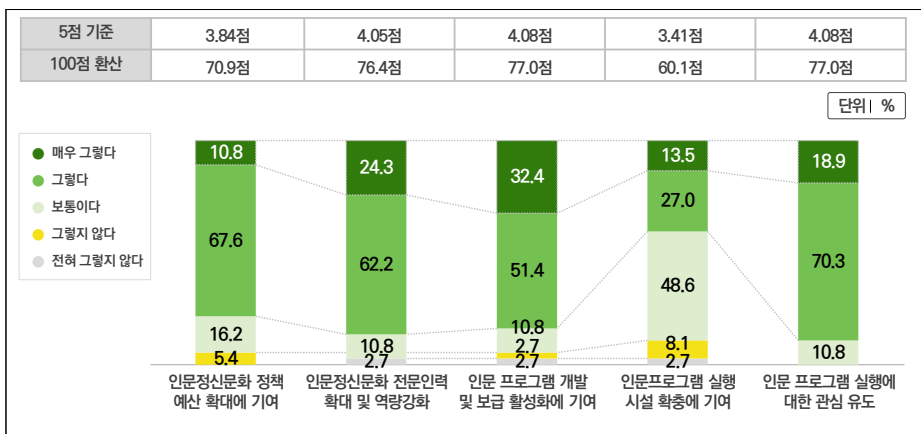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가 인문 관련 정책 재원을 얼마나 확보 및 운영하고 있는지는 인문정신 문화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정책 사업들 중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지표로 ‘예산대비 인문정책 지원예산 비율’과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를 설정하였다. ‘인문정책 지원예산 비율’은 각 지자체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일정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3〉 정책예산 측정지표

번호	지표
3	예산대비 인문정책 지원예산 비율
4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로 ‘인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와 ‘인문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관심 유도’라는 응답이 각 100점 환산 평균 77.0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문정신 문화 전문인력 확대 및 역량강화’(평균 76.4점), ‘인문정신문화 정책 예산 확대에 기여’(평균 70.9점), ‘인문프로그램 실행 시설 확충에 기여’(평균 60.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



2. 인문기반의 중분류별 측정지표

가. 인프라의 측정지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과 관련 활동에 활용 가능한 인프라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인문관련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를 설정하였다. ‘인문관련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는 지역의 인문 활동 수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4〉 자원여건 측정지표

번호	지표
5	인문정책 활동지원 기관시설의 수

나. 활동여건의 측정지표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인문 활동 관련 협회나 단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역 내 인문 관련 단체협회 수’를 설정하였다. 관련 단체와 협회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지역 내 인문정신문화 활동과 관련 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문관련 활동 관련 단체 수’는 각 지역 내 인문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5〉 활동여건 측정지표

번호	지표
6	인문정책 활동단체의 개수

다. 인력여건의 측정지표

인력여건 측정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인문관련 지원인력이 얼마나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인문정책 진흥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측정지표로 ‘인문 담당 인력 구성, 지원인력 수’로 설정하였다. ‘인문관련 담당 인력 및 지원인력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문활동 지원에 대한 관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이해될 수 있다. 인문정책 활동 지원인력은 지원정책을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실무담

당 인력으로, 적절한 지원인력의 확보는 인문관련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주체를 의미한다. 시도 청사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공 문화기반시설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전부 포함하여 집계한다.

〈표 4-6〉 인력여건 측정지표

번호	지표
7	인문정책 활동 지원인력의 수

제2차 델파이조사에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중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100점 환산 평균 69.6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평균 68.2점),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 역량 한계’(평균 60.8점), ‘인문정신문화 정책예산의 부족’(평균 58.1점), ‘인문 프로그램 실행 시설의 부족’(평균 43.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인문자원의 중분류별 측정지표

가. 인문사업운영의 측정지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문관련 운영 프로그램별 운영 건수와 총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와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을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운영건수와 운영시간을 통하여 지역의 인문사업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인문 사업운영의 측정지표

번호	지표
8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9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

나. 인문학습지원의 측정지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문정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문 프로그램의 예산구성

을 살펴보는 지표로 ‘인문프로그램 운영 연간 소요예산’을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인문 학습지원관련 소요예산’은 지역의 인문사업 프로그램의 재정안정성 및 운영토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8〉 인문 학습지원의 측정지표

번호	지표
10	인문프로그램 운영 연간 소요예산

다. 인문정보접근성의 측정지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 정도와 이를 통해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인문 프로그램의 정보습득에 따른 참여정도’로 설정하였다. ‘인문정보 접근성’은 인문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어떻게 습득되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9〉 인문정보 접근성의 측정지표

번호	지표
11	인문 프로그램의 정보습득에 따른 참여정도

4. 인문참여의 중분류별 측정지표

가. 참여기회의 측정지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이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에 참여정도와 활동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인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할 수 있는 여건인지 가늠하는 지표로, ‘인문 관련 프로그램 참여율’을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인문관련 프로그램 참여율’은 지역의 인문사업 프로그램에 참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10〉 인문 참여기회의 측정지표

번호	지표
12	지역별 인문 범주 프로그램 참여율

나. 인문관련 사회참여활동의 측정지표

지방자치단체 내 인문 사업 참여 이후 인문적 가치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후속 협력활동 및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 증대 정도를 조사하는 지표로, ‘인문관련 사업 참가자의 동호회 활동 및 자원봉사 참여율’을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율’은 지역의 인문 활동이 지역사회단체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및 자선단체에 참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11〉 인문관련 사회활동참여의 측정지표

번호	지표
13	인문사업 참가자의 동호회활동 정도
14	인문사업 참가자의 자원봉사 참여율

다.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의 측정지표

지자체 내 인문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변화 및 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기능해보는 지표로, ‘인문참여가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는 인문 프로그램 정책 사업 참여자들이 인문적 가치 습득을 통해 나와 사회에 대한 의식 확장을 이루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12〉 인문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의 측정지표

번호	지표
15	인문참여가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도

5. 인문효과의 중분류별 측정지표

가. 참여만족도의 측정지표

인문사업 참여자들의 인문 프로그램 호감 정도를 기능하고 실제로 체감하는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인문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질적/

양적 만족도'를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인문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운영되는 인문콘텐츠 만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13〉 인문 참여자의 참여만족도의 측정지표

번호	지표
16	인문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나. 지원만족도의 측정지표

인문사업의 참여자들이 각 시도 내에 인문 지원정책 분야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경험과 지원정책 및 제도를 대상으로 하며, '인문사업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를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인문사업 참여자의 지원만족도'는 지자체의 인문정책 공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14〉 인문 참여자의 지원만족도의 측정지표

번호	지표
17	인문사업 참여자의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

다. 여건만족도의 측정지표

인문사업의 참여자들의 지역 내 인문관련 인프라 분야 만족도 파악을 위해 인문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기반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지역 내 문화시설공간에의 만족도, 접근성 만족도, 편의시설 만족도'를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인문관련 시설 공간 만족도'는 인문향유를 위한 인프라 분야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3가지 측면의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

〈표 4-15〉 인문 참여자의 여건만족도의 측정지표

번호	지표
18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시설 공간만족도
19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기관 접근정도
20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편의시설 만족도

제2절 지표 측정방법

1. 측정지표 추출방법

가.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

230개의 기초자치단체(67시·98군·65자치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선정된 지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 현황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기존 국가 통계자료로 측정이 어려운 인문관련 지표값에 대해서는 개별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직접적으로 요청하여 접수하고, 인문정책 구현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수집 항목’과 ‘제출용 증빙자료 양식’을 배포하여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시범적으로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자료수집과 자료정리를 진행하고, 본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축한다.

나. 기존 행정조사데이터 활용

230개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조사된 정부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필요한 부분을 활용한다. 기존의 정부 통계자료로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평생교육통계자료, 국민여가활동조사, 생활시간조사, e지방지표, 한국도시통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의 조사자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문화관련 공공기관 제공 자료 등을 활용한다.

다. 설문 조사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이후 만족도 조사 자료에 문항을 추

가하고 기초단위 운영기관들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다.

2. 지표별 조사방식 및 출처

측정치표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관련 지표들을 새롭게 지표 설정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관련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대리지표로 활용가능한 지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여러 국가 승인 통계조사나 행정자료 수집 형태로 진행되는 현황조사들 중에서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뽑아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표 4-16〉 정책수립 측정지표

번호	지표	출처
1	인문정책지원을 위한 법률 조례 및 규칙 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	최근 2년 동안 추진한 인문정책 활동 지원사업 건수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 평생교육데이터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현황(인문분야 활용)
3	예산대비 인문정책 지원예산 비율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 문체부 집계자료
4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지역문화실태조사 자료 활용
5	인문정책 활동지원 기관시설의 수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도서관현황,지역문화실태조사 자료 활용
6	인문정책 활동단체의 개수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평생교육통계자료 활용
7	인문정책 활동 지원인력의 수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지역문화실태조사자료활용
8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 공공도서관 조사 프로그램 현황, 평생교육통계자료 활용
9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 평생교육통계자료 활용/공공도서관통계조사자료 활용
10	인문프로그램 운영 연간 소요예산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
11	인문 프로그램의 정보습득에 따른 참여정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2	지역별 인문 범주 프로그램 참여율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활용
13	인문사업 참가자의 동호회활동 정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공공도서관통계조사 활용
14	인문사업 참가자의 자원봉사 참여율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e-지방지표 활용

번호	지표	출처
15	인문참여가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정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6	인문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7	인문사업 참여자의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8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시설 공간만족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9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기관 접근정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20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편의시설 만족도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 인문정책지원을 위한 법률 조례 및 규칙 수

인문정신문화 정책지원을 위한 법률·조례 및 규칙 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에서 검색하여 집계할 수 있다. 광역 시도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광역자치단체 문화관련 조례 제정 전체 건수 순위, 평균, 및 전체 건수를 집계하고 있다. 이를 우선 시행하는 대리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인문관련 조례 제정 관련 집계를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최근 2년 동안 추진한 인문정책 활동 지원사업 건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중앙정부 부처의 사업을 포함한 인문정책지원사업 건수를 집계하는 것으로 지자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을 통해 집계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조사자료 중에는 평생교육 자료 중에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초·중·등 부설, 대학(원) 부설,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형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학원)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현황 중 인문분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예산대비 인문정책 지원예산 비율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예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매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는 사업예산 현황 등을 활용하여 지원예산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대리지표로 사용가능한 현재 통계 취합되는 자료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을 집계하고 있어 이를 대리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 **중앙정부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를 파악할 수 있다. 매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는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 **인문정책 활동지원 기관시설의 수**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도서관현황조사에서 도서관 현황과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평균 및 전체 개수를 활용하여 집계할 수 있다.

○ **인문정책 활동단체의 개수**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신규항목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는 통계자료들 중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집계하는 지역별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 평생교육통계자료집에서 집계하는 비형식,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인문정책 활동 지원인력의 수**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신규항목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는 통계자료들 중에서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집계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 자료를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인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

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운영건수를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통계조사에서는 평생교육통계자료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행 계열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자료를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서 집계되는 프로그램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서는 시도별 1관당 문화 및 독서관련프로그램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 인문프로그램 관련 총 운영시간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통계조사에서는 공공도서관통계조사에서 시도별 1관당 이용자 교육현황(교육횟수, 참가자 수, 교육시간)을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인문프로그램 운영 연간 소요예산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실행예산을 중심으로 집계를 한다.

○ 인문 프로그램의 정보습득에 따른 참여정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정보습득 경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지역별로 조사한다.

○ 지역별 인문 범주 프로그램 참여율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연단위 평가자료에서 집계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프로그램 재참여율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지역별로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인문사업 참가자의 동호회활동 정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지역사회 내에서 동호회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현재 시행 중인 통계조사에서는 공공도서관통계조사에서 공공도서관 동아리 운영 수, 참가자 수 집계 자료를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인문사업 참가자의 자원봉사 참여율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지역사회 내에서 동호회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현재 시행 중인 통계조사에서는 e-지방지표에서 집계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사회단체 참여율을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인문참여가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정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삶의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현재 시행 중인 통계조사에서는 e-지방지표에서 집계하는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13세 이상 인구 중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감(행복도)에 대한 비율이다.

○ 인문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집계한다.

○ 인문사업 참여자의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지원정책 및 제도운영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시설 공간만족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시설공간만족도를 조사하여 집계한다.

○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기관 접근정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기관 접근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 **인문사업 참여자의 관련 편의시설 만족도**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 편의시설 만족도를 조사하여 집계한다.

제3절 지수화 방안

1. 지수도출방식

가. 가중치 산출 방법: AHP 분석

계층화 분석으로 불리는 AHP(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은 평가 기준이 다수이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법의 하나이다.

AHP 분석의 주요 특징은 우선,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로 나누어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해 쌍대비교를 통해 요소별 가중치를 도출한다. 둘째,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하여, 평가 요소 간 중요도 및 대안 간 선호도를 비울척도로 측정하여 정량화된 결과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가중치 도출 과정의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이처럼 AHP분석은 상대적 중요도를 비울척도화하여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책 지표 최종본으로 AHP 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최종적으로 인문정책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지수화를 추진할 시 본 연구의 지수 산출 내용을 기반으로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가중치 산출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값의 지표별 기하평균값을 산출하고, 이 값을 지표들 간 비교하여 최종 가중치를 도출한다. AHP 분석을 진행 할 시 중요한 것은 'Consistency Index(CI)' 값이며, 이는 설문조사자가 일관성 있는 응답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값이며,

CI 값이 0.2 미만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일관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한다.

응답자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높을수록 CI 값이 낮게 나오며, 일반적으로 AHP 분석의 설문 대상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가중치의 합은 1이 되어야 한다.

다. 가중치 산출 결과

인문정책을 구성하는 대분류 가운데 ‘인문성과’의 가중치가 0.35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참여’(0.34212), ‘인문자본’(0.30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인문정책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인문성과’ 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지표별 가중치 값을 도출해내기 위해 중분류 가중치 값에 대분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 값을 도출하였고 인문성과의 참여만족도(0.4043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성과의 활동만족도(0.34720), 참여기회/참여율(0.30925) 순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가중치 중 인문자본의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최종 가중치에 서도 이에 속하는 지표들의 가중치가 다른 지표의 가중치 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4-17〉 분류별 가중치 값

대분류		중분류		최종 가중치 (A x B)
요 인	가중치(A)	요 인	가중치(B)	
인문자본	0.30139	정책수립	0.10306	0.03106
		정책실행	0.10861	0.03273
		정책예산	0.13471	0.04060
		시설	0.07685	0.02316
		조직	0.10113	0.03048
		인력	0.16049	0.04837
		인문접근성	0.15950	0.04807
		인문학습지원	0.15564	0.04691
인문참여	0.34212	참여기회/참여율	0.30925	0.10580
		동아리활동	0.16059	0.05494
		사회참여도	0.23717	0.08114
		사회적 상호작용	0.29298	0.10024
인문성과	0.35649	참여만족도	0.40430	0.14413

대분류		중분류		최종 가중치 (A × B)
요 인	가중치(A)	요 인	가중치(B)	
		활동만족도	0.34720	0.12377
		여건만족도	0.24851	0.08859
총 합	1.0000	총 합	3.0000	1.0000

라. 지수 산출

지수 산출을 위해 개별 지표를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 지표들의 척도와 범위가 다르므로 지표를 합산하기 위하여 지표별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원자료를 표준화시킨 값(Z-score)에 최종 도출된 AHP 가중치를 곱하여 중분류별 지수를 산출하고 네 개 대분류 값을 모두 더해 지수를 산출한다.

〈표 4-18〉 최종 지수산출 방식

대분류	중분류	최종 가중치	인문정책지수 산출공식	
인문자본	정책수립	0.03106	표준화된 지표값 × 0.03106=A1	자본지수 =A1+A2+A3+A4+A5+A6+A7+A8
	정책실행	0.03273	표준화된 지표값 × 0.03273=A2	
	정책예산	0.04060	표준화된 지표값 × 0.04060=A3	
	시설	0.02316	표준화된 지표값 × 0.02316=A4	
	조직	0.03048	표준화된 지표값 × 0.03048=A5	
	인력	0.04837	표준화된 지표값 × 0.04837=A6	
	인문접근성	0.04807	표준화된 지표값 × 0.04807=A7	
	인문학습지원	0.04691	표준화된 지표값 × 0.04691=A8	
인문참여	참여기회/참여율	0.10580	표준화된 지표값 × 0.10580=B1	참여지수 =B1+B2+B3+B4
	동아리활동	0.05494	표준화된 지표값 × 0.05494=B2	
	사회참여도	0.08114	표준화된 지표값 × 0.08114=B3	
	사회적 상호작용	0.10024	표준화된 지표값 × 0.10024=B4	
인문성과	참여만족도	0.14413	표준화된 지표값 × 0.14413=C1	성과지수 =C1+C2+C3
	활동만족도	0.12377	표준화된 지표값 × 0.12377=C2	
	여건만족도	0.08859	표준화된 지표값 × 0.08859=C3	
총 합	1.0000	자본지수+참여지수+성과지수=인문정책종합지수		

마. 현재 지수의 한계와 최종 지수 산출 방안

현재 AHP 분석을 진행한 지표안과 최종 지표안과의 차이에서는 중분류 상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중분류에서 AHP 분석 지표안에서 최종안으로 변경되면서 조직이 빠지고, 인문사업 운영, 홍보 및 정보화가 추가되어 중분류 상의 최종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지수화 작업을 위해서는 최종 지표안을 놓고 AHP 분석을 한번 더 진행한 후 현재의 가중치 안과 함께 비교하여 최종 가중치안을 확정하여 지수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바. 지수의 시각화

산출된 지역별 지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 시각화를 통하여 대화형 맵(Arts Vibrancy Map)과 같은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관련 시각화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정책 플랫폼인 인문360에 공개하여 지역별 비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각 지역별 인문 및 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개발지수 활용 및 발전방안

가. 개발지수 활용방안

1) 인문정신문화지표 관련 공동 플랫폼 구축

현재 인문정신문화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사업에 활용하는 등 나름의 성과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범위나 기간, 항목/내용, 환류 방안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고, 엄밀한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포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성과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기관들이 인문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의 경우 서로 상이한 문항으로 인해 기관 간 비교가 어려우며, 자체조사 방식 또한 상이하여 기관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정신문화지표의 설계는

관련된 기관들이 필수적으로 조사할 항목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체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별 지표 결과 및 정책사례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등의 공동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개별 지자체가 자체적인 인문정신문화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루트로 기능함은 물론, 지역 간 비교가능한 자료의 지속적 축적을 통해 향후 국가 차원의 정책 재설계를 위한 연구기반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일반인에 대한 플랫폼 공개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편의성 개선이 더해지는 경우, 인문정신문화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도 기능함으로써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부가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다.

2) 지자체 주도의 성과 공유를 통한 협업 확산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특성상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을 개별 지역에 강제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통해서서는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 지역적 특색과 환경적 맥락에 맞는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벤치마킹할 우수 사례를 선정, 학습하고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정신문화지표 구축을 통해 전국적 수준에서의 지방자치단체별 자료가 구축되면, 단기적으로는 지자체별 비교 및 상대적 입지 파악, 정책 개선을 위한 문제 식별 등 주로 거시적인 정책 운용에 있어 관리가 용이해지는 장점을 갖는다. 가령 인문정신문화지표의 측정과 관련하여 이해가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집행상의 오류를 교정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지자체들을 발굴하여 모범사례로 선정 및 포상하는 등 성과관리를 촉진하는 데 활용하기 좋은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 이 성과 공유는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지자체 간 자발적 협업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의 경우, 인문정신문화와 관련된 시설이나 장소, 인문프로그램 관련 인력풀을 공유하는 등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지역 자체가 가진 한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없이도 정책대상자인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

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자신과 유사한 환경적 여건 또는 성과를 보이는 지역과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보다 고차원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나. 향후 지수 개선방안

1) 지표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장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의 개발 단계인 현 시점에서 이념형(ideal type)의 지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 개별 지자체가 해당 지표에 대한 이해도 및 실제 정보 수집 역량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적응기간 동안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필수지표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진행 중인 인문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로 확장함으로써 인문프로그램 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지표 분류방식의 개선 및 세분화

조사 범위의 공간적 확장과 더불어 지표의 분류와 관련해서도 향후 보다 정교한 분류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통계보고 시 특정 개발원조 정책에 맞춘 조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마커체계(policy marker system)⁴⁷⁾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정책마커의 장점은 특정 정책목표에 대한 참여기관들의 이행성과를 추적하고, 비교를 통해 정책조정 및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문정신문화지표의 경우에도 중점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정책분야에 대하여 정책마커를 표기하여 보고한다면 정책성과 간 조화를 도모하기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의 지표가 갖고 있는 추상성을 완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포괄하는 지표 세분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재 지표의 경우 조사대상인 지역 내 유관기관의 관리역량 내지는 프로그램 현황 등을 위주로 자료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유관기관 외에도 영상 제작자, 프로그램 강사 등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보다 다양한

47) 2022년 현재 OECD-DAC 통계지침상 환경에 관한 리우마커 4개(기후변화 완화/적응, 생물다양성, 사막 화방지)와 환경, 참여적개발/굿거버넌스, 모자보건증진, 무역개발, 재난위험증감 등의 의무보고 대상 마커와 영양,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 등 자발적 보고 대상 마커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정책마커를 운용 중이다.

이해관계자를 포괄한 지표 확장 및 분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조사대상이 되는 문화 기반시설의 경우에도 시설별 상이한 성격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시설별 맞춤형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4절 소 결

측정지표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관련 지표들을 새롭게 설정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관련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대리지표로 활용가능한 지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여러 국가승인 통계조사나 행정자료 수집 형태로 진행되는 현황조사들 중에서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뽑아 함께 정리하고자 하였다.

지수화를 위해서는 AHP 분석을 시도하였다. 계층화 분석으로 불리는 AHP(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은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법의 하나이다. AHP 분석의 주요 특징은 우선,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로 나누어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해 쌍대비교를 통해 요소별 가중치를 도출한다. 둘째,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하여, 평가요소 간 중요도 및 대안 간 선호도를 비울척도로 측정하여 정량화된 결과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가중치 도출 과정의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이처럼 AHP분석은 상대적 중요도를 비울척도화하여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책 지표 최종본으로 AHP 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인문정책을 구성하는 대분류 가운데 ‘인문성과’의 가중치가 0.35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참여’(0.34212), ‘인문자본’(0.30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인문정책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인문성과’ 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지표별 가중치 값을 도출해내기 위해 중분류 가중치 값에 대분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 값을 도출하였고 인문성과의 참여만족도(0.4043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인문성과의 활동만족도(0.34720), 참여기회/참여율(0.30925) 순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가중치 중 인문자본의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최종 가중치에서도 이에 속하는 지표들의 가중치가 다른 지표의 가중치 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수 산출을 위해 개별 지표를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 지표들의 척도와 범위가 다르므로 지표를 합산하기 위하여 지표별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원자료를 표준화시킨 값(Z-score)에 최종 도출된 AHP 가중치를 곱하여 중분류별 지수를 산출하고 네 개 대분류 값을 모두 더해 지수를 산출한다.

인문지표 개발 및 지수화 방안 연구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지자체에서 국민의 인문정신문화정책의 수용도 및 향유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부문별로 진단과 비교가 가능한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와 이를 통합한 인문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체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인문정신문화 정책 환경 속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영역인 인력, 제도, 예산, 프로그램,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제반요인들을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를 통해 전국지역별로 비교·분석하고, 현재까지 수행된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를 위한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지표체계와 지수화 양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객관적 지표로서 그 성과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지역별 관련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의 현황을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보완 사항을 인식하고 향후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추진되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문화 및 지역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개발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여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인문정책지표와 지수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인문지수의 세부지표 선정은 국내외 문화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대상으로 초안이 작성되었고, 설문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검토되고 정리되었다. 여러 지수에서 활용되는 지표 구성 원칙과 기준을 검토하고,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에 맞는 지표 구성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의 대분류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인문환경, 인문기반, 인문자원, 인문참여, 인문효과로 설정하였다.

‘**인문환경**’ 지표는 각 지자체가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에 관한 정책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인문정책관련 법률·조례 제정 여부 및 인문정책 수립여부, 그리고 정책예산에서 인문정책 예산 사업을 넣어 관련 예산 확보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를 측정한다.

‘인문기반’ 지표는 인문정신문화 정책 활동과 관련된 여건이 지역별로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인문환경보다 좀 더 인문정신문화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관련 단체, 관련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인문정신문화 정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인문자원’ 지표는 지역주민들이 인문정신문화 관련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적 요소들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기반 시설과 활동 및 인력 여건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예산 측정액,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평가문항을 구성하였다.

‘인문참여’ 지표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를 통해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포함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관련 단체 및 모임에는 얼마나 참여하는지,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변화를 사회참여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인문효과’ 지표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과 지원정책, 관련 공간 시설 이용 만족도 등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측정하여 지역별 편차를 확인하고자 설정하였다. 인문정신문화정책, 문화시설,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세부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전국적으로 문화기반시설과 같은 물리적 여건은 물론 인문관련 정책추진상황과 활동 단체나 지원인력 등에서 지자체별 인문역량 구축수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인문정책사업의 비교가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자체 현황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설문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인문사업실태와 정책 구현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문정신문화 정책 지표 설정과 지수화 방안 도출을 통하여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구체적인 사업과 그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문정신문화 정책 사업들이 전 지역에 큰 편차 없이 모든 주민들의 문화적 생활에 골고루 체감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본 연구는 국가전체 수준에서 인문정신문화정책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인문정책의 지표개발과 지수화 방안의 의미가 뜻있게 정립되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지표설계가 보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협력 하에서 인문사업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와 지수화 목적은 지자체 내 인문사업의 편차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인문가치 확산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인문정신문화 정책수준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정책발전의 토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인문정신문화 정책 조사항목 보완 및 지표별 가중치 변경 여부 등 지수화 방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수준을 단일 수치로 명료하게 나타내고, 정책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지자체의 인문정신문화 정책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인문정신문화정책의 현황과 기여도를 추상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객관화시키는 첫 번째 본 연구의 시도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의 구성요인으로서 최종적인 지표의 선정과 지수산출방식의 확정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선행되는 점검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인문정신문화 정책지표와 지수화방법이 도출되고 보다 체계적인 인문정책지표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갖추는 일련의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지역단위에서 인문정책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부 지표를 갖추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정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단일 조사가 아닌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정기조사의 도입과 기관들의 협조체제 구축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 2020.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박영사
- 김면 외. 2018. 「2018년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2021. 12.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 박재술. 2007. 「인문학강좌 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2019.03.13. 「'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종합지수' 결과발표」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 현황통계분석」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 지수 시범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21.12.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 박선미·강민욱·김영재. 2020.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동향.” 「디지털 서울 이슈리포트 2020.-1호.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발표.” 보도자료
- 이성우 외. 2021. 「2021년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이성우 외. 2021.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오창은. 2013. 「절망의 인문학」, 서울 : 이매진
- 윤소영. 2013. 「여가행복지수 개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정섭·손은정.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 「Future Horizon+」 2021년 제3호(Vol.5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장훈·노영순. 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전병태. 2017. 「인문지표개발 및 지수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청. 2021. “2021년 사회조사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보도자료. 통계청
- 통계청. 202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 보도자료.
- 한국국학진흥원. 2013. 「인문정신문화 진흥방안 연구」, 경북 : 한국국학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2021. State of the Humanities 2021: Workforce & Beyond (Cambridge, Mass.: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 European Union. 2016. 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 2016.
- European Union. 2021. 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 2021.
- Humanities Indicators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2020. The Humanities in American Life: Insights from a 2019 Survey of the Public's Attitudes & Engagement (Cambridge, Mass.: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 Jaschik, Scott. 2017. "Humanities Majors Drop". Inside Higher Ed (June 5).
- Kat Devlin, Moira Fagan and Aidan Connaughton. 2021. "People in Advanced Economies Say Their Society Is More Divided Than Before Pandemic." Pew Research Center.
- OECD. 2019. OECD Skills Outlook 2019: Thriving in a Digital World,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0. How's Life? 2020 :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ABSTRACT

Indexation of Indicators for Humanities

Sung-Woo Lee

The main goal of the research is synthetically to develop Indicators and indexes for Humanities. That Indicators and Index expect to comparing and examining to figure out people's receptivity and enjoyment of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Policy nationwide. In the changing political situation, this research aims to improve the current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Policy based on a comparative analyzing local governments through setting up Indicators and Index for Humanities focusing on the workforce, institution, budget, programs, and facilities.

This research set up the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Policy Indicator, which comprises five components – humanitarian environment, humanitarian foundation, humanitarian resources, and humanitarian participation - as a primary classification. Each major category is composed of three medium classifications. And total measuring indicators are twenty indicators classified in the upper classification. This research suggested to way to make a visualized index of the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Policy based on AHP analysis. This research expects to improve the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Policy's effect on many peoples in various regions based on objective indicators and visualized index of the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Policy.

Keywords

Policy Indicator, visualized index, Humanities, the humanitarian spirit and Culture Policy

인문지표 개발 및 지수화 방안 연구

부록

설문지

부록. 설문조사안

1. 1차 델파이 조사

가. 설문안

1. 인문정신문화정책 방향

2021년 12월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이 발표되었음.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있는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형·참여형·사회공헌형 사업으로 확대, 문화기반시설 전반으로 인문공간의 확대, 전문인력으로 연구자, 활동적 교령자 등 적극 활용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22년도 주요 사업 현황

- (문화기반시설) 도서관·박물관 등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
 - (길 위의 인문학) 문·사·철 등 주제의 강좌·탐방 연계 프로그램
 - (지혜학교) 지역 인문대학 강사 활용 심화 인문 강좌 운영
-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인구소멸지역, 코로나 피해업종 등 대상
 - 취약계층 대상 포용·치유 주제 찾아가는 인문 강좌
 - 지역 인문자원 활용 인문관광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방과후 인문교실 시범운영,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인문프로그램,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등
- (세대 통합 등) 세대공감,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확대
 - 청년 등 대상 은퇴세대 인생 경험을 활용한 멘토링 운영
 - 인문정신문화주간 운영 및 청년인문공감축제 개최
 - '인문문답', '인문실험 공모전', '한국판 TED' 등 참여형 사업 추진

Q1.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주십시오.

Q2.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방향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주십시오.

2.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평가

□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상의 1차 기본계획 정책 추진 주요성과

- (사업 다양화·참여자 확대) 인문 심화 강좌 신규 운영('20-'21년, 23,625명), 인문 전공자 활용 인문 프로그램 신규 운영('17년 신규, 216개 시설, 105,416명), 길 위의 인문학 등 참여자 확대(152만명)
- (공간 조성 및 운영 고도화)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17-'20년 430개), 지역 유휴 공간을 인문 공간으로 제공('21년 5개 공간나눔 단체 참여),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 인증제 운영(224개 인증)
- (인문나눔·일자리) 인문 멘토링 운영(멘토봉사단 1,060명 참여), 취약계층 대상 인문 프로그램 운영(교정 시설 120개소 등), 이야기 할머니 확대(1,724명 신규 선발) 및 국학 청년 일자리 확충('20-'21년 228명 채용)

Q3.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상의 주요 성과에 대하여 평가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 의견을 주십시오.

3.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추진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상의 1차 기본계획 정책 추진시 문제점

- (사업 편중) 인문 강좌 및 독서 활동 중심 운영, 공동체 구성원 화합·연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부족
- (환경 변화 대응 미흡) 공동체 분열과 갈등, 1인 가구 증가 및 초고령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문 정책 추진 미흡
- (공간 활용 부족) 인문 프로그램 제공이 도서관 및 박물관에 편중
- (인문격차) 지역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심화 등 인문 향유 부족
- (진흥 체계 미흡) 인문 사업 수행기관 분산, 전문성 축적 한계, 지자체·민간과의 협력체계 미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문 사업 부족
- (정책 확산 한계) 인문 정책 확산 및 사업 간 연계 미흡, 전문인력 양성 및 인문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부족

Q4.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상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평가해주시고 추가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주십시오.

4. 지역별·시설별 인문정신문화사업 추진의 격차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도서관 및 박물관에 편중
길 위의 인문학 운용시설은 도서관과 박물관이 90.6%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문화기반시설에서는 9.4%만

이 운영
 지역간 인문 향유의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큼
 '19년 대비 '20년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관람률 격차가 12.7%→17%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Q5.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진행 시설 및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차이에 대하여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Q6.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진행 시설 및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십시오.

5.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정책지표 설정 방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문자본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수립여부 (정책수립) -인문관련조례제정 및 입안 (정책실행) -정부지원정도: 예산대비 인문정책예산비율 (정책예산)
	시설/조직/인력 인문학습 지원 인문 접근성	-사업운영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수 -인문관련 전담조직 보유, 관리인력(정규직)확보 -인문프로그램 강좌개발, 인문 운영 사업수 -인문습득 장소의 접근성
인문정책	참여기회 참여율 참여이수	-프로그램(온라인, 오프라인) 참여 강좌수 -프로그램 유형수 -인문 프로그램 참여자 수 -프로그램 운영 일수
	동아리활동 사회참여도 사회적 상호작용	-지역 인문관련 동아리(모임) 수 -인문관련 사회참여활동 및 봉사활동 월평균빈도/시간 -참여이후 변화: 지역사회참여증가율, 문화기반시설 이용시간의 퍼센트
인문성과	여건만족도 참여만족도 활동만족도 시민의식증진	-예산대비 인문관련 집행률 -인문지원 만족도 -인문참여 만족도 -인문활동 만족도 -시민의식 증진

Q7.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지역별 평가를 위한 정책 지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측정이 필요한 지표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Q8.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지역별 평가를 위한 정책 지표(안)에서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주십시오.

6. 지수화방안에 대한 의견

제2차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 상 문화활력지수 개발 사업 포함
문화활력촉진지역 및 지수
◇ (문화환경취약지역) 농산어촌과 같이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우선지원 가능
◇ (대상지역) 문화지표(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와 일반지표(인구, 재정)로 구성된 문화활력지수를 개발, 하위 30% 해당 지자체 중 선정

Q9. 제2차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 상 문화활력지수 개발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문화활력지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Q10. 앞서 설정한 정책지표를 기반으로 문화활력지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문화활력지수 개발시 중요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1. 인문정신문화정책 방향

1)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평가

- 현재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
-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인문 지원 강화 필요
- 유관 사업 및 부서 간의 연계를 통해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확장 필요
-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속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전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은 잘 정립되었으며, 특히 해당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인 열개와 추진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여겨짐
-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 설정으로 보임.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하향식(Top-down)의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민간의 다양한 인문적 수요를 수용하는 상향식(Bottom-up)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 주목할 만함
- 취약계층의 범위를 넓게 잡았으면 함. 증빙이 있어야 하는 취약계층이 아닌 중하위권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함

- 취약계층이나 세대별 프로그램이 종전보다 확대되기는 했으나 아직 부족함 문화 시설이나 관계기관을 찾지 않거나 찾지 못하는 비독자나 취약계층대상의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람
- 문화체육관광부 내 다른 부서들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들이 유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파편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며, 이 과정에서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기반시설들 역시 개별 사업의 수행 기관 혹은 집행 공간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함
- 사회적 분위기는 인문정신 배양과 관계있으므로 저변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면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지속형 사업으로 설계가 되어야 함

2)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방향에서 보완해야 하는 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 가치의 대중 확산과 이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역, 세대, 소득별 수요 맞춤형 강좌의 개발 및 운영 필요- 전문성을 갖춘 인문 인력의 양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필요 |
|---|

- 인문 가치의 대중 확산을 위해 고리타분한 주제나 운영방식이 아닌 시대 정신에 맞는 융합적인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대중 확산을 위해서는 대중의 이슈와 결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이 필요함. 또한, 참여가 자유로운 다양한 주제의 일회성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하여 대중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함
-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지역, 세대, 소득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강좌를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 초창기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목적이 사회 저변에 전반적으로 인문학, 문화향유 등의 개념을 고취하고자 함이었다면, 지금은 인문문화 프로그램을 지역, 세대, 소득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강좌로 운영해야 함
-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의 제도적 인문학 축소와 관련하여 인문 인력

의 일자리 창출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문학 강좌 혹은 인문학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획-운영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전문적 인문 인력들의 자유로운 프로그램 제안을 수용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이 필요함

2.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평가

1)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프로그램의 자율성 및 창의성 보장, 인문정신 문화 진흥 기반 및 체계 구현 등의 개선 필요 - 유희 공간 활용에 대한 지원 및 접근성 제고 필요 - 문화 기반시설 및 인문 공간의 조성과 함께,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확충과 처우 개선 필요 - 중복 참여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안 마련 필요

-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인문학 향유의 기회 제공은 바람직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등을 통해 인문 가치의 발견과 공유 성과는 달성하였으나, 지속적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과 체계 구현은 미진함
- 지역 유희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희 공간 가운데 일부 공간은 기본적으로 대중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셔틀버스 등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는 물리적 노력이 필요함
- 문화 기반시설 조성은 너무 잘 되어있으나 해당 기관의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함. 겨우 관리·유지만 하는 인력으로는 발전이 어려움
- 단순히 공간 조성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경우 전문인력 확충과 사서직에 대한 처우 등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음. 내부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음
- 주로 도시에 살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많은 계층이 대부분을 점유하는 경향이 있음. 참여자를 단순히 몇 명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얼마나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3.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 지역별 인문 사업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필요
- 기존 일방향의 강의형 인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문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인문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신진 인력에 대한 검증 필요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

- 인문 사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 편차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특히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간(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진흥센터, 문화의 집 등) 교류 확산을 통해 인문 프로그램을 더 많은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프로그램 협력 강화가 요구됨
-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의 괴리가 없이 인문 사업에 대한 지원이 골고루 이뤄져야 함. 적정 기준을 정하여 도시, 농촌 등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추어 인문 프로그램 운영과 자생적 단체의 인문활동 지원이 필요함
- 기존처럼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인문 사업에 혜택을 받는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인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함. 이를테면 최근 다양한 기관에서 재미있는 공모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인문 사업도 다양한 형태로 그러한 공모전과 축제 등의 프로슈머형 인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함
- 현재 단순 지식전달형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 많으나, 이를 지양하고 인문학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보여주고 이 가치를 실현하는 실증연구와 가치실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인문 인력을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함. 이후 전문 인력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인문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정착 필요함
- 지역 간 강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역에서의 강사 참여가 숫자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질의 신진 전문가 참여를 검증할 방안이 시급함
- 단기간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인문 프로그램의 꾸준한 운영이 필요함

4. 지역별·시설별 인문정신문화사업 추진의 격차

1)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진행 시설 및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의견

-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이 도서관, 박물관 등 특정 시설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
-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지역 간 격차가 크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

- 도서관은 독서를, 박물관은 관람을 목적으로 하므로, 관련 프로그램 진행에 무리가 없음.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새로운 문화시설을 만들면 이에 대한 홍보 및 정체성 확립에 큰 노력이 필요하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인문정신문화는 교육부 프로그램과 달리 인문학이나 학교 시설 등의 범위를 벗어나 생활 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음. 도서관과 박물관에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로 볼 수 없음
- 운용시설이 도서관과 박물관으로 한정된 것을 문제점으로 본다기보다, 상대적으로 도서관과 박물관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이들 기관이라도 접근성을 더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인프라는 물론이고, 인구구성의 차이 때문에, 프로그램의 지역 간 격차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지역 편차가 크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2)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진행 시설 및 지역 간 격차 극복방안

- 지역 간 편차 극복방안으로 지역 인문 전문가 활용 등의 인적 지원,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시
-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수강생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역 간 격차 감안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

- 지역 간 편차는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만한 전문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됨. 지역 주민들은 인지도가 있는 전국적 강사의 강연 등을 요구하는 반면, 동시에 지역의 전문가들을 키우고 활용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임

- 거리와 시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함으로써 지역민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가능함
- 지역 특성에 맞게 주제, 진행시간, 모집대상 등을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해야 함
-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및 수강생 부족이라는 실패를 겪었으므로, 지역 간 격차를 불가피한 상수로 인정하고 사업을 구상해야 함

5.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정책 지표 설정 방향

1)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정책 지표 대분류에 대한 의견

- 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정책 지표 대분류에 대해 대체로 적정하다고 평가
- ‘인문자본’과 ‘인문성과’의 경우, 보다 인문학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인 ‘인문자원’과 ‘인문효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 ‘인문자본’보다는 ‘인문자원’이, ‘인문성과’보다는 ‘인문효과’가 더 인문학적이라 여겨짐. ‘자본’은 말 그대로 경제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느낌을 주므로, 보다 인문학적이며 동시에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자원’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보임
- ‘인문성과’라는 표현은 ‘인문’과 ‘성과’가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부자연스러울 뿐더러, ‘성과’라는 표현이 인문학적이라기보다는 결과를 강조한다는 느낌이므로 ‘효과’와 같은 보다 중립적인 용어가 적합함

2)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정책 지표 중분류에 대한 의견

- 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정책 지표 중분류에 대해 대체로 적정하다고 평가
- 질적 평가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 참여율, 참여일수 등의 양적 평가보다 사회 참여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등 질적 평가를 보다 우선으로 뒤야 함.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음에도, 참여자 수나 강좌 수 등에 매이다 보니 과제 수행자들이 이런 부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

- 중분류는 대체로 적절하나, 지표가 대체로 양적 평가 중심으로 되어있고 질적 평가 부분이 약함. 질적 평가의 내용을 지표에 더 포함해야 함

3)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정책 지표 소분류에 대한 의견

- 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정책 지표 소분류에 대해 대체로 적정하다고 평가
- '시민의식 증진'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측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분류를 삭제하거나 구체화 필요
- 질적 평가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 '시민의식 증진'이라는 표현이 막연해 보여,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시민의식 증진'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며, 해당 분류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최대한 양적인 측정이 아닌 질적인 측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참여 시민들이 실제 삶에 있어 어느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인문정책과 인문성과의 측정지표들이 양적 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식의 변화, 후속 연계 활동, 공동체의 변화 등의 질적 지표를 추가해야 함

4)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정책 지표에 대한 추가 의견

- 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정책 지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설정, 시계열 분석을 고려한 지표 설계 등의 개선 필요

- 프로그램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객관적인 조사지표가 시계열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지표를 개발해야 함
- 지역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의 설계가 필요함

-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사업 지속성에 대한 측정지표가 필요함

6. 지수화 방안에 대한 의견

1) 문화활력지수 개발에 대한 의견

- 문화활력지수의 개발은 지역 간 인문격차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이며, 실효성도 있으리라 평가
- 양적인 요소 이외에 질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
- 대학의 인문 분야가 약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간 인문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도는 시기상조라는 지적

- 인문지수의 개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책 비교, 인구 규모에 따른 인문정책 비교, 도시-농촌-도농복합 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지역에 따른 편차 극복을 위한 인문정책 추진이 필요함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관련 지표는 적정해 보임. 다만 내부 수요 - 공급에 대한 질적 요소 (지역 주민의 심층 요구 - 인문 전문가의 전문성 검증 등) 검토 및 반영 필요함
- 문화력을 평가할 수 있는 양적 부분 외에 질적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 지표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체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적절한 지표 구성이 가능할 것임
- 지방 대학의 소멸을 포함해 대학의 인문 분야가 최근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문지수 개발을 통해 지역 간 인문격차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시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문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2) 문화활력지수 개발 시 중요 고려사항

-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수 설계가 필요하며, 개별 지자체가 스스로 인문정책 수준을 파악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지수에 대한 정리 및 공유 필요
- 지수 개발에 앞서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에 대한 조사 수행 필요
- 인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더욱 폭넓게 청취 후 지표 개발 필요

- 개별 지역과 밀착하여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지표를 설계한다면 일괄적인 지표

보다 효율적일 것임

- 인문정책의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종합 인문지수표를 작성하여 종합적인 인문지수와 항목별 전국 및 광역 평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취향이나 욕구, 그리고 인문정신문화 가운데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자료가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더욱 폭넓게 들은 후에 지표 개발 작업을 해나가야 함. 현재와 같이 지표 개발의 목적을 '지역 간 격차 해소'라고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자문을 듣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 여겨짐

2. 2차 델파이 조사

가. 설문안

○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움

	동의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인문정신문화 정책 예산의 부족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의 부 족					
프로그램 개발 의 어려움					
인문 프로그램 실행 시설의 부족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 역량 한계					

<기타의견>

○ 인문정책지표 설정 방향

1. 인문자본

	동의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지역별 인문정 책지표의 측정 을 통한 지역					

	동의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간 격차 확인 필요					
인문자본 측정 에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 예산 지표 선 정					
인문자본 측정 에 시설/조직/ 인력 지표 선 정					
인문자본 측정 에 인문학습지 원체계 지표 선정					
인문자본 측정 에 인문 접근 성 지표 선정					

〈기타의견〉

2. 인문참여

	동의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인문참여 부문 측정에서 참여 기회, 참여율, 참여이수 지표 선정					
인문참여 부문 측정에서 동아 리 활동 지표 선정					
인문참여 부문 측정에서 사회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지표 선정					

<기타의견>

3. 인문성과

	동의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인문성과 부문 측정에서 여 건 만족도 지 표 선정					
인문성과 부문 측정에서 참여 만족도, 활동만 족도 지표 선 정					
인문성과 부문 측정에서 시민 의식증진 지표 선정					

<기타의견>

○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

	동의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인문정신문화 정 책 예산 확대에 기여					
인문정신문화 전 문인력 확대 및 역량강화					
인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 성화에 기여					

	동의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인문프로그램 실행 시설 확충에 기여					
인문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관심 유도					

<기타의견>

○ 세부측정지표 설정 방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동의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 렇다.
인문 자본	정책수립	-인문관련조례제정 여부					
	정책실행	-단기 및 중기 인문정책수립여부					
	정책예산	- 중앙정부 기획 발주 인문관련 사업 선정 건수 및 액수					
		- 예산대비 인문정책예산비율					
	시설	-사업운영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수					
	조직	- 지역별 전문예술법인 단체수					
	인력	-인문관련 전담조직 보유, 관리인력(정규직)확보					
		-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증감율					
	인문접근성	-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 인구단위(십만명)로 환산한 문화기반시설수					
인문학습지원	-인문프로그램 강화개발, 인문 운영 사업수 도서관 1관당 정규직원 현황						
인문학습지원	-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주체구분별 프로그램 현황 - 인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동의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인문 참여	참여기회 참여율	- 시도별 1관당 이용자 교육현황 (교육횟수, 참가자수, 교육 시간)					
		- 시도별 1관당 문화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수, 참가자 수)					
	동아리활동	-지역 도서관 인문관련 동아리 (모임) 수					
	사회참여도	- 지자체별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적 상호 작용	-참여이후 변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참여이후 변화 인식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인문 성과	참여만족도	- 삶의 만족도					
	활동만족도	- 여가활동 만족도(e지방지표) - 여가만족도(생활시간조사)					
	여건만족도	- 지역별 여가시간					

<기타의견>

○ 지표 중요도 비교

1. 대분류 중요도 비교

인문정책지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① 인문자본, ② 인문참여, ③ 인문성과 3개의 대분류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문자본 : 인문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 인식(예: 조례제정) 및 정책적 지원수준(예: 문화부문 예산)과 인문정책 지원을 위한 시설, 조직, 인력 등을 파악
- ② 인문참여 : 인문정책 시행에 따른 운영현황과 연관된 프로그램 참여와 사회활동 수준 파악
- ③ 인문성과 : 인문 프로그램 참여, 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와 인문프로그램의 사회 활동 촉진에 대한 기여 정도 파악

no.	대분류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대분류
1	인문자본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참여
2	인문자본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성과
3	인문참여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성과

2. 중분류 중요도 비교

1) 인문자본

지역의 인문자본을 구성하는 중분류 항목 중 ① 정책수립, ② 정책실행, ③ 정책예산, ④ 시설, ⑤ 조직, ⑥ 인력, ⑦ 인문접근성, ⑧ 인문학습지원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중분류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중분류
1	정책수립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책실행
2	정책수립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책예산
3	정책수립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설
4	정책수립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직
5	정책수립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력
6	정책수립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접근성
7	정책수립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학습지원
8	정책실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책예산
9	정책실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설
10	정책실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직
11	정책실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력
12	정책실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접근성
13	정책실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학습지원
14	정책예산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설
15	정책예산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직
16	정책예산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력
17	정책예산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접근성
18	정책예산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학습지원
19	시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직
20	시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력

no.	중분류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중분류
21	시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접근성		
22	시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학습지원		
23	조직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력		
24	조직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접근성		
25	조직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학습지원		
26	인력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접근성		
27	인력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학습지원		
28	인문접근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문학습지원		

2) 인문참여

지역의 인문참여를 구성하는 중분류 항목 중 ① 참여기회/참여율, ② 동아리활동, ③ 사회 참여도, ④ 사회적 상호작용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중분류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중분류
1	참여기회/참여율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아리활동		
2	참여기회/참여율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회참여도		
3	참여기회/참여율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회적 상호작용		
4	동아리활동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회참여도		
5	동아리활동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회적 상호작용		
6	사회참여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회적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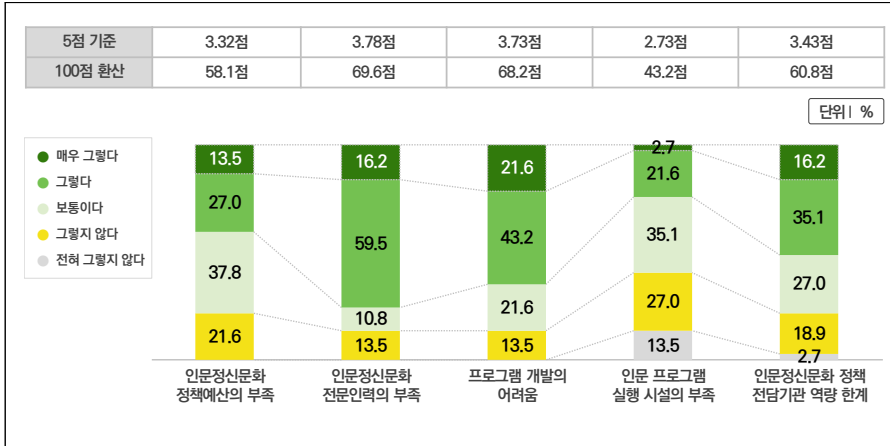
3) 인문성과

지역의 인문성과를 구성하는 중분류 항목 중 ① 참여만족도, ② 활동만족도, ③ 여건만족도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중분류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중분류
1	참여만족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활동만족도		
2	참여만족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건만족도		
3	활동만족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건만족도		

나. 조사결과

1)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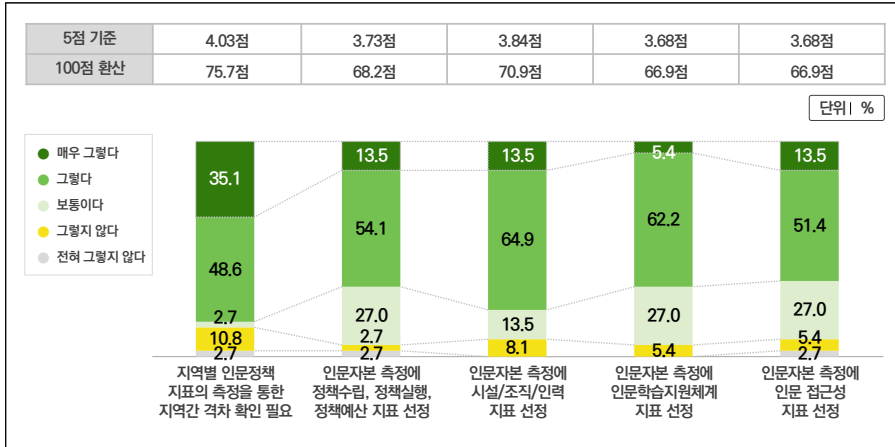
-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100점 환산 평균 69.6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평균 68.2점), '인문정신문화 정책 전담기관 역량 한계'(평균 60.8점), '인문정신문화 정책예산의 부족'(평균 58.1점), '인문 프로그램 실행 시설의 부족'(평균 43.2점)의 순으로 나타남

1-1)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움 관련 기타의견

- 인문학 프로그램 이용자의 낮은 관심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 부족, 인문정책의 모호한 정체성 등이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실행의 주요한 어려움으로 지적됨

-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공유가 불충분함
- 정책목표가 불분명하고 타 사업과 차별화되지 못함

2) 인문정책지표 중 인문자본에 대한 지표 설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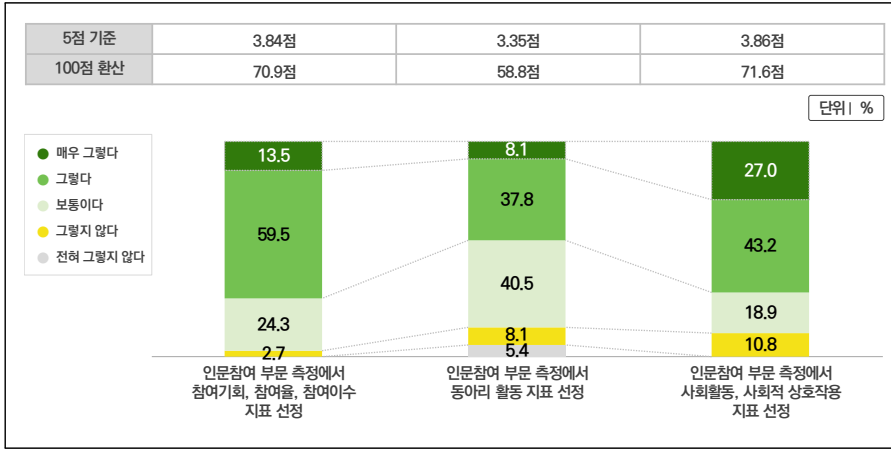
- 인문정책지표 중 인문자본에 대한 지표 설정 방향으로 ‘지역별 인문정책지표의 측정을 통한 지역간 격차 확인 필요’라는 응답이 100점 환산 평균 75.7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인문자본 측정에 시설/조직/인력 지표 선정’(평균 70.9점), ‘인문자본 측정에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지표 선정’(평균 68.2점), ‘인문자본 측정에 인문학습지원체계 지표 선정’, ‘인문자본 측정에 인문접근성 지표 선정’(각 평균 66.9점)의 순으로 나타남

2-1) 인문정책지표 중 인문자본에 대한 지표 설정 방향 관련 기타의견

- 인문자본의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표 설정 필요
- 인문자본이라는 개념의 구체화 필요

- 인문자본의 지역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시민들의 인문 관련 전문성이나 관심 등도 고려해야 할 변수임
- 인문자본의 개념이 선행되어야 함. 인문자본이 순수 경제적 자본인지 아니면 지역이 소장한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참여자의 이해를 구해야 함

3) 인문정책지표 중 인문참여에 대한 지표 설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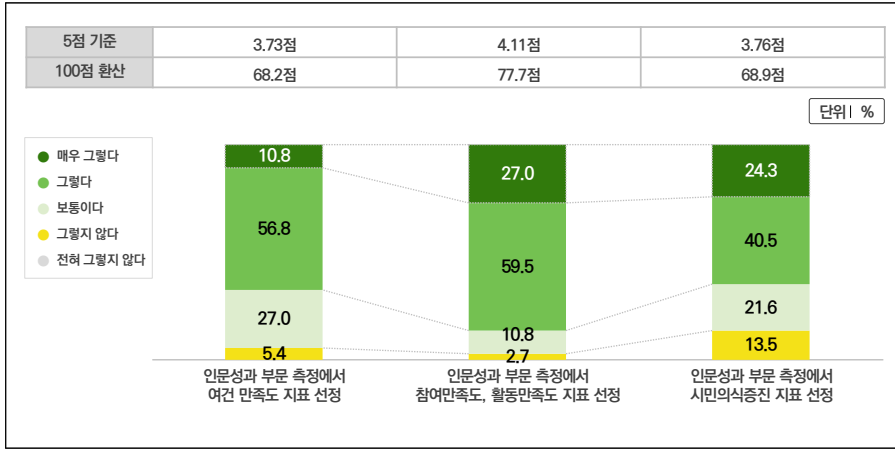
- 인문정책지표 중 인문참여에 대한 지표 설정 방향으로 ‘인문참여 부문 측정에서 사회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지표 선정’이라는 응답이 100점 환산 평균 71.6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인문참여 부문 측정에서 참여기회, 참여율, 참여이수 지표 선정’(평균 70.9점), ‘인문참여 부문 측정에서 동아리 활동 지표 선정’(평균 58.8점)의 순으로 나타남

3-1) 인문정책지표 중 인문참여에 대한 지표 설정 방향 관련 기타의견

- 인문참여에 대한 지표 설정에 있어 양적인 평가보다는 개인 삶의 변화나 느낀 점 등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중요

- 동아리 활동 등을 참여의 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동아리 개수의 단순한 합으로만 산정되어서는 곤란함. 즉, 활동의 내용이나 활동의 결과에 따른 개인 삶의 변화 등 질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인문 사업의 사회적 파급 효과도 중요하지만, 필수 평가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 개인의 변화나 느낀 점이 제일 중요함

4) 인문정책지표 중 인문성과에 대한 지표 설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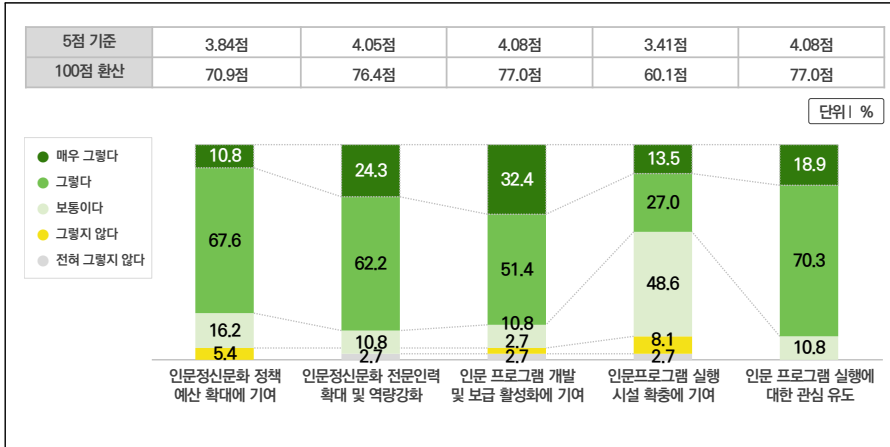
- 인문정책지표 중 인문성과에 대한 지표 설정 방향으로 ‘인문성과 부문 측정에서 참여만족도, 활동만족도 지표 선정’이라는 응답이 100점 환산 평균 77.7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인문성과 부문 측정에서 시민의식증진 지표 선정’(평균 68.9점), ‘인문성과 부문 측정에서 여건 만족도 지표 선정’(평균 68.2점)의 순으로 나타남

4-1) 인문정책지표 중 인문성과에 대한 지표 설정 방향 관련 기타의견

- 시민 스스로 인문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의 추가 필요
- 참여자 및 담당자 대상 개별 인터뷰를 통한 성과분석 등 질적 평가에 대한 고려 필요

- 프로슈머 시대에 맞게 시민들이 주도적이거나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며, 참여하여 성과를 내는 지표도 추가되어야 함
- 프로그램 수, 운영횟수, 참여자 수, 예산 등 계량화된 수치 외에 참여자 및 담당자 개별 인터뷰 등 질적 성과에 대한 수집 도출 부분도 필요함

5)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



-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로 ‘인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와 ‘인문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관심 유도’라는 응답이 각 100점 환산 평균 77.0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확대 및 역량강화’(평균 76.4점), ‘인문정신문화 정책 예산 확대에 기여’(평균 70.9점), ‘인문프로그램 실행 시설 확충에 기여’(평균 60.1점)의 순으로 나타남

5-1)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 관련 기타의견

- 정책지표 설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이나, 이를 실질적인 평가나 실적으로 연결 지어야 정책지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

- 인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올바른 정책 설정이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밑바탕이 됨
- 지표 설정이 지자체 등의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개선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됨
- 지표 설정에서 끝나지 않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함

6) 세부측정지표 설정 방향



- 세부측정지표 설정 방향으로 ‘(인문자본) 인력 - 인문관련 전담조직 보유, 관리인력(정규직)확보’라는 응답이 100점 환산 평균 76.4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인문참여) 사회적 상호작용 - 참여 이후 변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평균 75.0점), ‘(인문성과) 참여만족도 - 삶의 만족도’(평균 74.3점), ‘(인문자본) 인문학습 지원 - 인문프로그램 강좌개발, 인문 운영 사업 수, 도서관 1관당 정규직원 현황’(평균 73.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6-1) 세부측정지표 설정 방향 관련 기타의견

- 양적인 평가 외에 심층 인터뷰 등 질적 평가 도입 필요
- 지역의 인문적 특성을 보여주는 측정지표의 개발 필요
- 평생학습 등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및 이를 위한 구체화한 지표 개발 필요

- 인문지표인 만큼 단체 수, 참여자 수 같은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의 비중을 높여야 함
- 삶의 만족도 관련해서는 양적인 평가 외에도 심층 인터뷰를 포함해, 프로그램 이수 이전과 이후를 비교 및 평가하는 등 질적인 방식의 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지역 평가에 인구수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인문적 특성을 보여주는 측정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사실상 인문정신문화와 평생학습 활동이 유사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음. 두 영역이 어떤 부문에서 같고 또 어떤 부문에서 다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집필내역

연구책임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1절~제3절 일부, 제3장 제1절~제3절 일부, 제4장 제1절~제4절 일부, 제5장 일부, 연구총괄

연구진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제2장 제1절 일부, 제3장 제1절~제3절 일부, 제4장 제1절 일부, 제5장
정현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2장 제2절, 제3절

인문지표개발 및 지수화 방안 연구

발행인 류광훈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2년 10월 21일

발행일 2022년 10월 21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29-1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11>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이성우·김면·정현주(2022), 인문지표개발 및 지수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11>

